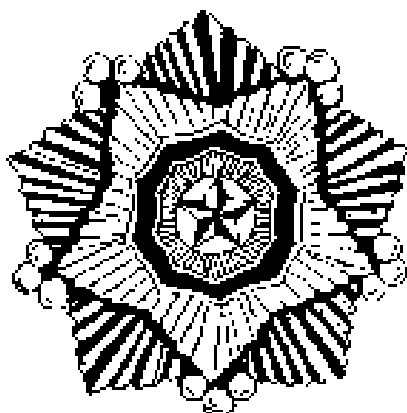




2

주체 90 (200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90(2001)년 제2호

(루계 제 640 호)

◇◇◇◇◇◇◇◇◇◇◇◇

## 차 례

◇◇◇◇◇◇◇◇◇◇◇◇

축원 .....	4
백두산전설 .....	5
영원무궁 받드세 .....	5
아침 .....	6
종자리론의 불멸의 진리성과 위대한 생활력 .....	14
백두의 해돋이 .....	16
승고한 동지애 .....	17
구봉령 .....	18
종자천명과 《100 년사상사총화》 .....	19
백두산정소묘(외 1 편) .....	22
백두산에 흰눈이 내리네 .....	22
간절한 소망 .....	23
명언해설 .....	24
봄이 웃는 내 나라 .....	24
시인의 열정의 분출, 시대의 메아리 .....	25

아이들에게 주는 시 .....	27
그리움은 승리 .....	28
작가와 교훈 .....	29
20 세기령마루에 높이 떨친 조선사람의 존엄과 기개, 긍지 .....	30
눈물의 샘.....	33
인터넷홈페이지 .....	34
버드나무 .....	35
평범한 우리의 모든것이 .....	47
칠보산 산수시초 .....	48
다섯번째 사진 .....	50
웃음은 우리의것이다.....	63
산딸기 .....	64
비전향장기수와 그의 안해에 대한 련시 .....	77
탄전의 저녁풍경 .....	79
작가의 체험이 낳은 소설.....	80

## 송시

### (1)

정일봉기슭에  
눈은 내렸다... 내려서 쌓였다...  
그날, 빨찌산의 아들과  
이 나라의 송구한 마음들이 삼가 드린것은  
쪽무이포단 한장  
나무로 짠 장난감총 한자루

백두밀영고향집 창너머로  
파아란 이깔숲도 초롱초롱 바라보시며  
어머님품에 안긴 고요한 잠결에  
롱마 타고 훨-훨-  
세기의 하늘가를 달리는 꿈도 꾸시며  
어리신 그이는  
그 쪽무이포단속에서 자라시었다

그 나무총 잡으시고  
백두의 솟눈우에 첫 걸음마 익히시면서  
어머님 손길 들어 가리켜 주시는  
왜놈의 숨통을  
그 총으로 자주 겨냥도 해보시면서  
한해... 또 한해... 그이는 성장하시었다

너무나 드릴것이 없고  
너무나도 시련에 찼던  
천고밀림속 항일대전의 2월이였기에  
어리신 장군님의 앞날  
쪽무이포단 한장과 나무총 한자루로  
인민은 눈물겹게 축복해 드렸건만

그랬건만 오!  
그 포단 덮으신 그이의 가슴우에는  
하늘땅, 그보다 더 무거운  
겨레의 운명이 실려 있었고  
그 나무총 잡으신 그이의 손길에는  
퇴성벽력, 그보다 더 무서운  
조선의 위력이 깃들어 있었다

### (2)

이 세상 하늘아래  
인민이 산다  
우리의 장군님 품은  
인민을 품어 주는 정의 하늘

## 축원

## 채규

어린 날 덮고 자라신 쪽무이포단 한장을  
사랑의 그 하늘로 펼쳐 주신  
인민의 아버지!  
어린 시절 잡으셨던 나무총 한자루를  
그 하늘 지키는 선군의 총대로 빛내주신  
위대한 령장!

21세기의 첫 아침에  
평양산원의 무수한 창가를 흔들던  
복된 새 생명들의 고고성을 들어 보라  
장군님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  
병실의 하얀 벽에 높이 모시고 사는  
천만 병사들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어 보라

백두밀영고향집 추녀아래서  
아버이장군님 넓으신 품속에서  
인민이 살고 무적필승의 강군이 자라거니  
쪽무이포단... 나무총 한자루...  
드린것 너무나 소박한 인민에게  
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은  
정일봉마루에 거연히 서시여  
인민사랑의 푸른 하늘가에  
강성대국의 밝은 해와 아름다운 별을 없어  
주시었다

### (3)

2월!...  
하염없이 내리는 눈처럼  
하염없이 쌓이는 인민의 축원...  
인민을 위해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으시고  
주실수 있는것은 다 주시였는데  
인민은 과연 무슨 말로  
2월의 이 축원을 대신할수 있으랴

내 고향 연백벌에  
토지정리 발동소리 더 우렁차게 울리면  
나의 깨끗한 땀 강그리 쏟아  
저 양어장 물고기들 더 살지게 키우면  
우리 장군님  
길이 즐거우시고 건강하실가

이 한몸 결사옹위의 총검이 되고  
일심단결의 성새속에 붉은 성돌 된다면

하여 희망찬 새 세기에  
우리 태양 높이 모시고  
강성부흥의 새 노래 심장으로 불러 드린다면  
우리 장군님  
부디 한시라도 편히 쉬실수 있을가

아, 우리의 모든 소원 이룩하는 그날까지도  
잊지 못하리라 잊지 않으리라  
백두밀영고향집의 그 포단, 그 나무총...  
인민을 품어 주고

조선을 키워 준  
고향집의 그 유산  
2월의 그 위대한 만년재부를!

그래서 오, 그래서  
그 한장의 쪽무이포단으로 났을 더웁히고  
그 한자루의 나무총에서 필승의 래일을 보며  
인민은 오로지  
아버이장군님의 만수무강만을  
천세만세 무궁토록 받들어 가리라!

시

## 백두산전설

리찬영

백두밀영골안에 들어 서면  
우뚝 솟은 저 바위가  
그 유명한 룡마바위라오

달려 갈 길 아직도 멀어  
코투레질소리인가  
썩 눈바람소리

고삐만 나꾸채면  
금시라도 진군해 갈 저 기상  
온뉘를 다 빼앗네

저렇게 천년을 서있었으리  
저렇게 만년을 기다렸으리  
우리 장군님 탄생을 축하하여

먼 옛날부터 세워 진 저 바위

어찌 말 없는 바위라고 하랴  
내 나라 삼천리강산의 앞날을 위해  
우리 장군님 우러러  
저렇듯 바위조차 룡마되었나니

아  
우러러 바라볼수록  
장군님께서 달리는 마음  
달리는 말발굽소리 따라 더해 지네

그이의 높으신 뜻 위대하여  
력사로 길이 전하자고  
영원한 백두산전설로  
세상에 빛나누나

가사

## 영원무궁 받드세

김경기

그 영상 이 땅에 밝은 해 되고  
그 믿음 인민의 하늘 되었다  
세월은 그이 품에 이 강산을 맡겼다  
**김정일** 우리 장군 영원무궁 받드세

그 사랑 행복의 노래가 되고  
그 품은 인민의 집이 되었다

인민은 그이 품에 모든 운명 맡겼다  
**김정일** 우리 장군 영원무궁 받드세

그 자욱 내 나라 력사가 되고  
그 뜻은 시대의 기치되었다  
력사는 그이품에 온 세계를 맡겼다  
**김정일** 우리 장군 영원무궁 받드세

## 아침

리명

## 1

3월 초순이었다. 겨우내 쌓였던 눈더미들이 낮 동안 녹으며말며 하더니 밤이 되기 바쁘게 다시 얼어 붙었다. 거뭇한 하늘 가운데 떠 있는 초생달마저 추위에 등허리가 꼬부라든듯 싶다.

깊은 밤 산중의 넓지 않은 길센에서 화톳불이 타고 있었다. 다른 삭정인들이 타오르며 튀기는 불씨들이 길 양옆에 위병처럼 서 있는 수림의 우듬지우로 반디불처럼 사라지곤 했다.

화톳불빛은 나무밑 등들과 눈석이물이 꾸덕꾸덕 얼어 붙은 길바닥에 주련이 늘어 선 승용차의 차체들을 불그레한 빛갈로 물들이고 있었다.

《중구만. 머리가 거뜬해 지거든…》

불무지에서 조금 떨어 진 길녘에 서계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밤의 청신한 대기를 폐부 깊이 호흡하시며 바른 손으로 허리를 가볍게 두드리시었다. 그이께서는 과중한 사업으로 온몸에 무겁게 실린 피로를 이따금 이렇게 로상에서 푸시곤 하셨다.

《자 이젠 몸들을 녹이면서 발전소 새 물길안을 다시 들어봅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삭정이들과 술검불들을 한아름씩 안고 어둠속에서 나타나는 수원들을 보며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먼저 화톳불가까이에 놓인 의자에 앉으시자 수원들인 국방위원회와 인민무력성의 책임일군들 그리고 수력발전소건설부문 실무일군들이 불무지두리에 자리를 잡았다.

그이께서는 이번에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시찰에 앞서 중부지대에 새로 일떠서는 룡천강수력발전소건설장에 먼저 들릴 계획으로 발전소건설부문 일군들도 함께 데리고 떠나신것이다. 룡천강수력발전소 설계집단책임자이며 새 물길굴 의안자인 조상문박사는 장갑 낀 두손을 량허벅지에 딱 붙이고 한 일군의 뒤에 긴장해서 서 있었다.

불무지에 삭정이를 꺾어 넣으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상문의 웅색스러운 몸가짐을 얼핏 띄여 보며 미소를 지으시었다.

《조상문선생이 앞으로 나와 설명해 주시오.》

**김정일**동지의 부르심에 조상문은 숨결을 툭아 올리며 조그마한 어깨를 폈다. 조상문은 키가 작고 몸집도 체소한 늙은이였으나 희숙한 눈섭아래 조용히 타는 눈빛과 이마와 눈가에 패인 주름들은 사색과 탐구의 흔적인듯 《고명한 지성인》의 준수한 인상을 질게 하였다.

《…이번에 우리가 새롭게 내놓게 되는 발전소

물길굴은…》

**김정일**동지께서는 도면앞에 정히 한무릎을 꿇고 앉아 설명해 나가는 조상문의 말을 귀 담아 듣고 계시었다.

룡천강수력발전소는 그이께서 직접 발기하시고 몸소 무르익혀 오신 발전소의 하나였다. 어느 해 그이께서는 쉽없이 이어 가시는 현지지도의 나날 중부지대의 룡천봉령길을 넘게 되시었다. 그때 해발 500m가 넘는 룡천봉산정에서 깊은 계곡을 향해 장쾌한 흐름으로 떨어 저 내리는 세갈래의 폭포수를 관망하시면서 커다란 수력자원의 예비를 찾게 되시었다. 하여 인츰 수력자원조사단과 설계집단이 현지에 파견되였다. 설계집단의 책임자는 조상문이었다. 설계집단은 락차고가 제일 높은 계곡상류에 언제위치를 정하려고 하였으나 갈수기에 보충해야 할 물량때문에 확정하지 못하고 애를 먹었다. 여러차례 현지를 밟아 보며 고심을 하던 설계집단은 대담하게 50리 밖에 있는 성내천물을 굴을 뚫어 끌어 오기로 하고 그 위치에 언제를 쌓기로 락착지었다. 그러나 역시 10리나 되는 물길굴을 뚫는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석회암과 물주머니들이 앞을 막아 나섰다. 돌격대원들과 함께 석수에 물참봉이 돼가며 전투를 벌리던 조상문은 새로운 물물이길을 착상하게 되였다.

그것은 올해부터 시작된 《개천-태성호물길》이 룡천봉너머 야산을 꺾질러 지나가는 조건에서 그물을 잡아 쓴다면 5리도 채 못되는 1,600m의 물길굴만 뚫으면 되기때문이었다. 비록 성내천의 물량보다는 작고 지금 뚫고 있는 10리 물길굴과 방향이 달라 새로 시작해야 하는 조건은 있지만 현재 공사중인 굴이 석회암과 물주머니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에서 새 물길굴안이 경제적인것만은 사실이였다.

《수고했습니다. 새로운 물길안이 발전소조업기 일도 단축할수 있고…로력과 자재도 적게 들고…동무들의 생각엔 어떻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상문의 설명이 끝나자 새 물길굴안이 좀 허전한감은 들었지만 내색을 앓으시고 수원들에게 물으시었다. 수원들은 새 물길굴안에 공감은 하면서도 지금 공사중인 물길굴에 투하한 로력과 자재때문인지 애매한 표정들을 짓고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화톳불화기에 뿌여지는 안경을 벗어 닦으며 말씀을 하시었다.

《우리는 현존발전능력을 최대한 높일뿐아니라



수력자원에비를 다 찾아서 중소형발전소들과 함께 대규모적인 발전소건설을 계속 줄기차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오늘 나라의 전력문제는 의연히 긴장되어 있습니다. 내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전력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푸는가 못푸는가 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느냐, 세우지 못하느냐 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입니다. 요즘 제국주의자들은 우리가 저들의 압살책동에도 끄떡없이 경제건설을 다그쳐 가고 있으니 언론매체들을 부추겨 뭐라는지 압니까. 우리가 <단독항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저들의 <세계화>의 흐름과는 별개인 <단독항행> 말입니다....

그이께서는 잠시 말씀을 끊으시었다. 그이의 안광은 근엄해 지고 눈에서는 서늘한 빛이 흘러나왔다.

조상문은 하나의 발전소건설문제가 이렇듯 엄청난 세계적인 문제와 잇닿아 있으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하였다. 그의 뇌리에는 문득 최근 어느 한 출판물에서 읽은 몇구절이 떠올랐다.

...제2차 세계대전후 세계는 두개의 흐름을 형성하였다. 쏘련을 시원으로 하는 사회주의흐름과 서방제국을 시원으로 하는 자본주의흐름이었다. 그러나 80년대후반기 동유럽사회주의흐름은 그 종착점에 가닿아 보지 못한채 서방흐름에 합류되어 자본주의흐름을 《세계적》인 흐름으로 만들어 놓았다. 오늘 서방은 그 흐름을 《세계화》란 말로 바꾸어 지금은 민족이니 리념이니 하는 시대가 끝났으므로 모두들 그에 배를 띄우고 부지런히 노젓기를 바라고 있다. 바로 그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가는 길이 이 행성이 하나로 되는 길이요 인간과 사회가 고도로 《완성》되는 길이요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진대 우리의 《배》는 지금 그 흐름과는 전혀 다른데로 지향하고 있는것은 사실이다! ... 강성대국으로 가는 우리의 길이 <단독항행>이라면 그 길은 과연 그들의 주장대로 인간과 사회를 완성시킬수 없단말인가?...)

조상문은 어이가 없었다. 그러면서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우리 혁명의 《배》는 《세계화》와 맞선 풍랑 사나운 험로역경을 헤쳐야함을 새삼스레 절감하게 되었다.

승엄한 정적을 흔들며 **김정일**동지께서 다시 말씀을 이으시었다.

《하지만 <세계화>는 동무들도 아다싶이 인간우에 돈이 군림하여 모든것을 결정하고 있는자와 없는자의 불평등이 민족의 존엄과 자주성, 인권까지도 심히 파괴시키고 온갖 범죄를 낳게 하는 그러한 혼탕물의 흐름입니다. 그런 혼탕물이 주류를 이루는 사회가 인류의 미래를 담보할수는 없으며 평화롭고 자주적인 삶을 원하는 인류를 구원할수도 없습니다. 지금 적들은 우리를 보고

<단독항행>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오늘의 현실을 모르고 하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오늘이 시대의 인류는 모두 우리를 지지성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이 길이 험난하다 해도 앞장에서 뚫고 나가야 하며 세상사람들에게 신심을 주어야 합니다.》

그이의 말씀에 저으기 격동된 조상문이며 수원들이 따라 일어섰으나 그이께서는 그냥 제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라고 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숲가녁을 따라 홀로 거닐며 사색을 이어 가시었다. 발밑에서 녹지 않은 눈이 빠드득거렸다.

불현듯 그이의 눈앞에 망망대해가 펼쳐 지며 그 한복판에서 풍파를 맞받아 나아가는 한척의 배가 떠올랐다.

익측도 없이 한몸으로 붉은기를 날리며 전진하는 우리의 배... 배전으로는 길길이 날뛰는 검푸른 파도가 와와 거품 끓는 입을 벌리고 삼킬듯 달려 든다. 겁질린 자들은 배전에서 뛰어 내렸다. 그 천길나락의 컴컴한 물속으로...

항로를 개척하며 전진하자니 우리 배도 피해를 적지 않게 입었다. 숨 죽은 공장파와 탄광들, 여러 해째 계속되는 자연재해... 의연히 긴장되고 있는 전력문제...

**김정일**동지께서는 불무지앞에 펼쳐 놓은 도면을 손으로 가리키며 수원들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는 조상문을 바라보시었다. 벌써 은퇴했어야 할 늙은이... 지금쯤은 손자손녀들을 무릎에 앉혀 놓고 옛 이야기나 해주며 여생을 즐겨야 할 고령의 로인도 나라의 전력문제를 풀어 보려고 이밤 잠들지 못하고 있다. 성내천물을 끌어 오기 위한 설계를 할 때에 자기가 직접 현지조사를 하느라 험한 산벼랑을 뚫다가 굴러 떨어 저 병원에까지 실려 갔던 늙은이다. 그렇게 힘들게 완성한 설계이지만 로력과 설비,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발전소를 건설할수 있는 안이 생기자 대담하게 이미 완성하였던 설계를 부정하고 새롭게 시작하느라 현장에서 침식을 하며 아글타글한 로박사... 그는 그 험한 룡천봉을 다섯번이나 오르내렸다고 한다.

어찌 저 조상문이뿐인가. 온 나라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떠서고 있다...하지만 새 물길굴안은...

별들이 은구슬처럼 널려 있는 밤하늘을 달없이 이고 있는 산봉우리들과 숲으로 희뿌연 운무가 설피게 감겨 돌았다.

어느새 동이 터오려는듯 싶었다.

《날이 밝으려는것 같은데 또 달려 봅시다. 조 선생은 내 차에 옮겨 타십시오. 이야기나 나눕시다.》

그이께서는 활력에 넘쳐 승용차를 향해 걸음을 내짚으시었다.

## 2

새벽빛이 물드는 대기를 꺾으며 승용차행렬이 쾌속으로 달리고 있었다. 시창밖으로는 가로수들이 자빠질듯 획획 스쳐 지나가고 채 녹지 않은 눈더미들이 희끗거리는 산등성의 다락발들이 흘러갔다.

《좁 눈을 붙이십시오. 차안에서 자는 쪽잠이 제일 단잠입니다.》

**김정일** 동지께서 곁에 앉은 조상문이와 담화를 마치시며 권하는 말씀이시였다. 그러나 의자등받이에서 몸을 떼고 꼳꼳이 앉아 있는 조상문은 꿈같은 환희에 젖어 있었다. 봄날의 햇빛과도 같은 미소... 열정에 넘치신 음성...

《장군님...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이 시간이 걸어 온 한생을 다 주고도 바꿀수 없는 정말...》

조상문은 걱정으로 하여 말끝을 맺지 못하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쉬이 잠들지 못하는 늙은이의 심정이 이해되시였다. 그이께서는 여태 조상문의 과거사를 들으시며 시간 가는줄 모르고 계시였다.

조상문은 중년나이에 불치의 병에 걸린 안해를 잃은 후 외톨로 지내고 있었다. 어쩌서 지금까지 후취하지 않았느냐는 그이의 물음에 조상문은 어쭙게 웃으며 자기의 사랑하는 반려는 아직 나라에 크게 보탬을 주지 못하고 있는 학문이라고 솔직히 고백하였다.

그이께서는 고지식하고 강직한 그 성품이 마음에 드시였다. 이런 애국의 마음을 간직한 그였기에 나라의 품전을 조금이라도 아꼈 그 한 생각으로 이미 비준한 설계도 마다하고 새 설계를 내놓은것이 아니겠는가. 발전소건설이 한창인 지금에 와서까지도 도면을 불안고 보다 합리적인 안을 찾아 모색하고 모색했을 그 사심 없는 량심을 귀중하게 사고 싶었고 이러한 자각된 힘이 강성대국건설의 튼튼한 밑천이고 재력이라고 믿고 싶으시였다. 하지만 새 물길굴을 설계한 조상문의 그 립장과 태도에는 아직 석연치 않은 그 무엇이 있었다.

그래서 인민군전사들을 찾아가는 길이 바쁘지만 발전소건설장에 먼저 들리기로 작정하신것이다.

차체가 가볍게 진동하였다. 길바닥 얼음이 바퀴에 짓이겨 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뒤바퀴가 한쪽으로 지치였다. 울리막길이였다. 우로 쳐들리는 시창너머로 희푸르스름한 하늘에서 줄음에 실린듯 정기없이 꺾박이는 별들이 보였다. 차가 힘들게 울리막정점에 이르자 길은 두갈래로 뿔어 있었다. 전조등불빛이 갈림길목에 세워진 이정표를 비치며 지나갔다.

묵묵히 시창밖을 내다보고 계시던 **김정일** 동지

께서는 차가 내리막길을 따라 얼마쯤 달렸을무렵 문득 혼자소리처럼 뇌이시였다.

《이자 저쪽길은 금덕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것 같습니다.》

조상문은 방금 지나온 이정표를 상기하며 대담을 올렸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다시 외우시였다.

《금덕리라... 참 조선생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태전에 발전소터전을 잡아 주고 가던길에 만났던 처녀애를 말입니다.》

《저... 이름이... 봄순이라고 하던...》

《웁습니다, 봄순이! ... 그 애의 집이 금덕리에서 2백리길입니다. 이젠 퍼그나 컷을텐데...》

감회에 젖어 들던 그이의 안광에 짙은 그늘이 내려 앉았다. 애뜻하면서도 아릿한 아픔에 몸이 저려 드시였다. 허지만 그 저미는듯한 피로움끝에는 무궁한 활력과 열정으로 끓어 오르시였다.

지금은 우연히 봄순이를 상기했지만 잠시도 공간이 없는 분망한 사업에 힘이 부치거나 겹쌓인 피로로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질 때면 일부러 마음속에 떠올리는 봄순이...별같이 반짝이던 까만 머무는, 볼우물이 패이는 상긋한 미소, 고무줄로 제비초리처럼 머리를 쏜져 댔던 그 한점 때문지 않은 애어린 모습...

이래전 가을 해질녘이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버럭산을 배경으로 일매지게 늘어 선 광산마을 한끝에 자리 잡고 있는 길옆 집앞에 서계시였다. 빨간 토기와우에 널려 있는 빨간 고추, 그우로 한가로이 날으는 빨간 잠자리... 굴뚝에서 피어 오르는 연기마저 빨강게 타버리는 저녁노을에 물들어 그이께서는 그 무슨 동화세계를 보신듯 미소를 머금고 집주인을 찾으시였다. 밭 짓는 풀무소리가 간간이 들려 오던 부엌문이 빠르게 열렸다. 문으로 마늘쪽같이 생긴 조그마한 머리가 나오더니 까만 눈동자가 대뜸 울롱해 졌다. 놀람과 겁기가 뻔 그 눈동자에는 어쩌서 술한 어른들이 자기 집뜨락에 들어 서고 있는지 그리고 처음 보는듯한 승용차행렬은 또... 그 모든 아름다운 사연을 순간에 깨닫기엔 아무래도 자신이 없는듯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소녀는 《울아빠, 엄마는 없는데...》라고 입속말로 뇌이다가 갑자기 환성을 울리며 맨발로 달려 나왔다.

《아버지장군님!》

그이께서는 처녀애를 두팔에 감싸 안으시였다. 채 여물지 못한 섬약한 어깨뼈가 손에 닿았다.

《그래 이름이 뭐냐?》

《유봄순입니다.》

《봄순이?... 이름이 참 좋구나. 몇살이냐?... 아 흠살! 그러니 인민반학생이구나... 공부는 잘하느냐?》

《전반학기에도 최우등을 했습니다.》

《오, 참 대단하구나.》

그이께서는 기쁘시여 살짝 패이는 봄순이의 보



조개를 다독여 주시었다.

《아버지, 어머니는 어데 갔느냐?》

《일 나가셨습니다. 아버지인 광산굴진소대장이 구업만 전차선로감시원이예요. 올라버지, 업만 혁신자부부라고 광산계시판에 굉장히 큰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내 이제 광산에 들어서 꼭 보겠다. 음- 그래서 봄순이가 저녁밥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 뭘 해먹느냐?》

《저, 오늘은...》

봄순은 물 묻은 손을 주물럭거리며 할곳 그이를 쳐다보았다. 짧은 순간 그이께서는 봄순의 그 눈빛에서 말하기 주저하는 반사광을 포착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봄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는 문턱을 넘어 부엌에 들어 서시었다. 그때 한걸음 뒤에 섰던 봄순은 불안간 앞질러 뛰어 들어 단가마우에 어푸러질듯 허리를 굽히며 애절한 눈빛을 치여 들었다.

《아버지장군님... 안 보셔도 됩니다...》

두서 없는 말마디를 황급히 주어 대는 봄순의 얼굴은 금시에 울음이 터질것만 같았다. 그이께서는 애원의 물기가 그러한 그 까만 눈동자를 피로운 미소를 지으며 보시다가 봄순의 어깨를 껴안으시었다.

《애야, 일없다. 날더러 아버지라구 하면서... 아버지가 제 집가마에서 무엇이 뭍는지도 모르면 되겠느냐.》

봄순이를 애 써 진정시킨 그이께서는 가마앞으로 다가서시여 손잡이에 붓나무껍질이 감겨 진쇠가마뚜껑을 한옆으로 밀어 놓으시었다. 더운 김이 물씬 피어 올랐다. 차츰 가마속이 드러났다.

푸르끼레한 색채로 범벅된 사이사이로 점점이 널린 누런 통강냉이알들...

그이께서는 심장이 빠근하다 못해 고막이 징울리는것 같으시었다. 삽시에 온몸에 피로가 몰려들고 눈앞이 어지러우시었다. 웬일인지 그 뿌잇해 지는 눈앞에서는 눈보라가 일었다.

《아버지장군님...》

봄순의 나직한 부름소리에 그이께서는 고개를 돌리시었다.

눈물방울이 맺혀 파르르 떠는 속눈섭을 치여든 봄순은 실금 같은 파란 피줄이 내비치는 인중아래 약간 도드라진 입술을 벌리려고 하였다. 무엇인가 원하면서도 갑자르는데만 같아 그이께서는 봄순이쪽으로 머리를 기울이시었다. 봄순은 누가 들을세라 재빨리 그이의 귀전에 한손을 오그려 속삭이었다.

《아버지장군님께 풀죽을 보여 드린걸 우리 아버지, 엄마가 알면 난 욕 먹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 걱정을 끼치면 나쁜 사람이에요. 난... 난 나쁜 아이 안될래요...》

《그래, 그래, 내가 아빠, 엄마에게 말하지 않으

마. 그러면 되지?》

그이께서는 건디기 바쁘시여 밖으로 나오시었다. 소슬한 바람결에 머리카락이 날리고 옷자락이 뒤치락이었으나 그이께서는 아무 감각도 못느끼시었다.

(이제는 철없는 애들까지...)

목이 메고 눈물이 펴 어리었다.

(봄순아... 너희들에게 풀죽밖에 먹이지 못하는 데도 넌 오히려 내가 걱정할가봐...)

문득 떠오르는것이 있다.

어느 해였던지...수령님의 생신날을 앞두고 인민들의 한결같은 소원을 담아 그이께 생신상을 차려 드리기로 하였다. 그때 수령님께서서는 얼마나 노하시었던가...

...동무들이 쓸데 없는 일을 왜 자꾸 하려고 합니까. 동무들이 정 소원이라면 온 나라 아이들에게 옷이랑 신발이랑 학용품들을 다 주도록 해주세요. 그게 나한테는 제일 기쁜 생일상입니다...

그때부터 태양절이면 수령님의 생신상을 온 나라 아이들이 받고 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수령님께서 그리도 애지중지키우고 보살피시던 봄순이들을 생각하니 이제는 켜기밥조차 쉬이 넘길것 같지 못하시었고 세상만복을 통채로 안겨 주어도 쓰리고 아픈 심정을 다 가실수 없을것 같으시었다. 그이께서는 수령님께서 맡겨 주신 나라와 인민에 대한 책임감이 온몸을 더욱 무겁게 짓누르는 중압감과 함께 가슴속에서 휘몰아 치는 폭풍을 느끼시었다. 기어이 이땅에 행성의 주축을, 기둥을, 강성으로 빛날 대국을 일떠세우리라는 철의 의지와 신념이 백두의 메부리처럼 솟아 오르는것이였다...

《그래 조선생은...》

그이께서는 회억을 지우시며 조상문의 쪽으로 몸을 약간 돌리시었다.

《...그때 조선생도 우리 인민들이 겪는 생활을 직접 체험해 보았겠지만... 혹시 세계의 <주류>에서 탈선되어 력사의 기슭으로 밀려 나는 민족의 슬픔으로 느껴 지지는 않았습니까?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여태 장군님과 봄순의 생각에 움해 있던 조상문은 그이의 진중한 물음에 지금까지 품고 있던 심중을 털어 놓을수밖에 없었다. 조상문은 한동안 마음을 가다듬고 허연 머리를 숙이며 대답을 드렸다.

《외람된 말씀이오나... 저는 그때 배를 끓으먼서도 아버지의 고생을 먼저 생각하는 어린 자식의 티 없는 효성과 그 가락함에 진정 못하시는 장군님의 눈물을 보면서 참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새 물길안을 내놓게 된것도 그때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나라의 형편은 생각지도 않고 너무 어벌이 크게 설계하였던것이 죄스러웠습니다. 나라의 재정에 크게 손을 대는것 같

기도 하고 또 봄순의 밥그릇을 축내는것 같기도 해서…》

《음…》

**김정일** 동지께서는 알릴듯 말듯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조상문이 무엇때문에 공사중인 물길안을 포기하고 새 물길안을 내놓게 되었는지 이제야 이해되시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어쩐지 마음이 허전해 지시었다. **김정일** 동지께서 조상문의 첫 설계를 지지하신것은 우선 대답하고 통이 크게 설계하였기때문이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렵다고 첫 설계를 포기한것이다. 지금 우리의 일부 일군들과 기술자들속에서는 오늘의 이 고난앞에 위축되고 소심해 저 급한 고비나 넘기고 보자는 식의 일본새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었다.

우리가 건설하는 모든 창조물들은 21세기, 아니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바로 강성대국의 그 지위에 맞게 되어야 하는것이다. 만년대계의 창조물로…우리가 지금 통이 크게 벌리고 있는 강원도와 평북도의 토지정리사업도 《개천-태성호물길》공사도 안변청년발전소 2단계공사와 태천발전소건설, 대흥단…평양-남포고속도로건설… 우리 당은 가장 어려운 때에도 이처럼 통이 크게 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고 있다. 적들의 봉쇄의 울가미가 조여 지면 조여 질수록 더욱 역세게 일어 나 가슴을 내밀고 배심 있게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의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이런 배짱이 없는 현상들이 아직까지도 없어 지지 않고 있는가.

**김정일** 동지께서 아무 말씀도 없이 차창밖을 내다보시었다.

그러나 새 설계를 힘들게 완성한 조상문에게 선뜻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지 않았다.

그이의 사색은 점점 깊어 갔다.

배를 뚫고 풀뿌리를 씹으면서도 변함없이 당을 따라 오고 있는 우리 인민에 대하여… 그들을 이끌고 강성대국의 령마루로 치달아 오를 험치 않은 그 로정에 대하여…

정말 쪽잠마저도 드실수 없는 밤이었다.

### 3

**김정일** 동지께서 룡천강수력발전소건설장에 도착하시였을무렵에는 날이 흰히 밝았다. 이른봄날의 맑고 따스한 날씨를 예고하듯 넓게 트인 룡천골바닥은 젖빛안개로 덮여 있었다. 길고 짧은 팔들을 내뻗친 기증기들이며 회전로 동체와 같은 육중한 혼합기들이며 대형자동차들과 골재무지들이 안개의 장막에 가리워 어수룩레한 룡관만 드러냈다.

멀리 아스라게 솟아 오르는 언제의 옷머리는

마치 구름우에 떠있는듯 싶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마중나온 발전소건설사업소 지배인과 일군들의 안내를 받으며 현장을 돌아보시었다. 발전소언제건설정형을 료해하신 그이께서는 곧바로 새 물길을 뚫게 될 위치로 향하시었다. 산턱을 짊고 준비하게 들어 앉은 건설자속 소건물들의 굴뚝에서 아침연기가 곧추 오르고 그 너머 다박술술에서는 새벽잠을 깬 새들이 즐거이 지저귀었다.

《10리물길굴공사는 어느 정도 추진되었습니까?》

**김정일** 동지께서는 한걸음 뒤에 떨어 저 있는 지배인을 돌아 보며 물으시었다. 보통키에 가슴이 푹 볼거진 지배인이 그이의 곁으로 성큼 다가섰다.

《현재 1.5km구간을 뚫었습니다.》

《히, 벌써?!》

그이께서는 옮기시던 걸음을 멈추며 얼핏 조상문을 건너다 보시었다. 조상문은 랑패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자기가 좀더 빨리 채심했다라면 그렇게 고생을 시키지 않아도 되었으리라는 《죄책》이 스며 든 모양이었다. 그런 사연을 알리 없는 지배인은 여전히 호기있게 나섰다.

《그렇습니다, 장군님. 우리는 얼마전부터 련속식발파법으로 굴을 뚫고 있습니다. 조건이 좋은 구간에서는 하루 6.5m 의 굴진속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련속식발파법?…》

《간단히 설명하면 1차폭발시 2차도화선에 불이 달리면서 련속 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발파구멍을 더깊이 뚫을수만 있다면 3차폭발도 가능하다고 보아 집니다.》

《그렇듯 하오. 지배인동무가 일판을 벌릴줄 아누만. 누가 그런 묘안을 찾아 냈소?》

그이께서는 결괏 있어 보이는 지배인의 부리부리한 눈길과 바투 꺾은 머리를 여겨 보며 걸음을 다시 옮기시었다. 그러시면서 《개천-태성호》 새 물길잡이굴도 련속식발파법으로 제낀다면 어렵지 않으리라는 속생각이 드시었다.

《저… 련속식발파기술은 청년돌격대의 제대군인동무가 내놓았습니다.》

그이께서는 반색을 하시었다. 전문교육도 받지 않은 제대군인이 그런 명안을 내놓았다는것이 자못 흥미스러우시었다.

《그 동무를 만나볼수 있습니까?》

《…》

지배인이 갑자기 낯색을 흐리우며 어깨를 떨구었다. 그이께서는 어떤 상서롭지 못한 예감이 드시었다. 지배인은 짧은 머리카락이 덮인 뒤더수기에 한손을 올려 놓고 한참이나 머뭇거리다 입을 떼었다.

《…그 동문 발파가스가 차 있는 위험한 막장안

에서 련속식발파시험을 하였습니다. 시험은 성공하였으나 강한 발파충격과 가스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사흘만에야 혼수상태에서 깨어 났는데… 지금은 회복단계에 있습니다.》

《다행이구만. 그런데 어째서 발파가스가 차 있는 그 위험한 때에 시험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건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련속식발파안이 제기되었던 초기 저에게는 1차폭발시 허물어 지는 발파충이 2차도화선구간을 파괴할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 전문기관에 의뢰하기로 결심하고 좀 미루었습니다. 게다가 굴진계획의 미달과 갱내의 불안전조건들로 해서 막장에서 직접 련속식발파시험을 할 시간적여유를 짜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이 겹치자 청년은 모험을…》

지배인은 청년이 모험적인 시험을 하게 된 동기를 자기 잘못에서 찾으면서 그 나날에 있는 이야기를 상세히 이어 나갔다. …

…조건은 점점 불리해 졌다. 간고분투하며 석회암지대와 물주머니구간을 극복하였지만 얼마전부터는 자주 정전되어 발파가스를 미처 뽑을수 없기때문이었다. 비상조치로 통풍조건이 완비될 때까지 밤교대작업을 중지하고 낮교대가 저녁시간에 발파하여 자연통풍을 시키기로 하였다. 밤에 몰래 막장에 진입하려는 청년들이 있어 머리를 앓던 지배인은 청년돌격대에서 엄격하고 손탁이 센 갱구보초병을 물색하였는데 그가 바로 물길굴 압축기운전공인 은별이라는 처녀였다.

그런데 몸통도 굵고 어깨도 실박한데다 남자들처럼 성격이 팔팔하면서도 맵싸서 장난곳은 돌격대원들이 은별이가 아니라 《찬별》이라 부르는 그 처녀가 밤마다 청년의 착암굴진을 협력하여 압축기를 운전할줄이야…

《저희들이 깊은 밤중에 연방 지심을 뒤흔드는 발파소리에 놀라 막장에 달려 갔을 땐 둘 다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래 심하게 상하지는 않았습니까?》

장군님께서 근심어린 어조로 물으시였다.

《처녀는 인츰 회복되었습니다. 퇴원하자 바로로 지금까지 물길갱보초임무를 그냥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 참 다행이구만. 정말 훌륭한 젊은이들이요.》

그이께서는 가슴이 혼 혼해 지시였다. 또 한바탕을 새우신 무거운 심신이 홀연 가벼워 짐을 느끼며 걸음발을 힘 있게 짚어 가시였다.

골바닥은 눈석이에 구멍이 송송한 얼음이 깔려 있었다. 그밑으로 한겨울에도 얼지 않는 폭포수가 흘러 내렸다. 골바닥에서 비탈진 남쪽언덕에 오르신 그이께서는 깎아 지른듯한 절벽앞에서 멈춰서시였다. 절벽아래단은 언제보다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새 물길이 시작될 지점이었다.

그이께서는 조상문이와 실무일군들을 통하여 료해하신 언제의 표고와 《개천-태성호물길》의 최저수위 그리고 새 물길구간의 지질들에 대해 상기하시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계곡의 북쪽면에 위치한 10리 물길굴현장도 다시 보고 싶고 또 그 《별찬》 처녀도 만나보고 싶으시였다.

인민무력성의 일군들이 초조한 표정을 지으며 손목시계를 보기 시작하였지만 그이께서는 감축을 못하신듯 회백색 버럭돌로 다져 저 평퍼짐해진 10리 물길갱구쪽으로 향하시였다.

갱구앞 널판자보초막안에는 《경비》 완장을 팔에 두른 처녀가 서 있었다. 뜻밖의 인기척에 이편을 마주하고 있던 처녀의 억실억실한 눈이 순간에 커지며 황황 불아올랐다. 해쓱해 지는 처녀의 얼굴이 경련적으로 떨고 숨결이 막히는듯 어깨가 가쁘게 오르내렸다. 뒤통지 처녀는 보초막 밖으로 허둥지둥 몇걸음 내짚었다. 그러다 얼마 못 미쳐 한자리에 돌처럼 굳어 졌다. 눈부신 빛발의 희롱은 아닌지, 꿈의 환영에 쫓기우지는 않는지 하는 모양이었다. 의혹과 환희, 열광이 한데 엉킨 눈빛으로 얼어붙은 처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래입술을 짹 깨물며 북받치는 감격을 씹어 삼키다가 《장군님!》 하고 목메인소리를 하며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처녀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환히 웃으시였다.

《처녀동무가 수고하누만. 그래 물길막장을 좀 볼수 있을까?》

처녀는 인츰 대답을 못하였다. 그는 아직 《꿈의 환영》에서 헤여 나지 못한듯 어깨를 들먹일뿐이었다.

《은별동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금 현장을 보시겠다고 하시오.》

지배인이 흥분된 어조로 다시 링겨 줘서야 처녀는 흠칫 놀라며 옷매무시를 바로 잡은 다음 그의 앞으로 정보로 몇걸음 다가섰다. 울퉁은 그 거동은 자신만만하고 담쳤다.

《장군님, 물길갱안에는 아직 가스가 차 있습니다. 들어 가실수 없습니다.》

《하, 이거 인사불성이군. 밤새에 통풍이 되고도 남았을텐데… 먼 길을 찾아 온 사람들을 문전축객하려 하다니…》

그이께서 일부러 하시는 말씀이었다. 처녀는 일순 당황하여 몸을 떨었다. 그는 다시 아래입술을 깨물며 벽차게 끓어 오르는 간절한 소원과 희망을 담아 감격에 젖은 흐느낌을 더듬더듬 터치였다.

《장군님… 이 새벽에 오신걸 보면 또 달리는

차안에서…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나…  
오늘만은 안됩니다. 저희들은 물길을 다 뚫어  
놓고 발전소를 조업하는 날 장군님을 꼭 모시겠  
습니다. 그러니 오늘만은…》

《정말 이 동무가 <찬별>이 옳긴 옳구만. 허  
허…》

그이께서는 량팔을 가슴우로 엮으시며 새벽  
하늘에 즐거운 웃음을 날리시었다. 그 웃음으로  
열려 지는 가슴속으로 처녀의 뜨거운 마음이 한  
가득 차오르시었다. 그이께서는 처녀와 끝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었다.

《그럼 왔던김에 다리십이나 좀 합시다.》

그이께서는 뿌연 돌가루가 축축히 땀 갠구 앞  
긴의자에 허물없이 자리를 잡으시었다. 그리고는  
처녀를 불러 곁에 앉히며 정겹게 물으시었다.

《은별이, 말해 줄수 없겠나… 어째서 제대군인  
그 총각을 위험한 막장에 들여 보냈나? 동무한  
테야 그럴 권리가 없었거든.》

은별의 얼굴은 불시에 빨갛게 물들었다. 처녀  
는 그 얼굴을 어디다 숨겼으면 좋을지 어쩔바를  
몰라 두손으로 감쌌다. 장군님께서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는것이 놀랍고 축스럽기만 한 모양이었  
다.

그이께서는 너그러운 미소로 처녀의 마음을 갈  
았히며 그의 대답을 기다리시었다. 이윽고 처녀  
의 담찬 눈빛이 지나온 나날을 더듬으며 그윽히  
젖어들었다.

《제가 무슨 권리로 그 동무의 입장을 승인할수  
있겠습니까. 전 그 누가 뭐라든 한결음도 드터  
려고 하지 않았습시다. 그 동무가 몇번이나 찾아  
왔지만 전… 그러던 어느 날 밤 그 동무는 경애  
하는 장군님을 중대에 모셨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은별이, 경애하는 장군님  
께서 우리 중대에 오신 날 난 공교롭게도 군의소  
에 입원하지 않았겠소. 그런데 이런 꿈 같은 일  
이라구야. 글썄 장군님께서서는… 중대전원이 다  
모였는데 이 한 전사가 독감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것을 아시고 우리가 왔다 간줄 알면 그 동  
무가 얼마나 섭섭해 하겠습니까, 어서 불러 오시  
오, 그 동무가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라고 말씀하  
셨다지 않겠소. 난 그날 감격의 눈물도 씻지 못  
한채 그이의 곁에서 사진을 찍었소. 영광의 그  
시각 난 심장으로 맹세를 다쳤소. 한생을 최고사  
령관동지곁에서 그이를 결사옹위하는 병사가 되  
리라고 말이요. 그래서 난 제대되어 여기 발전소  
건설장으로 자진했소. 전력문제는 최고사령관동  
지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강성대국건설의 제1선이  
나 다름 없는 초소가 아니겠소. 내 비록 몸은 멀

리 떨어 저 있어도 그이의 구상을 꽃피우는 곳에  
자신을 세우는것이 그이를 곁에서 옹위하는 길  
이라고 믿고 싶소. 은별이… 내가 그날에 다진  
맹세를 지킬수 있도록 도와줄수 없겠소?>… 장군  
님… 전… 전 그 절절한 소원을 외면할수 없었습  
니다. 정말이지 그런 진정을 막을 힘이 저에  
겐…》

은별의 상기된 두볼로는 구슬 같은 눈물이 흘  
러내리고 있었다. 처녀는 청년의 불 타는 심정을  
그대로 호소하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처녀의 말속에서 청년에 대  
한 깊은 애정을 감촉하시었다. 처녀는 그 무엇으  
로도 대신할수 없는 사랑의 권리로 청년의 입장을  
승인하였으며 이 세상 그 무엇도 당할수 없는  
사랑의 힘으로 시시각각 생명을 위협하는 막장안  
에서련속식발파를 성공시킨것이다.

조상문은 온몸에 찌릿하게 울리는 처녀의 호소  
를 음미하며 한자리에서 서성거렸다.

(정말이지 그런 진정을 막을 힘이 어데 있는가.  
어제는 봄순이가 그이를 격정하여 고통을 숨기  
더니 오늘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조상문은 걱정으로 온몸이 달아 오름을 느끼며  
그이를 경건히 우려했다. 이제 또 인민군전사들  
을 찾아 먼 길을 가셔야 할 그이께서는 지금은  
이 처녀의 말보다 더 중한것이 없는듯 만면에 환  
한 웃음을 지으시며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  
시고 처녀는 얼굴이 발갛해진채 친아버지앞에 선  
듯 자기가 체험한 일들과 가슴속사연까지 죄다  
말씀드린다.

10리 물길굴을 개척해 나가는 청년돌격대원들  
의 생활과 투쟁에 대하여, 그 어떤 고난도 시련  
도 웃으며 뚫고 나가는 청년들의 그 량만과 신념  
과 의지에 대하여 그리고 사랑에 대하여…

지배인이 대견한 눈길로 은별이를 쳐다보다가  
한발 나서며 장군님께 말씀드렸다.

《그 련속식발파법이 성공한 다음부터 돌격대원  
들의 기세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엇그제 돌격대  
원들이 켈기모임을 가지고 총 돌격전에 들어 갔  
는데 주변마을들에서도 지원물자를 가지고 매일  
같이 찾아 옵니다. 자기들은 풀죽을 먹으면서  
도…

기어이 기한전에 발전소건설을 끝내고 장군님  
께 완공보고를 드리자면서…》

지배인의 말을 들으시던 **김정일** 동지께서는 은  
별의 어깨를 다정히 두드려 주시며 부드럽고 따  
뜻한 눈길로 조상문을 돌아 보시었다.

《어떻습니까?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 그이의 그 눈빛, 온 우주를 통채로 휘저어

내는듯한 그 음성...

《나는 이런 청년들... 이런 인민을 믿습니다. 이들은 10리물길굴이 아니라 100리, 1,000리 물길굴이라도 기어이 뚫고야 말것입니다.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지금 온 나라 인민들이 이렇게 일떠섰습니다. 자재와 로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늘이 무너져도 뚫고 일어 나 나아가겠다는 신심과 배짱입니다.》

조상문은 무엇인가 크나큰것이 가슴을 쿵하고 울리며 들어 앉는것을 느꼈다.

(그렇다. 온 나라 인민들이 이렇게 일떠서서 그이의 구상을 쫓아주는 곳에 피끓는 심장을 서슴없이 내대고 있다. 지나온 몇해동안 들쭉거리던 몸부림치는 시련은 우리 인민을 더 억세게 해주었다. 나서 자라고 밟고 다니는 평화롭던 이 땅이 지금은 머리위에 이고 다니고 싶도록 고마웠음을 더깊이 절감한 우리 인민은 그 생활, 그 정의, 그 진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쇠덩이처럼 뭉쳐 졌다. 사심도 보수도 명예도 모르고 오직 사랑과 충성으로 그이와 인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나아가고있는 이 흐름보다 더 깨끗하고 순결하고 억센 흐름은 세상에 없을것이다.)

그이께서는 한손으로 힘있게 새벽대기를 휘저으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내 생각 같아서는...10리물길굴을 포기하지 말고 그냥 뚫자는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청년들의 사랑과 결사관철의 귀한 땀방울이 스며 있습니다. 먼 후날 그들은 자기들의 사랑이 움 텠고 걸음걸음 위훈을 새겨 놓은 이곳을 가장 보람찬 삶을 꽃 피운 공지를 안고 추억할것입니다. 그러니... 10리물길굴을 계속 뚫고 새 설계안대로 <개천-태성호물길>도 끌어 읍시다. 그러면 갈수기때만이 아니라 사시절 많은 물이 흘러 들게 되고 발전능력은 지금설계보다 훨씬 높아 지게 될것입니다. 그러자면 언제가 더 보강되도록 설계를 손질해야 할것입니다. 새 물길굴공사에는 군대를 동원시킵시다. 어떻습니까, 조선생?》

조상문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굳어 저 버렸다.

(10리 물길굴도 뚫고 새 물길굴도 뚫다니... 가만가만... 그러면 발전능력이 거의 배로 높아 질것이 아닌가?)

조상문은 그렇게도 비범하고 통이 큰 장군님의 그 창조의 세계를 받아 안기에는 자기의 심장이 너무도 작음을 통절히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조상문의 허연 눈썹이 푸들거리고 입귀가 떨렸다. 가슴속에서 심장이 터져 나올듯 흥벽을 뚫고 두드린다. 온몸으로 새힘이 쭉쭉 뻗쳐 나가고 가슴도 더 넓어 지고 심장도 커지는것만 같다. 경소년을 한듯 싶다.

《장군님, 제 설계를... 언제설계를 다시 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조선생, 선생이 그렇게 신심이 생긴다니 내 마음도 한결 가벼워 지는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마음 놓고 설계를 해보십시오.》

조상문은 불뭉치 같은것이 목을 짖 메우며 솟구쳐 올라 《장군님!》하는 말밖에 더 말을 할수가 없었다. 그제야 장군님께서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왜 우리 발전건설부문 일군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오시였는지 그 속 깊은 마음이 가슴을 치며 안겨 왔던것이다. 이 고난앞에서 다시는 소심해지지 말고 위축이 들지 말라고... 신심과 배짱을 안겨주시기 위해...

국방위원회와 인민무력성의 일군들의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니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콧구멍을 울랐다.

조상문은 고개를 떨구었다.

《장군님,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들때문에 장군님께서 이처럼 바쁘신 시간을...》

그러는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상문의 손을 꼭 잡아주시며 말씀하시였다.

《조선생,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심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간고하다해도 승리는 우리의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 줄것입니다. 온 세계가 우리를 따라오게 할것입니다.》

그이께서는 나직이 평범하게 말씀을 하시였지만 조상문이나 수원들은 무한한 격동에 가슴들이 들뛰였다. 조상문은 자기자신도 타고 가는 이 《항행》이 인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충충 만겹으로 쌓아 놓을 강성대국으로 가는 길이며 그것이 새 세기를 개조해 나가는 주류임을 다시한번 확신하였다. 그러자 온 우주를 그리안은듯한 아름다운 환희로 가슴은 터질것만 같았다.

동녘하늘에 진붉은 노을이 타오르고 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 량손을 허리에 얹으시고 온 누리에 퍼져 가는 아침노을을 바라보시며 이 땅에 차넘치는 사랑과 믿음, 충성의 세계를 두고 생각하고 계시였다... 그 흐름의 시원은 우리 수령님이 시였다... 수령님품에서 닦을 올린 사랑과 충성의 《배》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것은 정의와 진리의 태양이 빛나는 그곳이다.

그이의 눈앞에 다시 펼쳐 지는 망망대해... 그 우에 떠 있는 배... 그뒤로 따라 선 크고 작은 수많은 배들... 수평선에 솟아 오른 붉은 태양이 그 앞길을 찬란히 밝혀 주고 있었다.

## 종자리론의 불멸의 진리성과 위대한 생활력

김순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천재적인 안목과 비범한 통찰력으로 이미 오래전에 문학예술작품의 종자에 대한 독창적인 리론을 내놓으시었다.

문학예술작품의 종자에 대한 리론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작가들은 산 유기체로서의 작품의 핵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알고 형상생리에 맞게 창작함으로써 주체의 인간학의 요구를 구현한 작품, 훌륭한 작품들로 우리 문학의 전성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종자에 대한 리론은 20세기 주체문학의 전성기를 이룩할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였고 창작실천을 통하여 진리성과 생활력이 충분히 확증된 세기적인 새로운 문예학적발견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종자에 대한 리론은 문학예술분야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력사적인 전성기를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문학작품의 종자에 대한 리론을 창작실전에 철저히 구현해 나가야 한다.》**

종자는 작품의 핵으로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 문제가 있고 형상의 요소가 뿌리 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이다.

문학예술작품의 종자에 대한 진리성과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문학에서 핵을 이루는 범주를 올바르게 해명해 줌으로써 작가들로 하여금 작품의 모든 개별적인 요소를 자래울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를 똑바로 인식하고 주제와 사상을 제기하고 형상을 꽃피울수 있는 근본열쇠를 가질수 있게 하였다는데 있다.

지난 기간 작품의 주제는 사회적문제로, 사상은 작가의 사상미학적주장으로 정당하게 보면서도 작품의 핵을 밝히지 못하였기때문에 이러저러한 편향적인 견해들에 동조하게 되었다.

이것은 창작에서도 형상생리를 옳게 살려 나갈수 없게 하였으며 작품을 생동하게 살아 숨 쉬는 산 유기체로 되게 할수 없었다.

종자리론이 제시됨으로써 작가들은 비로소 작품을 이루고 있는 형상요소들을 똑바로 알고 창작을 옳게 벌려 나갈수 있게 되었다.

종자에 관한 리론의 진리성과 생활력은 또한 작품의 핵으로서의 사상적알맹이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 줌으로써 작가들이 현실속에서 문학형상

으로 실현할수 있는 기본핵을 골라 잡고 형상을 꽃 피울수 있게 하였다는데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모든 사회현상은 물론 사람의 자취가 스며 있고 눈길이 미친 자연현상에도 다 일정한 사상적의미가 있으며 그 존재를 담보하는 사상적알맹이가 있지만 그 모든것이 다 문학의 종자로 되지 않는다는데 대하여 밝혀 주시었다. 종자는 리성으로뿐만아니라 감성으로도 파악되고 정서적으로도 공감되며 론리적사유만이 아니라 형상적사유도 제발시킨다. 작가의 심장에 창조의 불씨를 지펴 주고 창조적열정을 불어 일으키며 정서적체험세계에 이끌어 주고 창조적 환상의 나래를 달아 주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라야 문학의 종자로 될수 있다.

작가들은 작품의 형상체계안에서 종자가 핵으로 된다는것을 똑바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작품의 사상예술적수준을 높일수 있는 비결을 찾게 되었다.

지난기간 일부 경우에 작품의 핵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지 못하였기때문에 창작실천에서는 산 인간을 그리지 못하고 사상만 앙상하게 드러난 작품이 나오고 성격은 있어도 의의 있는 사상이 없는 작품을 내놓는 폐단이 있었다.

실천적경험은 작가의 창작과정과 작품의 형상체계안에서 종자가 얼마나 커다란 역할을 놓고 있는가 하는것을 실증하여 준다. 작품에서 모든 형상요소는 종자를 꽃 피우는데 한결같이 맞물려지면서 하나의 전일적인 화폭을 이룬다.

작품의 내용과 형식은 종자를 기초로 하여 통일되며 그 사상성과 예술성도 종자를 바탕으로 하여 결합된다.

종자야말로 작품의 기본핵이다. 그러므로 종자를 바로 잡고 깊이 심는 문제는 작품의 운명문제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제기된다. 핵이 없는 모든 물질이 존재할수 없는것과 같이 핵이 없는 문학작품이 존재할수 없다. 종자를 바로 잡고 그에 기초하여 형상의 꽃을 피워 나가는것은 문학창작의 생리로, 철칙으로 되여야 한다.

우리는 문학창작실천을 통하여 종자리론을 지침으로 하여 창작하는것이 시대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창작하는데서 근본비결로 되고 있다는것을 절감하고 있다.

장편소설 《생명수》가 시대의 명작으로 창작될수 있는 근본비결도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리론이



밝혀준 요구대로 형상을 창조하였기때문이다.

작품은 조금만 비가 와도 온몸이 물에 잠기어 옆집에 다니는것조차 함지를 타고 다녀야 했고 홍수가 나면 방안에 차오르는 물을 피하여 지붕에 올라 가 끼니를 끓여 먹어야 했으며 그러다가 한밤중에 집이 무너지면 억울하게 목숨을 잃어야 했던 봉산벌사람들을 그리고 있다. 작품이 처음 씌여 졌을 때에는 지난날 물때문에 고생하던 봉산벌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이 많은 랑을 차지하면서 펼쳐 지고 있었으며 그것도 주인공의 운명선과 잘 밀착되지 못하였었다. 그리고 봉산벌농민들의 피눈물나던 쓰라린 과거를 영영 가버리도록 어지돈관개공사의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대자연개조를 이룩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배려가 깊이 있게 그려 지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작품의 이러한 실태를 료해하시고 장편소설 《생명수》에서는 황금으로 언제를 쌓는 한이 있더라도 봉산벌농민들에게 생명수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사상적알맹이로 하여 모든 형상요소들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심으로써 오직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시며 인민을 위함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격조높이 노래한 명작으로 될수 있었던것이다.

문학창작에서 종자리론이 구현됨으로써 장편소설 《평양시간》이 주체조선의 새로운 속도, 《평양시간》이라는 사상적알맹이를 심고 형상으로 꽃피워 명작으로 될수 있었으며 장편소설 《새봄》을 비롯하여 《빈터우에서》, 《너당원》 등 수많은 작품들이 성공작으로 될수 있었다.

종자에 관한 리론의 거대한 생활력은 최근 시문학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련시 《우리의 고향집은 백두산에 있다》에 속해있는 시들은 시인들이 생활현상을 관찰하는데 머물지 않고 생활현상으로부터 생활의 본질에로 끝까지 파고드는 철학적사색과 깊이 있는 탐구로 뜻깊고 의의 있는 종자를 찾아 내어 서정을 펼침으로써 시대의 성과작으로 빛나고 있다. 임의의 시를 레들어 보아도 알수 있다. 시 《밀림의 절경》은 2월의 백두산밀영에 절경을 펼친 서리꽃은 하늘이 피운 꽃이라는 사상정서적핵을 심었으며 시 《정일봉의 노을》은 폭풍치는 노을이라는 것을 핵으로 하고 있다.

종자리론의 진리성과 생활력은 최근 기념일에 즈음하여 창작된 시들에서 더욱 힘있게 발휘되었다. 우리 민족의 태양절을 맞으며 나온 시들인 《아 우리 수령님》, 《해빛》, 《만민의 꽃 **김일성화**》 등은 지난기간 기념일시들에

서 나타났던 당일주제적인 도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참신한 종자를 독창적으로 탐구하여 서정세계를 펼침으로써 서정시로서의 개성적인 풍격을 갖추고 명작으로 태어날수 있었다. 시 《해빛》은 태양절은 해빛우에 해빛이 웃는 날, 해빛의 명절이라는 독창적인 사상적알맹이로 서정을 펼침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해빛우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해빛이 또 웃는 4월 15일은 그 웃음이 해빛이 되어 누리가 다 밝아 지는 해빛이라는 독창적인 시형상을 창조하고 있다. 시 만민의 꽃 《**김일성화**》는 **김일성화**가 자연의 꽃이 아니라 인민의 가슴속에 억세게 뿌리 내렸다는것을 핵으로 하여 형상을 펼침으로써 **김일성화**는 온 세상에 계절없이, 국경없이 피고피는 인류의 꽃, 세계의 꽃으로 되었다는것을 정서깊게 노래하였다.

참으로 우리 작가들이 종자리론을 받아 안은것은 최대의 특전이고 행운이다. 우리는 종자리론을 창작실천에 구현하여 20세기 문학의 전성기를 마련한것처럼 새세기에도 그것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주체문학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선군령도가 안아오는 위대한 현실생활속에 들어가 철학적사색을 깊이 함으로써 그속에서 뜻 깊고 의의 있는 종자를 찾아 내야 한다.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새세기의 힘찬 진군을 다그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는 우리 작가들을 끝없이 흥분시키며 창조적령감의 세계에로 이끌어 주는 가치있는 종자가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다.

우리는 종자를 골라낸 다음에는 거기에 모든 형상요소들을 집중시키고 잘 가공하여야 한다. 종자의 발견은 어디까지나 작품창작의 선결조건이며 기초이지 종자를 잘 잡았다고 하여 작품이 저절로 완성되는것은 아니다. 종자가 좋으면 작품도 좋아야 제격이지만 애써 찾은 종자를 가지고 졸작을 빚어 내는 경우가 왕왕 나타나는것은 예술적으로 잘 꽃 피우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

아직도 일부 작품들에서 종자를 명백하게 한다고 하여 생활의 논리를 무시하고 사상적알맹이를 강짜로 드러내보이는것이라던가, 주요대사나 주정도로를 통하여 종자를 직선적으로 생경하게 드러내보이는것과 같은 현상은 다 예술적으로 잘 가공하지 못한 그릇된 편향들이다.

종자리론을 창작실천에 철저히 구현하는 여기에 21세기 주체문학의 빛나는 성과를 담보하는 근본담보가 있다.

우리 작가들은 선군시대의 지향과 인민대중의 요구에 옳바른 해답을 줄수 있는 가치 있는 종자를 찾아 내어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이 결합된 혁명적인 작품을 더많이 창작함으로써 새세기 선군혁명문학을 더욱 빛내여 나가야 할것이다.

## 백두의 해돋이

리영삼

### 고향집뜨락 찾아

무성한 수림 속에  
장단스런 소백수물소리  
가벼이 스치는 바람소리  
호젓한 정적이 흐르는  
태고의 감득이 승엄하다

이슬에 단 몸 씻은  
들꽃 산꽃 한아름 안고  
고향집 찾아 온 길  
줄기찬 비줄기도 있었다  
우박 섞인 번개불도 있었다

잃은것보다 얻을것 더 많은  
태일을 양양히 축복하며  
총검 높이 침략의 마수 꺾어 놓고  
동화속의 전설같이 자리 잡은 집

깃푸른 하늘아  
누가 이 땅 이 강산에  
태양의 아들을 받들어 올렸느냐  
고삭은 동기와 이영아래  
천만대 후손의 부흥 이룩했느냐

불과 물이 맞선 계선에서  
김이 솟고 흐름이 일듯  
태양아래 꽃 피는 삶의 터전  
여기 뜨락에서 펼쳐 졌으니

오, 력사의 이 지경에서  
쌍무지개 펼친 정일봉이  
천하를 굽어 살피고  
나 또한 하늘가에 우뚝 서서  
새 세기의 환희에 미소를 엮노라

### 삶을 두고 싶어

산정길 굽이 돌아  
잔 부석우에  
외로이 선 이깎나무 한그루  
막아 서는 광풍 향해  
새처럼 가지를 펼치고  
금시 날아 오르련듯

태질하는 눈보라와 싸워 온  
굽힘 없는 기상  
아 해 솟는 장군봉  
저 불길스민 벼랑에  
뿌리 내리고 싶어  
삶을 두고 싶어

### 백두의 해돋이

새벽을 물들인  
너 장군봉의 노을아  
꽃것의 신비를 숨 쉬며  
지금 어디쯤 달았느냐

안개잠옷우에  
수줍은 황홀은  
화광을 감싼  
붉은기의 나뭇김인듯

너나 들의 뜻과 넋을 지켜  
천지물 퍼 마시며  
새 시대의 봉화를 알린 너

시대와 력사를 눌러 딛고  
지평으로 다가선  
새 세기 해돋이

한껏 터친 사랑아

정적을 깨뜨리고  
숨쉬는 심장마다  
주체의 선물을 엮으려다  
주체의 가락을 엮으려다

백두의 높이는  
내 신념의 높이  
백두의 무게는  
내 심장의 무게

해살 가득히 펼친 산정에서  
꼭 장군님을 뵈옵는것만 같은  
조선의 해돋이를 보려거든  
여기 백두산으로 오라

## 숭고한 동지애

성스러운 조선혁명과 더불어 빛나는 동지애란 이 말속에는 심원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E, C》의 기치밑에 시작된 우리 당의 역사는 동지애의 역사이다.

지난해 10월 30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화불행진대오가운데서 《동지애》라는 글을 새긴것이 제일 인상 깊다고 다시금 말씀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이 동지애로 시작되고 동지애로 승리하여 왔다고 천명하신 그 유명한 명제를 뜨겁게 외우시었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동지애의 힘으로 역사의 준엄한 난국과 시련의 고비를 헤치며 승리와 영광만을 펼쳐 온 우리 당의 역사, 우리 혁명의 역사에 대하여 뜨겁게 추억하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시었다.

**《동지애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전사들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동지애의 표현입니다. 이런 동지애로 하여 전사들의 삶이 빛나는것입니다.》**

동지애는 혁명의 길을 함께 걸으며 생사운명을 같이 하는 동지들사이에 꽃 피는 믿음이고 정의고 의리이다.

동지애로 시작되고 동지애로 승리하여 왔으며 동지애로 만난시련을 이겨 내며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것이 우리 조선혁명이다.

《E, C》로부터 고고성을 올린 조선혁명의 위대한 동지애의 역사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어 더욱 빛나게 계승되고 있으며 우리 혁명승리의 사상정신적원천으로 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동지관은 한없이 고결하고 위대하다.

믿음이 있어야 동지가 있고 사랑이 있어야 동지관계가 이루어 지며 믿음이란 곧 사랑이고 동지적관계의 기초라는것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동지관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슬하의 전사들과 인민모두를 동지로 여기시며 주실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다 주고 계신다.

여기에 우리 당력사에 동지애의 영원한 상징으로 빛을 뿌리고 있는 또 하나의 일화가 있다.

항일의 혈전속에서 사진 한장 남기지 못하고 떠나간 동지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하시여 대성산혁명렬사릉에 영생의 모습으로 세워 주신 아버지수령님의 그 숭고한 동지애로 애국렬사릉의 묘비마다에 전사들의 돌사진을 만들어 붙이도록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고결한 의리는 또

하나의 동지애의 서사시로 만인의 심장속에 새겨져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 어떤 자연풍파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돌사진을 보시고 글만 새긴 묘비를 볼 때마다 마음이 허전했는데 이제는 됐다고 하시면서 아주 좋은 일을 했다고 못내 기뻐하시었다.

후날 돌사진이 완성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전선길에서 돌아 오시는 길로 곧바로 룡에 오르시여 잊지 못할 동지들의 생전의 모습앞에서 한동안 걸음을 떼지 못하시었다.

여기에 오니 잊을수 없는 사람들을 다 만나보게 되는구만, 모두가 살아 있는것만 같소라고 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음성은 퍼그나 갈려 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떠나간 동지들의 생전모습을 그대로 보니 정말 반갑고 기쁘다고 하시며 한창 일할 나이들에 너무도 일찌기 곁을 떠난것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고 오늘 애국렬사릉을 돌아보니 빠진 사람들이 더러 있는것 같다, 누구누구도 나의 기억에 있는데 그들도 혁명에 끝까지 충직한 일군이였다, 그들도 다 여기에 데려다 안치하고 돌사진을 해주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날 낮에 애국렬사릉을 돌아보시고 오신 후 일군들과 만나신 자리에서 있던 일은 또 얼마나 가슴 뜨거웠던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자신께서 오늘낮에 애국렬사릉에 가서 새로 만든 돌사진을 보고 왔는데 대단히 기분이 좋았었다고 하시면서 동무들도 모두 가보았는가고 물으시었다.

대답을 못하는 일군들을 둘러 보시며 장군님께서서는 매우 서운한 어조로 동무들에게는 혁명적의리와 동지애가 부족한것 같다고 하시면서 우리 조선의 혁명가들은 혁명적의리를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참된 인간들이다, 이 숭고한 도덕의리에 기초하여 우리의 일심단결이 이룩되었고 조선혁명의 자랑스런 역사가 창조되었다고 힘 주어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며 다들 애국렬사릉에 가보시오, 동무들이 자주 찾아 가면 먼저 간 동무들이 얼마나 좋아 하겠습니까라고 따뜻이 이르시었다.

우리 장군님의 동지애는 이렇듯 의리와 인정으로 충만되어 있다.

진정 우리 장군님은 숭고한 동지애의 세계에서 삶의 기쁨을 심장으로 감수하시는 위대한 인간, 위대한 혁명가이시다.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은 오늘 21세기의 태양으로 빛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동지애로 하여 더욱더 불패의것으로 다져 지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을 안고 21세기를 맞이한 천만의 심장이 충성으로 불 탄다.  
동지애로 다져 진 우리 당과 인민의 힘은 필승

불패이다.

우리의 위대한 동지애의 력사는 영원할것이며 새 세기에도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을 펼쳐 갈것이다.

본사기자

## 구봉령

박정애

먼길에 날 저문다고  
벌써 그 몇번 인사 드리면서도  
장군님품에서 떨어 지지 못하는  
가족도로소대원들  
잘 있으라고 이젠 가시겠다 하시면서도  
잡은 손 놓지 못하시던 장군님  
해가 다 기울어서야 구봉령을 내리신다

목 메여 따라 서는  
그들을 보시고 손 저어 주시고  
다시 또 바라보시는 장군님  
차를 천천히 몰라고 이르시며  
흐려 지는 차창으로 눈길을 돌리시여라

한굽이 또 한굽이 차는 령봉을 내려도  
눈물로 따라 서며 흔들던 그 손들을  
그 손들을 더 가까이 잡으실듯  
다시 차창으로 그들을 내다보시며  
령길과 한생 인연 맺은  
그 모습들 또 그려 보시고...

이 나라의 가장 어려웠던 그 나날  
우리 수령님께 힘을 주던  
태성의 할머니  
락원의 신포향  
그들의 목소리를  
이 시각 다시 들으시는가

선군령도의 자욱 깊이 새겨 진 구봉령  
굽이굽이 차는 령봉을 내려도  
이 나라에 새로 솟은 봉우리인듯  
장군님은 내려도 내려도 끝나지 않는  
당을 따르는 인민의 마음속으로 오르신다

조국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그 누가 보는 이 없어도  
깊고 깊은 산정에 정을 바치는 사람들

충정과 의리로 높이 솟은  
이 땅 북변의 애국의 령마루로 오르신다

산새만 우짖는 한적한 령길에서  
수정 같은 마음으로 쌓아 올린 웅벽에  
그 한사람 한사람의 얼굴이 비쳐 지는듯  
떠나실 때 잡았던 터갈린 그 손들에서  
령길과 함께 맞은  
세월의 눈과 비 다 가늠해 보신듯...

얼마나 고생들 많았으랴  
계곡처럼 주름 깊은 그 얼굴들이 다 이야기하는  
령길에 바쳐 진 장장 스물다섯해  
천만고생 감추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그 눈빛에 고여 있는  
가슴속 숨긴 사연 헤아려 보셔라

-얼마나 좋은 인민이요!  
저들에게 내 무엇을 더 바쳐야 한단 말인가  
록음 짙은 산밭에 사색을 엮으시니  
산천의 설레임에 실려 와라  
-아닙니다 장군님  
장군님은 자신의 모든것을 주셨습니다

아직도 손 흔들며 따라 오는 모습들  
떠갈이 뻗어 오른 령길 한끝에  
그들은 아득히 점으로 보여도  
그 하나하나의 참된 충신의 모습들은  
구봉령우에 우뚝이 솟아 오른  
또 하나의 봉우리들로 눈 부신 빛을 뿌려라!

아 굽이굽이 차는 령을 내리고  
장군님마음은 령봉을 오르고  
인민의 마음은 장군님을 따르고  
장군님은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을 싣고  
구봉령 애국의 령봉을 내리신다

## 종자천명과 《100년사상사총화》

정릉진

새로운 작품이 태어나고 거기에 작가의 긍정적 시도와 좋은 결실이 있게 되면 평론가들은 즉시 그것을 문단에 소개선전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된다.

작가의 긍정적시도가 왜 가치 있는것으로 되는가, 그것이 안아 온 결실은 문학발전에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 이것이 평론가가 말하려고 하는 기본문제로 될것이다.

언젠가 어느한 로작가가 들려 준 말이 새삼스럽게 떠오른다.

그는 말했었다. 작가에게는 두가지 재미가 있는데 하나는 원고지와 마주하고 작품을 쓰는 재미이고 다른 하나는 활자화된 작품을 놓고 논의를 벌리는 재미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작품을 논의하는것은 평론가들에게만 차례진 특권이 아닌것 같다.

성공한 작품들의 경우를 보면 거기에는 품들여 논의를 벌릴만한 문제들이 하나 또는 그 이상 깃들여 있는것이 통례로 되고 있다.

작품들중에는 읽고 난 다음 그저 그런것이구나 하는 정도에 머무르는것들이 더러 있는데 모가 없이 두리몽실한 그런 작품들은 독자들의 뇌리에 오래 남지 못한다.

작품에는 작가가 새롭게 탐구한 종자가 있어야 하며 형상단계에서도 기발한 재치와 시도가 있어야 한다.

지금 내앞에는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전환》(권정웅)이 펼쳐져 있다. 무엇이 독자들을 끌어 당기는가? 독자들을 매혹시키고 있는 작가의 형상솜씨는 구체적으로 어떤것이겠는가?

물론 성과를 거둔 작품인것만큼 여러 각도와 측면에서 이야기할수 있겠지만 나는 이 작품의 종자천명에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100년사상사총화》가 논 역할을 놓고 이 연단에 나서려고 한다.

작품은 1960년대 우리 당전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안아 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작품의 제명에 함축된 심오한 종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이라는 유기체에 오직 한가지 피, 수령님의 혁명사상만이 흐르도록 하여 주신 탁월한 령도과정을 생활적으로 잘 그릴 때 형상으로 꽃 피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는 좋은 종자를 골라 진 다음에는 거기에

모든 형상요소를 집중시키고 예술적으로 잘 가공하여야 한다.》

《100년사상사총화》는 작가가 찾아 켜 종자를 빛나게 형상하기 위하여 독창적으로 탐구하여 작품에 인입시킨 하나의 생활적이야기선이다.

그러나 정치와 철학, 경제학리론과 그 실천분야를 인간학에서 포괄적으로 보여 준다는것은 웬만해서는 엄두도 낼수 없는 험치 않은 일이다.

그러나 작가는 종자의 요구, 작품의 생리의 요구에 맞게 이 어려운 작업과제를 스스로 제기하고 그것을 빛나게 실현하였다.

그러면 작품의 종자를 쫓 피우는데서 《100년사상사총화》가 어떤 역할을 담당수행하고 있는가.

나는 그것이 첫째로 종자에 심오한 의미를 더 보태여 주고 동시에 철학적무게를 실어 주는데 크게 기여한것이라고 본다.

일반적으로 로동운동력사를 포함한 전반적인력사발전에서 위대한 전환은 개별적인물의 주관적욕망에 따라 이루어 지지 않는다.

사회정치운동에서의 변혁과 전환은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저애하는 온갖 낡고 보수적인것, 반동적인것을 쓸어 버리는 치렬하고 심각한 투쟁과정에서 이룩되는것만큼 시대와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옹계 타산한데 기초하여 나온 과학적인 전략전술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대를 바로 리해하고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세우며 그 관철에로 대중을 조직동원하는것은 탁월한 정치적수령이 담당수행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직접 발기하시고 그 과정을 몸소 지도하여 주신 《100년사상사총화》는 한세기에 이르는 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경험과 교훈을 찾고 우리 당의 전투좌지, 공격목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계기점으로 되는것만큼 작품의 종자의 의미와 그 철학적무게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리하여 《100년사상사총화》에서는 맑스의 《공산당선언》으로부터 시작된 그 리념의 기초점이 밝혀 지고 《자본론》, 《고타강령비판》등 고전들이 력사주의 원칙에서 연구분석되고 총화된다.

이외에도 선대수령들의 생활일화들, 사이비 《령도자》들과 리론가들의 공산주의사상에 대한 악랄한 공격과 그들이 연출한 저조하고 추악한 회비극들이 생활적으로 펼쳐 지고 그 과정에 정치사, 철학사, 경제사발전의 합법칙적로정이 밝혀지고 있다.

맑스의 비상한 두뇌와 그와 엥겔스와의 남다른 친분관계, 두분의 서거후 수정주의자들과 배신자들에 의해 혁명리론분야에서 초래된 파국적사태, 광대한 로씨야땅에서 사회주의혁명승리의 실체를 안아 온 레닌의 업적, 쓰딸린의 서거와 그에게 《두번째 사망》을 강요한 흐루쇼브의 배신적망동, 현대수정주의의 정체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이전 쏘련공산당 제20차대회...

실로 이 모든것은 한세기에 이르는 공산주의운동사를 집약화하여 보여 줄수 있는 역사적사변들이었다.

더우기 작품에서는 1960년대 중엽 우리 나라 사회정치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현대수정주의가 밀수입되어 이러저러한 불미스러운 사태를 낳은 사실도 화폭으로 전개하고 있다.

봉건통치시기에 나온 《목민심서》가 일군들의 필독문헌으로 지정되었던 사실, 혁명적인것은 딱딱해서 재미 없다고 《배꽃타령》, 《배뱅이》 같은 진부한것들에 더 주의를 돌리고 《백조의 호수》, 《에스메랄드》와 같은 유럽가극과 발레를 상연하던 무대실정, 당안에 잠입했던 불순분자들의 책동으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출판이 금지되고 《일편단심》과 같은 이색적인 작품이 빼앗기 공연되던 사실 그리고 경제사업분야에서 중앙집권적경제가 비능률적이라는 잡포대같은 꾀변이나도는가운데 리윤본위의 리베르만경영방식인 《가화폐》도입이 시도되고 군사분야에서 수령님의 《일당백》사상이 관철되지 않고 장권소설 《안개 흐르는 새 언덕》과 예술영화 《어둠을 뚫고》와 같이 우리 당의 사상을 옳게 반영하지 못한 문학예술작품들이 창작되어 나온것도 간과할수 없는 엄중한 문제였다.

《100년사상사총화》과정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전연구에서 나타나는 이러저러한 부족점을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는 한편 비상한 정치적판단과 철학적주견을 지니시고 맑스주의고전들을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현실태, 특히는 우리 나라 현실과 결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총화하시는 모범을 보여주신다.

이 과정에 장군님께서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발견할수 없었던 혁명적인 수령론을 창시하시는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신다.

이것은 정치적수령을 높이 받들어 모시지 못하여 오랜기간 전통과 우여곡절을 겪어 왔던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교훈에 대한 발견으로 되는 동시에 사회정치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지 못함으로써 불미스러운 현상을 빚어 내었던 1960년대 우리 나라 현실이 가르쳐 주는 진리에 대한 확증이기도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사업, 사상사업에서 위대한 전환을 안아 오기 위한 단호한 결심을 내리시기까지의 과정에는 이렇듯 국제공산주의운동전반

과 우리 나라의 혁명적현실에 대한 심오한 고찰과 분석이 가로 놓여 있다.

이것은 그대로 작품의 제명에 함축된 종자의 의미를 더욱 돈고구 아울러 철학적무게를 강화할수 있게 하였다.

종자에 내포된 심오한 의미와 철학적무게는 한 사회과학자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상한 사색의 세계, 심원한 철학세계에 깊이 감탄하며 그것은 우선 그 누구와도 비교할수 없는 뛰어난 시대감각의 예민성이며 다음은 과학탐구와 정치적판단에서 특출한 대담성이라고 격찬하고 있는데서 뚜렷이 확증되고 있다.

작가는 종자의 심원한 의미에 맞게 그를 형상으로 꽃 피우기 위한 사업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일당백》구호를 전군에 관통시켜 우리 인민군대를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강화발전시키는 사업,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을 세우는 과정에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사업, 경제분야에서 《가화폐》도입의 수정주의적본질을 밝히고 우리 식 경제관리체계,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사업들이 드팀없이 진행되는 과정을 감명 깊게 그리고 있는것 등이 바로 그러하다.

이렇듯 《100년사상사총화》는 순수 리론과 그 사적고찰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당사업, 사상사업에서 이룩된 위대한 전환의 사상철학적기초를 마련하여 줌으로써 종자의 의미도 빛나게 하고 작품의 품위도 높은 경지로 이끌어 올릴수 있게 하였다.

《100년사상사총화》가 종자를 꽃 피우는데서 노는 역할은 둘째로 작품에 설정된 모든 이야기와 인물들을 작품의 기본문제해결에로 지향시켜 나가게 하여 작가의 의도를 형상으로 잘 실현하게 하고 있는것이라고 본다.

작품이란 얼핏 보면 폐사로운 생활의 흐름으로 이루어진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 있는 손끝만한 생활세부까지도 모두 종자의 요구의 견지에서 선택리용된것들이다.

아무리 종자가 참신하고 의의 있는것이라 하더라도 적중한 생활이 탐구리용되지 못하면 그런 작품은 성과를 거둘수 없다.

장권소설을 재삼 읽어보면 그안에서 《100년사상사총화》와 관련되지 않은 생활을 찾아 볼수 없다.

비록 작품에 많이 나오지 않는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또 기본문제와는 동안이 뜨게 벌여 지는 이야기라 하더라도 따지고 보면 모두가 다 수령론과 련결되어 있다.

이것은 《100년사상사총화》가 작품에서 모든 인물, 모든 사건, 작은 생활세부까지도 종자천명



을 위한 한몫으로 방향 지어주고 서로 인맥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놓고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우리는 여기에서 정치학적분석, 철학적분석, 경제학적분석으로 일관될수 있는 사상사총화과정을 《문학화》하여 보여 준 작가의 높은 창작적기량을 찾아 보게 된다.

《문학화》가 없이는 사건과 인물들의 호상관계를 이루어 놓을수 없다.

인간학인 문학에서 사건과 인물들의 호상관계는 추상적인 사상이나 론리가 아니라 생활 그자체의 형식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그러므로 《100년사상사총화》와 같이 리론적분석과 론쟁이 예견되는 작품창작에서는 작가가 그를 생활적으로 《문학화》하여 보여 주는 힘치 않은 작업령역을 맡아 나서지 않을수 없다.

우리가 이 장편소설에서 작가의 높은 창작적기량을 느끼고 그것을 높이 평가하게 되는것은 이 문제와도 많이 관련된다.

작가는 사상사총화과정을 《문학화》하기 위하여 그것을 될수록 생활적인것과 련결시키고 론리와 리론을 형상적인 표현방식으로 이끌어 가는 수법을 쓰고 있다.

바야흐로 《100년사상사총화》가 시작될 무렵에 토론자들로 내정된 경제학박사 엄한정, 정치학전문가 원시준, 동방철학자 리종화가 나누는 다음의 대화를 살펴 보자.

《...특보가 하나 있소. 이제 곧 백악관대통령방과 크레믈리 브레주네프방에 직통전화가 가설된다오.》

《...사실이 그렇다면... 외무성의 그 술한 전신기들은 뭘하고 랑극에 앉아 있는 두 수반네들이 직통전화를 해야 할만큼 밀접해 졌는가? 하기가 할 말이 오죽이나 많겠소만...

저기에는 열핵전쟁은 그 어느 개인의 착오와 실수에 의해서도 순간에 일어 날수 있을 정도로 예민하고 자동화돼 있기때문에 외무성각서나 멧세지로써는 안된다는거요. 수화기를 들면 즉시에 통화할수 있어야 핵전쟁이 방지될수 있다고 하고 있소.》...

《가령 크레믈리의 그 전화통앞에 브레주네프가 아니라 쓰딸린이 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될가?》...

《하루 한번씩 대통령을 불러서 첫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공산당선언>을 펼쳐 놓고 천천히 읽어 주겠지. 전문은 아니고 앞머리, 하나의 유명이 유럽상공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다 하고... 다음에는 마지막대목인 지배계층들로 하여금 공산주의 혁명앞에 전복케 하라, 공산주의혁명에서 프로레타리아가 잃을것은 철쇄뿐이고 그들이 얻을것은

전세계이다. 그리고 나중에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라고 했을게 아니요.》...

《그러면 존슨이 즉시에 원자탄, 수소탄 할것없이 몽땅 모스크바에 날려 보낼거요.》

《그러니 3차세계대전의 첫신호는 울리였군그래. 참 희한한 일이 벌여 지고 있지. 그러나 그건 환상이고 사실에 있어서는 백곰과 독수리가 포옹을 했은즉 원자탄이 아니라 <리성적제국주의>의 괴물인 유. 에스. 에이는 꽃다발을 보낼것ियो, 꽃다발을! 그렇지 않습니까?》

해학과 야유가 풍기는 이런 생활적대사는 1960년대 공산주의운동의 실패와 수정주의길로 굴러떨어 진 당시 쏘련공산당의 내부형편을 방불하게 상기시켜 주고 있다.

아울러 총화와 론의에서 언급되는 력사적사실들과 인물들이 정치론문에 지적되는 무형의 인물이 아니라 성격이 있는 구체적인간으로 생활적으로 안겨 온다.

따라서 이런 인물들과 사건들에 대하여 자기나름의 립장과 견해를 표명하는 작중인물들은 사상사총화와 생활적으로 련계를 맺게 된다.

작가는 사상사총화과정을 《문학화》하기 위하여 또한 작중인물들을 각기 자기 운명선을 따라 걸어가게 하면서도 사상사총화의 이런저런 내용들과 련관이 이어 지도록 이야기를 조직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것 역시 총화과정을 생활적으로 리해할수 있게 하는 조건의 하나로 된다.

작품에서 허담은 총화에 직접 참가하지는 않지만 총화가 있게 되는 취지와 론의점들의 과학적 타당성을 밝히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이것은 외교일군으로서 이전 쏘련과 동유럽, 다른 대륙에서 보고 듣고 체험한 사실을 장군님께 말씀 올리는 장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엄한정은 사랑하는 딸이 곡절을 겪게 된것으로 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게 된 인물이다.

사위될 사람이 박부위원장이 관계하고 있는 연극 《일편단심》의 연출작업을 거절해 나선것으로 하여 직무에서 해임되고 드디어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는 이런 현상과는 한사코 따라 다니면서 뿌리를 뽑아 없애 버릴 작정이라고 하시면서 딸과 애인을 본래의 자기 위치로 불러 주신다.

때마침 사상사총화에서는 공산당들의 관료화, 권력화의 위험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여기에 참가한 엄한정은 권력화와 야심이 낳은 후과의 엄증성에 대하여 폐부로 느끼게 된다.

이런 느낌을 받아 안는것은 독자들인 경우에도

다를바 없다.

이외에도 작품에서는 《일당백》 표식점을 직접 꾸리는 오진우,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건설에 관여하는 오백룡, 《목민심서》, 《안개 흐르는 새 언덕》, 《일편단심》 건으로 하여 심각한 자책에 빠지는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전상환, 《구내산》을 지켜 나선 로장 유상철과 용해공 한창수, 도당위원장 림귀현 등도 모두 《100년사상사총화》의 토론내용을 부각시키고 돈구는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 한세기전에 로동계급은 부르조아에게 공개적으로 결사전을 선포하였으나 오늘에 와서 제국주의가 변했다고 하면서 《평화전략》을 운운하게 된것이 정치적수령의 사상을 절대적인 것으로 내세우고 그를 드팀없이 관철하지 않은데 있다는것이 밝혀 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의 결정적요인인 수령을 충성으로 받들어 모셔야 한다는 혁명적수령관에 대한 사상이 자연스럽게 흘러

러 나오고 있다.

이 모든것으로 하여 작품에서 이야기되는 모든 내용, 모든 인물들의 운명은 종자를 천명하는 한가지방향으로 지향되게 되고 로동계급의 오랜 투쟁력사와 혁명적현실에서 찾아 낸 불변의 진리, 혁명적수령론은 형상으로 무르익은 위대한 사상으로 부각되게 되었다.

실로 작품에 인입된 《100년사상사총화》는 작가의 능숙한 형상적처리로 하여 종자의 철학적무게를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그를 형상으로 꽃피우는데도 큰 몫을 담당수행하였다.

이것은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작가의 공로에 속하는 성과이다.

나는 연단을 마치면서 이렇게 독자들에게 심오한 사상과 철학을 안겨 주는 작품,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대담하고 기발한 형상적기교가 느껴지는 작품이 더 많이 나오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바이다.

## 백두산정소묘 외 1편

### 박성선

백두산정에 우욱 소리치며 타래치며  
몽게몽게 밀려 오는 먹장구름 먹장구름  
유격대원들 왜놈치던 전투의 포연이  
상기도 그렇게 남아 뒤설레는게지

번쩍- 암흑을 찢는 푸른 번개발 번개발  
짜르릉-천리 산정을 뒤흔드는 퇴성  
왜놈들 버락치던 투사들 그 총성 그 섬광  
오늘도 그대로 남아 번쩍이며 메아리치는게지

후두둑 쏟아 진다 순식간에 췌췌... 소리치며  
폭풍친다 우박소나기... 들부신다 천하를  
철천지원쑈들을 무자비하게 쓸어 버리던  
그 무서운 불벼락 오늘도 그대로 보여 주는게지

어느새 파랗게 열리는 하늘 쏟아 지는 햇빛  
산정엔 이슬 머금고 떨어떨기 웃는 만병초  
저 산밑에 황천객이 되어 나딩구는 왜놈들을  
보며  
호탕하게 웃던 그 투사들이 웃음을 또 터친게지

## 백두산에 흰눈이 내리네

눈이 내리네 흰눈이 내리네  
조국에 광명성 솟은 경사로운 그날에  
하얀 목화솜 포단도 하나 못해 드린  
이 나라 인민의 아픈 마음 풀어 주고 싶어  
오늘도 백두밀림에 고향집뜨락에  
하늘숨 내리네 하얗게 덮이네

눈이 내리네 흰눈이 내리네  
어리신 장군님을 품에 안으시고  
찬바람 한몸으로 막아 가고 또 가신

김정숙어머님의 그 녀원 풀어 주고 싶어  
오늘도 백두밀림에 만주광야에  
하늘숨 내리네 포근히 쌓이네

눈이 내리네 흰눈이 내리네  
장군님은 인민을 위해 천만리...  
그 눈바람속에 현지도의 길 가신다고  
가시는 자옥자옥에 주단을 깔아 드리고 싶어  
오늘도 백두밀림에 조국의 산야에  
하늘숨 내리네 축복 담아 내리네

## 간절한 소망

김명심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웅위하듯 항일의 친위전사 그날의 그 자세로 오늘도 주작봉마루에서 우리를 반겨 맞으시는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어머님의 모습을 우러르면 저절로 눈곱이 찢어 든다.

지난 설명절날도 나는 아들형제를 앞세우고 만수대언덕을 거쳐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아 갔다.

우리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반신상에 향기 그윽한 꽃다발을 드리고 인사를 올렸다. 그리고는 사람들의 물결을 따라 언덕을 내렸다.

문주앞에 이르렀을 때였다. 앞서 가던 작은 애가 문득 돌아 서며 나를 쳐다보았다.

《어머니, 김정숙어머님 동상옆에 핀 꽃들이 참 곱지요? **김일성화, 김정일화!**》

《응, 정말 언제 봐도 고운 꽃들이지.》

지난 해 대학생이 되었지만 아직도 응석받이 큰대로인 큰애가 뒤미처 물었다.

《그런데 어머니, 아직은 왜 김정숙어머님의 존함을 모신 꽃이 없을까요?》

(김정숙어머님의 존함을 모신 꽃이라니?! 그렇다면, 아니 그렇다면 아, 《김정숙화》란 말이 아닌가!)

순간 나는 갑자기 번개치는 생각에 가슴이 몽클하고 목이 꼭 메여 아들애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대성산언덕을 내리는 길로 중앙식물원선물식물관에 들러 활짝 피어 향기 풍기는 **김일성화, 김정일화**를 보면서 여기에 어머니의 존함을 모신 《김정숙화》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가슴을 뚫어놓았다.

하지만 이 안타까운 심정을 아무데서나 분별없이 터놓을수 없어 나는 그날 저녁 늦게야 아이들과 마주 앉았다.

《애들아, 낮에 대성산에서 너희들이 어머니의 존함을 모신 꽃이 왜 없는가고 했는데... 음- 그건 <김정숙화> 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이 지?》

《어머니, 맞았어요. <김정숙화>.》

《<김정숙화> 만세!》

애들은 약속이나 한듯 환성을 울리며 너무 좋아 나를 불안고 어쩔줄 몰라하였다.

이날밤 우리는 언젠가는 꼭 피여 나고야말 《김

정숙화》이야기로 잠 못 이루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작은 애가 노래악보를 내놓았다.

《엄마, 오늘 배운 새 노래인데 막 안타까와 못 부르겠어요.》

들여다 보니 새로 나온 아동가요였다.

대원수님 꽃은 **김일성화**

장군님의 꽃은 **김정일화**

어머님의 꽃은 진달래

3대장군꽃

...

가사를 보니 안타까와 하는 아들애의 심정이 십분 이해되었다.

《진달래》라는 단어에는 응당 《김정숙화》라는 표현이 들어 가야 내용과 형식이 완전무결한 작품으로 되었겠는데 가사를 쓴 시인이야 우리들보다 얼마나 더 안타까웠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돌이켜 보면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한평생을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 오시었다.

하기에 어머니께서 뜻밖에도 우리절을 떠나시었을 때 마지막으로 입혀 드릴 옷 한벌 변변한것이 없어 너투사들이 너무도 가슴아파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지 않았던가.

그런데 어머니께서 떠나가신지 반세기가 지난 오늘까지도 어머니 존함을 모신 꽃을 피우지 못했으니 우리 어찌 도덕의리가 있는 어머니의 참된 아들딸들이라 말할수 있으랴.

대학생인 큰애가 책가방을 들고 방안에 들어서는 바람에 나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방안에 모셔 진 3대장군위인상을 우러르며 이윽도록 말없이 서 있던 아들애가 마치도 나의 마음을 들여다 본듯 이렇게 말하였다.

《어머니, 내가 이번에 생물학부에 입학하길 잘했지요?》

《아니, 그건 무슨 말이냐?》

《나는 이제 식물학공부를 잘해서 아버지장군님의 말씀대로 20대에 학사, 박사가 되어 <김정숙화>를 꼭 이 땅위에 활짝 피우고야 말겠어요. 꽃형태도 색깔도 향기도 어머니께서 좋아 하시던

진달래를 닮은 이 세상에 없는 새 품종의 진귀한 꽃을 육종해 내겠어요.》

이것은 응석이 아닌 아들애의 진실하고 확고한 결심이였다.

《지금까지 불멸의 꽃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는  
흙모의 정을 안은 외국의 벚들에 의하여 태어났지만 <김정숙화>만은 주체조선의 새 세대인 네가  
꼭 피워라. 저명한 식물학자들이 이미 <김정숙  
화>연구에 착수하여 이제는 성숙단계에 이른것을  
모르고 우리가 새삼스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니. <김정숙화>가 하루빨리 이 땅우에 태어  
났으면 하는것은 우리 한가정의 소원만이 아니라  
온 나라, 온 인류가 절절히 바라는 간절한 소망  
이다.》

아들애에게 이렇게 타이르는 나의 눈앞에는 백  
두산3대장군을 높이 우러러 흙모하는 충성의 한  
길에 아름답게 만발하여 향기 풍기는 **김일성화**,  
**김정일화**와 함께 불멸의 꽃 《김정숙화》가 환히  
안겨 왔다.

## 명언해설

《문학은 예술적화목을 통하여 인간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주는 생활의 철학이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명언에는 문학의  
본성이 인간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주는 생활철학  
이라는데 있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문학은 산  
인간과 그의 생활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형상하여  
의의 있는 인간문제를 밝혀 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생활의 진리를 깨우쳐 주며 그들을 참된 삶의 길  
로 이끌어 준다. 문학이 밝히는 의의 있는 인간  
문제란 다름아닌 인간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주는  
생활의 철학이다. 원래 인간의 운명개척의 길을

밝혀 주는것은 철학의 근본사명이다. 따라서 인  
간의 운명문제는 문학이 다루어야 할 문제인 동  
시에 철학상의 문제이며 인간의 운명문제에 해답  
을 주는 문학은 철학성을 띠지 않을수 없다. 문  
학은 인간에 대한 올바른 철학적견해와 관점에  
기초하여 생활을 뜻 깊게 형상하며 인간문제를  
깊이 있게 밝혀 낼 때 사람들을 보람찬 삶의 길  
로 이끌어 줄수 있다.

가사

## 봄이 웃는 내 나라

**류동호**

이 강산에 봄이로세 따뜻한 봄이로세  
꽃들이 피여 나오 아름다운 봄이 웃소  
산과 들의 꽃만이야 그 무슨 봄이겠소  
사람들의 웃음속에 아름다운 봄이 있소

우리 생활 봄이로세 행복의 봄이로세  
꽃을 안고 기쁨이요 봄을 반겨 노래일세  
천만송이 꽃이 피고 사람들 즐거워도

우리 태양 축복없이 그 무슨 봄이겠소

내 나라의 봄이로세 축복의 봄이로세  
금수강산 꽃이로세 사회주의 풍경일세  
지상락원 이 땅우에 꽃바다 펼쳐 놓고  
우리 태양 우러러 천년만년 살고 싶소

아 봄 봄 봄 봄이 웃는 내 나라  
영원한 이 봄날에 우리 태양 모셔 가리

# 시인의 열정의 분출, 시대의 메아리

차수

위대한 시대, 격동적인 현실은 명가사, 명시를 낳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령도밑에 강성부흥할 조국의 미래를 확신하며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조국의 현실이 낳은 시대의 걸작 노래 《승리의 길》(차영도 작사, 성동민 작곡)이 거둔 사상예술적성파가 이를 웅변적으로 실증해 주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인의 심장이 불 라올라 생활에 대한 정서적 체험이 깊어 지고 사색의 세계가 비상히 높아 저야 시문학에서 끊임 없는 변혁을 일으키고 명시, 명가사풍년을 안아 올수 있다.》

짧은 시행속에 시대의 벽찬 흐름과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해야 하는 명가사는 시대를 호흡하는 시인의 심장의 열도가 뜨거울 때라야 창작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노래 《승리의 길》이 좋다고 하시면서 오늘은 비록 어렵지만 난관을 뚫고 나가면 반드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보다 행복한 생활을 창조할수 있다는 사상이 얼마나 좋은가고, 이런 사상, 이런 신념은 그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지만 특히 창작가들에게 더 필요하다는 뜻 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특히 가사에서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는 부분이 아주 잘되었다고 분에 넘친 평가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은 그대로 노래 《승리의 길》의 사상예술적성파에 대한 고전적정식화로 된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길에서 우리 인민은 몇 십년이 지나도 체험하지 못할 귀중한 생활의 철리를 받아 안았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만 믿고 따르면 시련과 난관은 부서 지고 휘황한 미래가 현실로 꽃 피난다는것을 생활을 통해 심장깊이 새겨 안았다.

노래 《승리의 길》은 바로 인민의 마음속에 융암처럼 끓어 번지고 있는 숭고한 이 감정세계를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진실하게 형상하였기에 명가사로서의 품위를 갖추고 시대의 진군가로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는것이다.

노래 《승리의 길》의 구절구절을 새겨 보면 거기에는 승리의 한길을 걸어 왔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장군님 따라 변함없이 가려는 우리 인민의 투철한 혁명적수령관과 혁명적신념이 세차게 맥

박치고 있다.

1. 머나먼 혁명의 길에 홀린 피 붉은기에 있고  
승리의 천만리우에 영광의 자욱이 있다  
수령님 따라서 시작한 이 혁명  
기어이 장군님 따라 승리 떨치리
2. 우리는 자기를 믿듯 승리를 굳게 믿고 산다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  
수령님 따라서 시작한 이 혁명  
기어이 장군님 따라 승리 떨치리
3. 폭풍이 사납다 해도 이 땅에 다른 길은 없다  
백두의 붉은기 높이 끝까지 가야 할 이 길  
수령님 따라서 시작한 이 혁명  
기어이 장군님 따라 승리 떨치리

음미하면 할수록 깊은 사색의 세계에 잠기게 하고 부를수록 힘과 용기를 안겨 주는 노래 《승리의 길》의 가사는 그대로 우리 혁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래일인것이다.

새 세기를 맞이한 력사적전환의 시기에 과연 우리가 걸어 온 길은 어떤 길이였으며 앞으로 걸어 가야 할 길은 어떠한 길인가에 대해 생각해 본다.

노래 《승리의 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시인의 머리속에서 창작해 내고 있는것이 아니라 지나온 력사와 우리 인민이 《고난의 행군》길에서 실지 체험하고 신념으로 다져 온 진리를 그대로 가사화하여 밝혀 주고 있다.

자기의 닳을 올린 때로부터 우리 혁명은 전인미답의 길을 걸어 왔으며 그 길에서 동서고금 류례가 없는 시련과 난관에 부닥쳐야 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령도가 있어 준엄한 시련의 폭풍을 뚫고 승리의 한길만을 걸어 왔다.

력사에 금문자로 승리의 자욱만을 새겨 온 우리 인민과 혁명은 20세기 마지막년대에 승리냐 패배냐 하는 판가름을 하게 되었다. 세계가 우리를 지켜 보며 승리보다 비극적인 결과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인민은 자신을 믿듯 승리를 믿었다.

그 필승의 신념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혁명을 지켜 주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한 반드시 이긴다는것이였다.

세계는 보았다.

누가 최후에 웃는가 보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승리는 영원하다는 이 세상 천변만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배짱과 담력을 지니신 우리 장군님을.

남들 같으면 열백번 쓰러졌을 고립과 봉쇄를 뚫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거쳐 더 억세어진 승리자의 모습으로 락원의 행군길, 강성부흥할 래일을 마중해 가는 우리 인민을.

세기의 령마루에 승리자로 우뚝 올라 선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서 울려 나오는 신념의 웨침은 오직 하나, 수령님 따라서 시작한 우리 혁명은 장군님 따르면 반드시 승리로 완수된다는 철석의 의지이다.

바로 이것이 시대의 한복판에 선 시인의 가슴속을 짊어준 시대의 모습이고 인민의 걱정인것이다.

《수령님 따라서 시작한 이 혁명/기어이 장군님 따라 승리 떨치리》는 시어이기전에 그대로 오늘의 시대정신이고 우리 인민의 주도적인 사상감정인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힘 있게 발 맞추며 터치는 시인의 토로에 공감할수록 잊혀 지지 않고 떠오르는 한편의 가사가 있다.

백두산의 해돋이에 붉게 물든 눈보라  
기발처럼 휘날리는 눈보라 눈보라  
당을 따라 혁명할 하나의 신념  
천만심장 불 태우네 눈보라 눈보라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에 이 시인이 창작한 가사 《백두산의 눈보라》의 한 절이다.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솟아 있는 백두산, 백두산의 눈보라는 과연 무슨 사연을 안고 있기에 저리도 소리높이 폭풍치고 있는가. 노래 《백두산의 눈보라》에서는당을 따르는 길에 고난과 역경이 들쭉쭉 저도 순간의 변심이나 판길을 모르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상을 보렘도 분식도 없이 보여주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 노래는 우리 인민이 체험한 혁명적인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 좋은 노래라고 하시었다.

시인은 시대와 인민대중의 목소리의 대변자이다. 시대를 안을줄 알고 인민을 뜨겁게 사랑하는 시인만이 인민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느낄수 있고 그 웨침소리를 들을수 있는것이다.

이런 불 타는 정열로 심장을 달구어 온 시인이기에 《백두산의 눈보라》를 《승리의 길》로 이어 놓았던것이다.

시대를 뜨겁게 감수하고 인민을 무한히 사랑하는 시인은 인민의 마음속에 새겨 지는 심장의 언어를 읽게 된다.

노래 《승리의 길》의 가사는 그대로 인민의 목

소리이고 시대가 비친것으로 하여 깊은 철확성을 가진다.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

노래의 사상이 집중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이 구절은 시어라기보다 그대로 우리의 생활이고 신념인것이다.

모진 시련과 난관을 뚫고 장군님께서 가리키시는 한길로만 줄달음쳐 온 우리 인민이 체험하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꾸지 못할 값비싼것이다.

정녕 죽음을 각오한자를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는 철리를 심장마다 새겨 안았기에 고난의 천리를 이겨내고 행복의 만리를 안아 온것이 우리 인민이다. 우리 인민의 마음속마다에 귀중히 새겨져 있는 이 진리가 그대로 가사에 옮겨진것이다.

노래 《승리의 길》이 그토록 만사람의 가슴을 격동시키는것은 세상천지 그 어디에도 없는 수령과 인민사이의 혈연적관계에 바탕을 둔 혁명적신념과 랑만을 격조높이 노래하고 있기때문이다.

이미 《백두산의 눈보라》에서 서정적이며 랑만적인 시적화폭으로써 심장의 금선을 강하게 울린 시인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길을 헤쳐 온 우리 인민의 생활을 노래하면서도 그 음조를 한없이 숭엄하고 격동적인것으로 하고 있는바 이것은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한 혁명적신념과 랑만을 깊이 있게 보여 주었기때문이다.

노래에서는 《수령님 따라서 시작한 이 혁명/기어이 장군님 따라 승리 떨치리》라는 후렴을 매절에서 반복시키고 있다. 《고난의 행군》을 열백번 다시 한대도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것이 우리의 신념이고 미래에 대한 랑관인것이다. 바로 이 신념과 랑관의 핵인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노래에서는 후렴구를 반복시킴으로써 힘 있게 강조하고 있는것이며 사람들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 주는것이다.

이와 함께 《폭풍이 사납다 해도 이 땅에 다른 길은 없다/백두의 붉은기 높이 끝까지 가야 할 이 길》에서는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일념으로 가슴을 불 태우고 있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인 모습을 그려 보게 함으로써 혁명적랑만이 차넘치게 한다.

바로 이런 확고한 신심에 넘친 인민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기에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를 반영하고 있지만 노래의 전반에 흐르는 감정은 신념과 랑만이 주도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노래 《승리의 길》에서는 하나의 시어도 다 그 무엇과도 바꿔 넣을수 없는 인민의 목소리인것으로 하여 더더욱 시대의 명가사로 되고 있다.

생활에서는 한가지 사상감정을 여러가지로 나타낼수 있지만 가사에서는 그렇게 할수 없는것이다. 뜻이 명백하지 않고 정서적색깔이 뚜렷하지 못한 시어들이 라렬되면 그것을 놓고 시적인 가



사라고 말할수 없는것이다. 반드시 어떠한 사상 감정이든지 그 표현이 정확하고 섬세할 때라야 색채가 명백해 질수 있다.

노래 《승리의 길》에서 매 시어들은 다른 시어로 대신할수 없게 가사에 담겨 지는 사상감정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다.

노래에서는 붉은기에 대한 가사형상을 작품의 대를 살리고 사상적내용을 뚜렷이 하는데 효과적으로 이바지하게 하고 있다.

붉은기는 그대로 우리 혁명의 력사이고 투쟁과 미래의 표대인것이다. 노래에서는 붉은기에 우리 혁명의 장구한 력사를 체현시켰으며 우리 혁명의 장래를 뚜렷이 규정시키고 있다.

하여 1절과 3절에서 붉은기에 대한 시적형상을 줌으로써 가사의 사상에술적품위와 무게를 한껏

더해 주고 있다.

참으로 노래 《승리의 길》의 가사는 장군님 따라 휘황한 미래를 내다보며 전진하는 우리의 장엄한 현실이 낳은 시대의 명가사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를 자신의 온넛으로 받아 안으며 인민대중속에 들어 가 그들의 사상과 감정에 자신을 따라 세울 때 력사에 남는 명시, 명가사가 나온다는것을 다시금 깊이 새겨주는 노래 《승리의 길》.

우리의 시인들과 창작가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경애하는 장군님 따라 혁명의 길에서 언제나 앞장에서 행진해 가며 시대와 혁명을 전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작품들을 더많이 창작할것이다.

## 아이들에게 주는 시

리성애

새 세기를 맞는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들은 지금 위훈을 꿈 꾸고 있지  
교정의 충계를 오르며  
영웅의 모습 보고 또 보는 너희들에게  
나는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다는 모를게다  
너희들 작은 가슴에  
고이 간직된 영웅의 그 자욱  
어디서 시작된것인지

어머니손목 잡고  
누구나 한낱한시에  
여기 들어 섰어도  
생의 자욱은 서로 달리 찍혀 지는것

무심히 생각하지 말라  
이른 아침 정성 다해 물 주는  
뜨락의 꽃나무  
그 밑에 남기는 작은 꽃신자욱

어찌 알라  
그 자욱이 먼 후날  
조국이 사랑스럽게 추억할

영웅의 어린 시절 자욱으로 될지

무심히 내짚지 말라  
선생님의 부름에  
주저없이 칠판앞으로 나가는  
그 몇걸음을

어찌 알라  
그 걸음이 먼 후날  
《김정일장군 만세!》를 웨치며  
육탄되어 달려 나가는  
위훈의 자욱으로 이어 질지...

아이들아, 명심하라  
그 몇번 뿌려 지는  
입학의 꽃송이, 졸업의 꽃보라에  
어떤 발자욱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어떤 발자욱은 영원히 지워 지지 않는  
소중한 자욱으로 남는다는것을

신성한 이 교정에  
티없이 새기거라  
소년시절의 한자욱, 한자욱을  
아, 영웅은 그 어느 전장에서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소리없이 준비된다!

# 그리움은 승리

한창우

그리움은 마음속의 깊은 정이던가  
못 잊을 향수에 가슴 젖는 추억이던가  
누구는 손벽치며 첫 걸음마 익혀 줄 때  
엎어 질듯 달려 가 안기던 어머니젖품이라고  
누구는 소꿉시절 덩굴던 푸른 잔디밭  
아니면 엄하면서도 인정 많던 선생님이라 하더라

하지만 철들어 내 가슴에 깃든 그리움은  
인생길 걸으면 걸을수록  
못 견디게 더더욱 그리워 지는 그 품  
인덕에 매혹되고 은덕에 목 메이는  
아 이 세상 어머니들의 정을 다 합쳐도 못 따를  
거룩하신 어버이!

잠들 때도 꿈속에서 이어 지고  
잠 깰 때도 첫 생각으로 나래 퍼는  
장군님께로 향한 그 그리움은  
첨첨산발이 막아 서도 멈출수 없고  
쏟아 지는 눈비도 식힐수 없는  
그처럼 강렬한것이기

우러르면 힘이 되고  
따르면 영광 넘치는  
우리 장군님께로만 향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정화된 정성옥의 진리의 목소리가  
이 세상 온갖 음향을 다 누르며  
승리의 메아리되어 내 심장의 벽을 치나니

행복만을 알던 우리모두  
배고픔이 어떤것인가를  
한겨울의 추위가 얼마나 혹독한가를  
폐부로 절감하던 그때  
더더욱 그 그리움이 마음의 기둥되었나니

그 그리움이 마음의 기둥이 되어  
헤어져도 주저앉지 않고  
눈보라치는 비탈길에 손발구를 끌며

두엄을 나르는 자강땅 사람들 태여났고  
다 식었던 용광로에서 쇠물을 뽑아 내는  
성강의 봉화가 타오르지 않았더냐

그 그리움이 언제나 온몸에  
피방울처럼 흐르고 있어  
석수 쏟아 지는 천길 지하막장에서도  
벨트콘베아에  
끝없이 그리움이 실려 나와  
석탄산이 높이높이 솟게 하였거니

그 그리움 고난을 박차는 힘이 되어  
동해바다가에 아득히  
광명성 새 소금발이 펼쳐 진게 아니더냐  
척박한 북방의 발이랑에도  
세벌농사의 풍년이삭 설레이고  
양어장마다에 고기떼가 옥실거리게 한것 아니냐

언제 어디서나 났지도 바래지도 않는  
그 그리움을 안고 살면  
적구 홀로 남은 숲속에서도  
격랑치는 망망대해 쪽배우에서도  
산악처럼 배심 든든하고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  
시대가 다 아는 영웅이 되어  
장군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리나니

눈비속에 젖고 있는  
하늘땅을 집으로 삼으시고  
웨기밥과 쪽잠으로 지새우시면서도  
끝 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온몸을 덮어 주시는  
삶의 은인을 따르는 인민의 깨끗한 마음  
그 누가 선사한것 아니기에  
그 누가 시켜 안은것도 아니기에  
온 겨레가 흠모의 노래 부르고  
온 인류가 경모의 합창으로 화답하나니

날마다 장군님생각으로 발걸음을 떼고

장군님 큰 걸음에 보폭을 맞추며  
우리모두 드림없이 걸어 가는 그 길우에  
마중 가고 마중 오는 그 그리움 따라  
필승의 신념과 불사조의 나래가 돋히고  
승리자의 긍지 높은 자욱만이 있거니

오 그리움은 그 모든 승리의 결정체  
그 승리는 나라의 크기로 얻는것이 아님을  
조선을 빛내인 정성옥이 보여 주었거니  
자본주의 한복판에서  
온몸이 그대로 사회주의붉은기 되어  
성옥이가 달린 승리의 주로 그리움의 주로우에  
오늘은 수천수만의 《성옥》이가 달리는 이 땅  
은 인민이 달리는 내 나라 내 조국이어!

인류력사 백만년에  
승리에 대한 전설은 많아도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세상이 다 알지 못하는 승리의 비결  
바로 태양의 나라 조선에만 있음을

너와 나 우리모두  
세기의 하늘땅에 한가득 채웠구나  
내 조국이 무엇으로 위대한가를

오 그리움은 승리  
그것은 지구도 깨칠 조선의 힘  
력사의 역류도 한순간에 돌려 세울 조선의 담력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강성부흥의 한길로 준마 타고 내닫는  
주체조선의 영원한 빛의 광원이여라  
무적필승의 대명사로 력사에 영원할  
우리의 승리여라

**《작가는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멀고도 험난한 혁명의 한길에서 당과 뜻을 같이 하고 생사운명을 같이 하는 영원한 동행자가 되어야 한다.》**

**김정일**

## 일화

## 작가와 교훈

한설야는 해방직후부터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과 배려를 각별히 받아 온 작가들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해방후 《카프》문예인답게 초기에는 《만경대》를 비롯하여 의의 있는 좋은 글들을 많이 창작하였다. 하여 인민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그러던 그는 당조직생활을 성실히 하지 않아 점차 변질되고 종당에는 어버이수령님의 믿음과 은덕에 배은망덕하는 행동까지 하게 되었다.

문학예술부문과 정권기관의 책임적인 직무에서 일하게 된 때로부터 같은 기관 일군들도 그의 얼굴을 보기 힘들었다.

그것은 그가 단 한번도 공중장소에 얼굴을 내밀지 않았기때문이었다.

그는 점차 당의 신임을 악용하여 조직과 동지라는 개념보다 《친구》들과 뒤꼍방에 마주 앉아 여담이나 하면서 누굴 취주교 누굴 시기하기를 좋아 하였다. 그때부터 그는 당회의에도 잘 참가 안했으며 당조직에 자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도 하지 않았다.

변질은 시간문제였다.

그후 당조직에서는 한설야에 대해 여러 교양대책을 세웠으나 관료와 아첨을 좋아 하는 그는 돌아 서지 않았다.

그의 주위에는 아첨군들이 붙어 다녔으며 그로 하여 거만기는 턱없이 올라 갔고 성실성은 점점 식어 갔다.

그후 한설야는 철직해임되었다.

당조직생활을 성실히 하지 않은 그는 이때에야 한숨을 푹푹 쉬면서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을 잊고 자기가 잘난체하면 어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가를 깊이 깨달았다.

당조직을 떠난 그의 운명은 물우에 뜬 거품과 같았다.

그러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가 《카프》작가로서 우리 나라 문학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귀중히 여기시어 그의 이름이 력사에서 지워 지 않게 해주셨다.

**박승록**

# 20세기령마루에 높이 떨친 조선사람의 존엄과 기개, 긍지

박인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이 사회정치적생명체를 강화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에게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존재와 위력을 담보하는 근본요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생활적으로 깊이 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20세기의 령마루에서 류레없이 간고한 시련과 난관을 뚫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헤쳐 온 우리 인민,

우리 인민이 고난과 시련을 헤쳐 올수 있는 신념과 의지는 무엇이었으며 이 행군과정에 체험한 생활의 진리는 또한 무엇이었는가.

서사시 《조선사람들》(김명익, 《조선문학》 주체89년 1호)은 우리 인민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면서 체험한 조선사람의 존엄과 기상, 긍지에 대한 문제를 심오한 사상정서로 노래한 인상깊은 시이다.

서사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우리 인민이 발휘한 투쟁모습을 폭 넓게 그리안고 이 행군의 현실을 폐부로 느끼게 하는 진실한 생활정서와 명확한 철학적분석이 가해진 서정으로 조선사람의 존엄과 기상, 긍지의 감정을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노래하고 있다.

조선사람의 존엄과 긍지에 대한 서정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기전에 창작된 시작품들에서도 탐구되였다.

이전에 이 문제를 취급한 시들에서는 위대한 수령을 모시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우리 인민들의 다양한 생활면에서 시적계기를 잡고 조선사람의 긍지와 자부심에 대하여 노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시들에서는 행복하고 긍지 높은 인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의 감정이 지배적이였다.

서사시 《조선사람들》은 행복한 나날에 체험한 조선사람의 존엄과 긍지의 감정이 아니라 가장 어렵고 힘든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허리띠를 조이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새롭게 체험하고 느낀 조선사람의 존엄과 긍지를 토로한 감동적인 시이다.

남들 같으면 몇번이나 주저앉고 말았을 그처럼 어렵고 험난한 길을 헤쳐 오면서 더욱 확고한 사상감정으로 굳어 진 조선사람의 존엄한 기개, 긍지를 시적으로 보여 준 여기에 이 서사시의 기발한 시적탐구가 있고 창작적성파가 있는것이다.

서사시는 시적탐구가 새로울뿐만아니라 그 형상적폭과 심도에서도 높은 수준에 올라 선것으로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이 서사시가 깊은 감동을 주고 있는것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면서 우리 인민이 실지 체험한 정서, 시련과 난관을 헤쳐 오면서 파시된 조선사람의 존엄과 기개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데 있다는 사상감정을 생활적으로 깊이 있게 노래한데 있다.

미제를 두목으로 한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붕괴, 몇해째 계속된 자연재해로 하여 시작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면서 우리 인민은 해방후 있어 보지 못한 시련과 난관을 겪게 되였다.

하여 우리 인민은 집도 거리도 일터도 추운것을 목격했고 무서운 해일에 자연재해까지 겹쳐들어 《전야는 큰물에 잠기고 공장굴뚝에서는 연기가 치솟지》 않는 가슴 아픈 모습도 보았고 모르고 받아 안았던 식량공급표의 가치를 새롭게 느끼면서 허리띠도 조여야 했다.

때를 만난듯이 미제는 <<외과수술식타격>>으로 제2조선전쟁을 시험》하면서 《들판의 개승냥이들》처럼 달려 들었고 《시절이 어려워 지자 우리 가까이에서도 허위와 거짓과 변절과 배신》의 인간쓰레기들이 나타나 우리의 전진을 방해해 나섰다.

사면팔방으로 몰아 오는 광풍을 밀어 내며 우리 장군님의 노호성이 세계에 울려 퍼진다.

《세계여 들으라-

백두산에 다시 들어 가 싸우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혁명의 붉은 기치를

끝까지 지킬것이다!

이는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의 의지

나의 의지이다

우리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며

최후의 승리자는 조선사람이다!》

백전로장, 그이의 호탕한 웃음소리

대공에 메아리친다

천만대군의 심장의 피를 끓인다

제국주의자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며 세계를 진감시키는 위대한 령장의 노호성!

조선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 있다고 선포한 그날의 보천보의 밤하늘에 울려 퍼진 력사의 선언처럼 오늘의 시련과 난관에서도 최후의 승리자는

조선사람이라고 선포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장엄한 이 선언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김일성** 민족의 존엄과 기개를 떨쳐 가시는 위인의 담대한 기상과 의지의 선언이었으며 이는 그대로 우리 인민의 신념과 맹세의 선언이었다.

위대한 령장의 노호성과 호탕한 웃음소리에 대한 시적형상은 무비의 담력과 천재적인 령군술을 지니신 위인의 풍모를 한껏 담고 있으며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조선사람이 지닌 존엄과 기개의 원천을 뜨겁게 감수하게 한다.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조선사람의 존엄과 기개가 고수되고 빛난다는 사상감정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여기서 독자들을 보다 깊은 서정세계에로 이끌어 가는것은 위대한 령장을 모신 우리 민족의 존엄과 기개가 시대와 력사, 제국주의자들과의 심각한 대결전속에서 남김없이 발휘되고 있는 다면적인 생활정서들의 폭과 깊이에 있는것이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의 우주제로의 진입을 보고 기절초풍한 미제와 일제의 물결, 미국과 일본에서 오는 《조선바로알기대표단》과 《일본사회운동대표단》, 페르샤만과 유고슬라비아에서 줄폭탄을 퍼부으며 조선수뇌부의 동향을 주시하던 미제의 악랄한 책동의 파탄 등의 생활정서들이 그러한 실례들이다.

이러한 생활정서들은 위대한 령장을 모신 우리 인민의 존엄과 긍지의 감정을 가슴뿌듯이 안겨주고 있다.

우리는 이 서사시의 정서적흐름을 따라 가면서 시대와 력사를 안고 세계를 폭 넓게 굽어 보면서 회세의 위인을 모신 조선사람의 존엄과 긍지의 진가를 정서적으로 느끼게 된다.

위대한 령장을 모신 조선사람의 존엄과 긍지의 감정을 시대와 력사,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전의 승리속에서 도출한 여기에 이 서사시가 사상정서적감화력을 높일수 있는 비결이 있는것이다.

서사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맨 앞장에서 서시여 우리 인민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위인의 인민적풍모를 감명 깊게 형상함으로써 위대한 아버지를 모신 민족적궁지와 자부심을 더욱 짙은 정서로 감득시키고 있다.

우리 인민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헌신적로고를 더욱 뜨겁고 절절하게 체험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맨 앞장에서 바쳐 오신 천만고생이 있었기에 우리 인민이 겹쌓이는 시련과 난관을 뚫고 올수 있었다는것은 이 나라 인민, 조선사람들의 마음속에 간직된 고결한 사상감정이다.

시인은 인민들이 체험한 이러한 감정세계를 깊이 있고 진실한 생활정서를 통해 노래하고 있다.

첫 새벽에 공장에 들어 서는데  
글쎄 그이께서 차에서 내리시다니  
로동계급들 보고 싶어 다시 들리신다고  
나의 손도 억세게 잡아 주시는  
그이를 뵈웁게 될줄이야  
《그래, 건강은 어떻습니까?  
로동자동무들 생활이 크게 어렵지요?  
가만... 그 밥팩을 좀  
보여 줄수 없겠습니까?》  
내 황황히 밥팩을 등뒤로 가져 가는데  
《어려울거요. 당장 식량이 필요할것이고...》  
모든것을, 우리의 모든것을 다 해아리싯든  
...  
늘 그이가 해처럼 그리웠다면  
밤새 가셨던 천리길을 되돌아  
또 천리길을 오신 그이를  
이날 아침끼니도 번지신 그이를  
이 나라 로동계급이 뵈웁출은

대한추위의 눈보라를 헤치시고 공장을 찾아 온 위대한 장군님께서 밤새 가셨던 천리길을 되돌아 아침끼니도 번지시며 또다시 오시여 로동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이 생활정서는 얼마나 가슴을 뜨겁게 하는것인가.

이 생활정서는 달리는 차안에서 쪽잠에 드시고 췌기밥으로 끼니를 에우시며 강행군을 진두에서 헤쳐 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사상과 감정을 집대성한것으로 하여 심오한 사상정서적무게를 안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눈 내려도 바람 불어도/한걸의 야전복차림》으로 인민들과 함께 《때론 모닥불가에서/주먹밥도 같이》 드시고 《자신의 한공기 죽마저/병사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위인의 뜨거운 사랑은 그대로 우리 인민들에게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안겨 주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분투하시는 그이의 로고가 있어 강제정신이 창조되고 대흥단3천리엔 감자농사혁명의 불길이 타올랐으며 사랑의 전설들이 꽃 피난것이다.

하기에 《고난의 행군》, 강행군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신 우리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행군》이었고 《인간사랑의 대행진》이었다.

독자들은 서사시에서 강행군의 진두에 서시여 《인민을 위한 사업으로 온 한해/온 하루 24시간을/100% 불 같이》 사신 위대한 령장의 천만고생의 자옥자옥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흠모의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

시인은 이러한 정서속에 주정토로들을 적절히 배합하여 위인의 숭고한 풍모에 매혹된 인민들의 감정세계를 더욱 뜨겁게 노래하고 있다.

그이의 천만고생을 《쫓는 해 지는 달이 어이 다 알》며 우리가 무슨 일을 좀 했다고 해도 《한

몸으로 <고난의 행군>을 하시는/아버이의 천만고생이/너무나도 눈물겨워》 크게 말하지 말자는 이러한 주정토로는 위인의 품모를 실지 생활체험으로 절감한 우리 인민의 감정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으로 하여 정서적충동을 더해 주고 있다.

하여 독자들은 눈물에 젖기도 하고 때로는 숨구치는 열정으로 충만되기도 하면서 위대한 령장을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게 된다.

《진정, 조선땅 령토에서 태어났다고/조선사람이더냐/민족의 아버지/**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여/참다운 조선사람이다!》라고 긍지높이 웨치는 서정세계는 우리 인민이 실지 생활체험으로 절감한 불변의 진리이며 고결한 사상감정의 정화인것이다.

이 서사시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는것의 다른 하나는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과감히 뚫고 나가는 우리 인민들의 투쟁정신을 폭 넓게 노래한것이다.

서사시는 강행군을 벌리는 우리 인민들의 투쟁정신을 보여 주는데 맞게 군인, 노동자, 농민 등 인민들의 투쟁내용을 담은 본질적인 생활정서들을 펼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된 주도적인 사상감정을 밝히는데로 서정을 집중하고 있다.

-그네들 보았더라

인민군병사들이 가슴에 고이 품은  
한방울의 물도 습새여 들지 않은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

-양수기가 멎으면

한초롱 두초롱 물을 길어다 부으면서라도  
씨를 뿌렸다  
의지의 오탁을 자래웠다

-오, 어렵게 살아 보지 않고

어떻게 강하게 살수 있으랴  
오늘의 시련은  
오늘의 조선사람들을 백배로 더 강하게 했다

-산나물 한접시라도 더 놓아 주고

감자 한알이라도 더 없어 주고야  
행주치마에 젖은 손 닦으며  
식탁에 앉을 땐  
자기앞의 국은 그만 다 식어  
오, 한겨울에도 더운 음식 차려 주고  
차거운 국을 드는 녀인들

이 몇개의 부분에서 보다 싶이 우리 인민들의 투쟁정신이 생동한 정서로 안겨 온다.

우리 인민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면서 시련과 난관도 많이 겪었지만 이 과정에 불굴의 신념과 의지가 무엇인가를, 용감성, 강의성, 혁명적력관주의가 어떤것인가를 실지 생활로 느끼면서보다 역세고 강의한 인민으로 자라났다.

서사시는 바로 이러한 우리 인민들의 투쟁모습을 청년건설자들의 희생적인 투쟁, 마라손 《너왕》의 정신세계, 로작가의 최후, 《쳐녀어머니》란 낱말이 생겨 난 이야기 등 다양한 인간들의 투쟁이 깃든 생활정서들로 보여 주었다.

그것은 각이한 인간들의 투쟁내용을 담은 정서속에 자폭정신, 곤난극복의 정신, 혁명적력관주의 등 우리 인민들이 지닌 정신세계가 매 생활정서마다에서 자기의 형상적뒹을 안고 노래되었기때문이다.

결국 하나하나의 생활정서들은 구체적인 자기의 감정세계를 가지면서 우리 인민의 불굴의 투쟁정신의 근저에 놓여 있는 수령결사옹위정신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사상정서를 밝히는데로 지향하고 있다.

시인은 서사시의 형상과제에 맞게 형상기교에서도 재치를 보여 주었다.

직관적으로 볼 때 이 서사시는 련구성을 하지 않은것과 분량이 짧은 절들로 이루어 진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시인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현실을 폭 넓게 담아야 할 형상적요구에 맞게 22개절로 구성하였으며 매절에서는 사건구성을 깔고 정서를 퍼나가는 조건에서 련구성을 하지 않고 있다.

과거, 현재, 미래뿐만아니라 시대와 력사, 각이한 인간들의 감정세계를 비롯하여 사상정서적해명에 필요한 정서들을 한껏 안을수 있는 이러한 구성방법은 이 서사시의 형상적의도에 맞는 구성방법이며 시인의 탐구적인 노력을 엿볼수 있게 한다.

서사시는 많은 절들로 이루어 진 조건에서 절들사이의 감정적련계를 약화시키지 않게 서정조직을 치밀하게 하고 있다.

하여 형상적뒹이 뚜렷하고 잘 다듬어 진 절들이 서로 보충강조되면서 하나의 감정세계로 집중되고 있다.

실례로 《눈물 젖은 두만강》의 노래구절과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의 노래구절은 서로 다른 절들에 반영되었지만 대조적인 감정세계를 가지면서 깊은 철학적사색을 느끼게 하고 있다.

서사시에 반영된 생활정서들은 사건적이면서도 생활적이고 정론적이면서도 서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심오한 사상정서적감동을 주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여 20세기령마루에서 높이 떨친 우리 인민의 기상은 새 세기에도 더욱 세차게 퍼덕이며 창공높이 나래칠것이다.

《우리는 수령님과 당을 믿고 수십년동안 형언할수 없는 악형과 박해속에서도 혁명적지조를 지켜 온 비전향장기수들을 모두 데려 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김정일

수기

## 눈물의 샘

비전향장기수 김용수

관문점을 넘어 조국의 품에 안긴지 벌써 여러 달이 지나갔다. 이 기간은 내 생애에 있어서 극히 짧은 기간이지만 내 운명에 있어서 잊을수 없는 너무나 큰 변화를 가져 온 중요한 시기였다.

이 기간 내 생활에서는 실로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 우선 나에게서 달라진것은 근래에 와서 웃음이 많아 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코노래를 자주 부른다는점이 또한 달라진 점이다.

나는 청춘시절의 대부분을 남조선의 차디찬 감방에서 보내야 했다. 정말 지긋지긋한 하루하루였다. 그것도 특별사동의 0.75㎡의 좁은 독방에서 사방이 콘크리트벽으로 막혀있고 하나 있는 좁은 창문마저 판자쪽으로 가리워져 있어 해빛 한줄기 보기 힘든 음침하고 답답한 감방에서 혼자 살다보니 말동무도 없고 고독하고 지루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그러다보니 마음은 늘 우울하고 감정이 메말라지고 모든것에 무관심하고 웃음과 노래를 잃은지는 오래였다.

그러던 내가 조국의 품에 안긴 이후부터 시무룩한 내 성격도 점차 밝아 지고 잃었던 웃음도 되찾게 되고 가끔 너털웃음을 터뜨리기도 한다.

노래라면 쥐구멍만 찾던 내가 지금은 노래를 배우려고 애쓰고 천생 음치인 주제에 제법 목청을 돋구어 노래하기도 한다.

지옥의 나날에서 잃었던 내 청춘을 되찾아 주시고 굳어졌던 내 성격마저 밝게 해주시고 사라졌던 웃음과 노래를 되찾게 해주신 곳이 바로 꿈속에서도 그리던 위대한 조국-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품이다.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기여 나는 웃음과 노래를 되찾았고 자주적인간으로서의 나를 되찾았다.

행복과 기쁨을 상징하는 웃음과 노래속에 사회적인간으로서의 나를 찾았다고 하는것은 다만 복된 생활의 회열속에 느끼는 감정에서 하는 말은 아니다.

그것은 수십년세월 악과 불의와의 대결의 연속과정에 저도 몰래 말라 버리고 만 눈물이 헤쳐진것을 놓고 하는 말이다.

비애와 슬픔과 인연이 없는 진정한 나. 인간의 심장에서 저수된 깨끗한 감정의 정화수가 매일 매시각 이 억센 사나이의 두볼을 적서 준다.

내가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자본주의사회의 비참한 현실을 체험하면서 씹어 삼키던 눈물이 생각난다.

로동관에서 사고로 사지가 불구되어 운신조차 하기 힘든 사람들이 땅바닥을 기어 다니면서 한 푼두푼 구걸하면서 차디찬 더러운 길바닥에서 헤매이는 광경을 보기도 했고 자식들의 봉양을 받으면서 손자, 손녀들의 재롱이나 받아야 할 늙은 이들이 백발에 람루한 옷을 걸치고 쪽박을 앞에 들고 허리를 굽혀 절하면서 구걸하는 가련한 모습과 부모들의 사랑속에 즐겁게 뛰어 놀아야 할 어린 소년, 소녀들이 고사리손을 호호 불며 《한 푼 줍쇼》를 연발하는 광경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듯 쓰리고 아파 속으로 눈물을 삼켜야 했던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북과 남에서 똑같은 내 눈에서 솟는 눈물의 물리적성분이 같은지 차이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 두 눈물의 의미는 차이가 있다. 내가 남조선에서 흘린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라면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에 안긴후에 흘린 눈물은 진정한 삶의 눈물,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다.

불행을 목격하면서 흘린 동정의 눈물, 비극의 눈물은 쓰리고 아픈 마음을 적시었다.

허나 사랑과 행복을 체험하면서 저도 몰래 솟구치는 오늘의 눈물은 진정한 삶의 웃음과 노래를 주고 참된 의리와 신념을 더해 주고 있다.

나의 이 눈물은 관문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샘을 터쳐 흐르기 시작하였다.

과도처럼 일렁이는 거대한 꽃물결속에 북소리, 나팔소리 흥겨운 노래가락속에 만세소리, 환호소리 하늘땅을 진동했다. 몇분전만 해도 초조하게 시계바늘을 응시하며 분계선을 넘을 시간을 기다리던 긴장은 삽시에 풀어 지고 흥겨운 분위기에 풍덩 빠져 들어 갔다. 개성시인민들의 열렬한 환영에 회답하며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악수세례, 뜨거운 포옹, 꽃다발속에 물결을

헤가르다가 《아버지!》, 《여보!》하는 부름소리와 함께 가슴에 안기는 처자의 뜨거운 체온은 마침내 내 눈물의 샘을 터치었다. 눈물을 펄펄 쏟으며 웃고 비비며 다시 보고 다시 포옹하며 감격과 환희의 무아경속에 잠겼다.

이때부터 나의 눈물샘은 봄물처럼 샘솟아 났다. 이 눈물샘은 나에게서 감격의련속과 환희와 희열의 순간마다에 예고없이 나의 두볼을 적시었다.

《통일애국투사》, 《신념의 강자》라 불러 주며 가슴에 빛나고 무거운 훈장을 달아 줄 때도 눈물은 저도 몰래 솟구쳤다.

3일이 멀다하게 갖가지 보약제와 선물이 안겨질 때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다심하신 아버지사랑은 눈물의 샘을 터치게 했다. 조선로동당 창건 55돐기념 열병식장에서 보무당당히 나아가는 대오를 보면서,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목청껏 환호하는 인민들을 보면서 눈물은 솟고 있었다.

《동지애》, 《일심단결》, 《결사옹위》라는 해불로 새긴 글을 보면서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백전백승의 역사를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으로 펼쳐 보이는 그 앞에서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전

사된, 위대한 당의 동지된 공지와 행복에 눈물을 흘렸다.

천하대적앞에서도 호호탕탕 배심 있게 붉은기 높이 들고 선군혁명령도를 따라 강성대국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내 조국의 현실은 때없이 나의 심장에 당당한 자부심과 존엄의 뜨거운 물을 부어 뭉클 솟구치게 하는 전사의 행복한 눈물을 쏟게 한다.

꿈만같이 흘러간 나날속에 어느덧 21세기가 시작되었다. 이 나날속에 얼음같이 차디찬 감방속에서 다 얼어 붙고 자본주의사회의 메마른 토양속에서 다 말라 버렸던 눈물의 샘은 다시 솟구치기 시작했으니 그 흐름의 끝을 나는 모른다.

단순하고 어린 감정의 분출이 아닐진대 인간의 마음속에 굳어 저 쌓인 그 모진 장벽을 뚫고 참된 진리의 체험으로 저수되어 솟구치는 전사의 이 눈물은 피보다 진하고 내 녀의 글발이 무겁게 어려있다.

믿음과 사랑에 보답해 나가는 량심과 의리의 나날속에 앞으로도 헤쳐진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이 늙은전사를 대할적에 탓하지 마시고 리해해 주시기만 바라는바이다.

## 상식

# 인터넷홈페이지

인터넷홈페이지는 컴퓨터(전자계산기)망을 국제적으로 형성해놓고 임의의 시각에 서로 볼수 있게 해당 내용들을 편집하여 기억시켜 놓은 컴퓨터의 문서들을 말한다.

이 문서가 개인들이 보기 위하여 컴퓨터에 기억시켜 놓은 일반문서들과 다른것은 세계에 있는 수많은 개인 또는 기관, 단체, 나라들의 컴퓨터들을 국제적인 망에 가입시켜 놓고 거기에서 개인 또는 기관, 단체, 나라들이 보고 싶은 내용을 쉽게 받아 볼수 있게 국제적표준통신규약에 따라 편집되어 있는 점이다.

인터넷(국제적인 컴퓨터망)에 가입되어 있는 컴퓨터들은 사람들의 우편주소처럼 자기의 고유주소들을 가지고 있다.

이 주소는 나라, 기관, 단체, 개인 등을 포함하는 글자들로 되어 있으며 이 주소는 나라 또는 지역들에 있는 인터넷봉사센터에서 정해 준다.

그리고 홈페이지(기억시켜 놓은 컴퓨터의 문서)들을 볼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브라우저》라고 한다.

이 《브라우저》를 가동시킨 다음 주소판에서 보려고 하는 대상주소를 선택하면 거기에 기억되어 있는 홈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난다.

이 홈페이지의 중요특징은 각자가 보고 싶어하는 기본문서를 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문서를 또 보려고 할 때에는 련관문서항목을 다시 찾으면 그 련관된 문서들이 화면에 나타나 문서와 자료들을 폭넓게 볼수 있게 하는것이다.

홈페이지의 다른 하나의 특징은 문자뿐아니라 도형(설계, 도안 등), 화상(사진, 그림 등), 음성(주요받는 말소리, 음악 등), 비디오(기록영화, 예술영화 등) 각종 폭넓은 자료들을 볼수도 있고 그련것을 편집하여 보낼수 있다는것이다.

인터넷홈페이지는 인터넷망에 가입되어 있는 다른 컴퓨터의 여러가지 문서와 자료들을 임의의 시각에 편리하게 찾아 볼수 있고 또 임의의 시각에 편리하게 자기 컴퓨터로 문서나 자료들을 편집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다른 컴퓨터에 마음대로 보낼수 있으므로 오늘 이것이 널리 리용되고 있다.



## 버드나무

리영환

주체84(1995)년 10월 X일

구룡천기슭은 아침부터 사람들이 벅적 끓었다. 서덜과 진펄을 파내고 양어못을 만드는것이다. 삽질, 곡괭이질, 질통군, 목고군... 곳곳에 기발들이 나뭇기고 숙보판들이 꽃혀 있다.

나는 질통을 지고 돌을 저날랐다. 시간이 갈수록 기운이 빠지면서 온몸이 나른해 진다. 그 누가 로동을 노래라고 했던가? 목에서 겨불냄새가 나고 얼굴이며 목덜미로 땀이 줄줄 흘러 내리는 데...

나는 기계적으로 발을 옮겨 쪼이며 서글픈 생각에 잠겼다. 내가 농장원이 되다니...

나는 아이적부터 무척 노래를 사랑하였다. 아나, 노래를 짓고 싶어 했다. 평양에서 나서 자라 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에서 손풍금을 타면서 작곡가가 될 꿈을 키워 왔다. 그후 중학교를 졸업한 나는 생활체험을 하고 대학에 갈 결심으로 건설사업소에 나갔다. 말은 로동을 한다고 했지만 거지반은 《기동예술선동대》를 따라 다니면서 손풍금을 탔다. 3년째 되는 해 군사복무를 하던 아버지가 제대되었다. 아버지는 평양에 배치 받았으나 고향으로 가는 길을 택하였다.

《일홍아, 난 군복을 벗었으나 마음의 군복만은 벗고 싶지 않구나. 지금까지는 총대로 나라를 지켰지만 이제부터는 농사일로 조국을 받들겠다.》

나는 슬그머니 맥이 풀리는것을 느꼈다. 적어도 세계적인 작곡가들과 어깨를 겨루는것이 나의 앞날의 꿈이었다. 평양과 음악대학과 스승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을것 같았다. 그런데 농촌으로 가면...? 여적 아버지한테 말대답 한번 해보지 못하고 자랐지만 나는 희망이 무시되는것 같아 다 자란 어른의 권리로 사정을 해보았다.

《아버지, 전 이제 석달후에 대학시험을 치려고 합니다.》

《알고 있다.》

뭘 안단 말인가? 그래 농촌으로 가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앞길이 막힌다는것을 알기나 한단 말인가? 대학에나 붙은 다음에라도 진출했으면 좋으련만... 나는 안된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너무도 억울하고 아수하여 다시 한번 애원하였다.

《아버지, 예술은 <수도예술>이라는 말이 있어요. 평양을 떠나면... 전... 작곡을 못합니다.》

《아니다. 평양에 있어도 지금처럼 <날라리>를 부려서야 무슨 음악을 제대로 하겠니?》

아버지는 미간을 쪼프리며 벽에 걸려 있는 파란색의 손풍금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켜던, 좀 낡기는 했지만 아직도 소리가 기막히게 좋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루어 오는 손풍금이다.

《일홍아, 할아버지는 도예술단에서 손꼽히는 연주가였지만 전쟁이 일어 나자 맨 먼저 전선으로 달려 나갔다... 그리고는 돌아 오지 못했다.》

나는 눈길을 들어 손풍금 조금 위에 걸려 있는 젊었을 때의 할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쌍가풀진 눈, 고운 반달눈썹, 왼쪽의 볼우물... 척 보기엔 너자들처럼 아름다와 보이나 낯선 코마루와 빠른 턱때문에 약간만 옆으로 보아도 무뎠히 까다롭고 날카로운 인상을 준다. 격세유전이라고 사람들은 내가 신통히 할아버지를 빼물었다고 한다. 사진속의 할아버지는 무엇이 즐거운지 웃음을 짓고 나를 굽어 보며 아버지의 분부대로 하라고 타이르는듯 싶었다.

이렇게 나는 아버지의 고향으로 왔다.

배움의 창가에서 피아노를 두드려야 할 내가 오늘은 땀 배인 질통을 지고 헐떡이고 있다.

나는 아버지를 원망한다. 아버지가 아들의 앞날에 대하여 조금만 관심해 주었어도 운명은 달리 되었을지도 모른다.

고향에 돌아 온 날 저녁 아버지는 집에 찾아온 진득현리당비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난 이 녀석을 리당비서에게 통채로 맡기겠수다.》

이것으로써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한듯 만족스러워 하는것이였다. 나는 그것이 싫었다. 제 자식 제가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무슨 쌀자루처럼 《맡기고》 어찌고 한단 말인가.

밤이 이슬하여 리당비서가 돌아 가자 아버지는 눈물이 글썽하여 말하는것이였다.

《내가 군대에 나간 다음 진득현비서는 홀로 사는 너의 할머니를 집에 데려다가 친어머니처럼 모셨단다... 난 이걸 잊을수가 없다.》

며칠후 아버지는 양, 염소를 방목하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 갔다.

(롱이 되어 오르던 고기도 한번 떨어 지면 다라는데 나는 인젠 끝이란 말인가?)

자기 생각에 옴해 걸고 있던 나는 그만 돌부리에 걸쳐 넘어졌다.

《앞을 보며 다니라구.》

누군가 내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돌아다 보니 질통을 진 진득현리당비서가 근심스럽게 나를

바라보며 서 있다. 그는 물었다.

《어디 아픈가? 아니라구. 그러면 힘든 모양이군.》

비서아바이는 나를 동무해 주려는지 천천히 걸었다.

《요즘 손풍금을 잘 안탄다면서?》

조용히 묻는 아바이의 말에 나는 목을 움츠렸다.

《그래서는 안되지. 재능이란 계속 닦아야 빛나는 법이야. 이제부터는 일터에 손풍금을 가지고 나오라구. 설참에 손풍금을 타면 농장원들도 좋아할거야.》

우리들은 돌을 쌓고 있는 쪽가에 이르렀다.

방축에는 어린 버드나무들을 거느린 늙은 버드나무 한 그루가 거연히 서 있었다.

실실이 가지를 드리운 거목의 밑둥은 풍상고초헤쳐 온 세월의 흔적인듯 터실터실 갈라 터졌는데 새둥지처럼 구새 먹은 자리에는 정성껏 땀질한 석회석덩이가 무슨 혼패처럼 박혀 있었다. 수천의 가지와 수많은 잎새로 풍치를 자랑하며 시원하게 그늘을 던지는 나무밑으로는 새들이 날아와 우짖고 사람들이 모여 와 땀을 들었다. 원래는 해방되는 해 우리 할아버지가 방풍림버드나무를 심었는데 한창 우거지던 버들숲이 전쟁때 다 타버리고 외로이 한그루만 살아 남았다고 한다.

우리들은 버드나무그늘밑에 들어 가 나란히 앉았다. 나는 부시력부시력 마라초를 마는 아바이를 바라보았다. 후리후리한 키에 랑귀가 보기 좋게 넘어 간 언덕이마, 무엇인가 은근히 빨아 들일듯한 약간 우묵할사한 재빛눈, 마루가 끝은 큼직한 코와 존엄 있게 다물린 듬직한 입... 그의 얼굴은 무척 호인스럽고 선량한감을 주었으나 바람과 별에 탄 거무스레한 살결과 앞으로 건뚱 들린 턱, 이마에 깊숙이 패인 주름살로 하여 어딘가 신경질적이며 거만기가 느껴 지기도 했다. 하지만 진득현비서는 조금도 거칠거나 딱딱거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누긋하고 부드러운서 만나는 사람들은 쉽게 자기 심정을 털어 놓고 싶어 한다.

이어 구수한 마라초냄새와 함께 담배연기가 그물그물 피여 오른다. 비서아바이는 간혹 사람들이 러과담배를 권하곤 하지만 자기가 심어 가꾼 향초를 즐겨 피운다. 아바이는 물었다.

《일홍인 대학에 못 갔다고 락심한다면서...?》

내가 대답을 피하자 아바이는 머리를 저었다.

《꼭 대학엘 가야만 작곡을 할수 있는건 아니야. 어떤 경우엔 로동생활이 더 큰 밑천이 될수도 있어. 중요한건 희망을 버리지 않는게야.》

아바이는 여기저기 파헤쳐 진 양어못들과 고기비늘처럼 장식을 입히는 제방뚝을 둘러 보며 말을 이었다.

《내 이야기 하나 할가. 20여년전에 있던 일이야. 그때 우리 마을에 유명학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어. 그는 새 품종의 밭벼를 연구한다면서 시험포전을 만들어 놓고 늘썩 거기에 붙어 살았어. 사람들은 그를 도깨비라고 불렀지. 오죽하면 잔치날밤 우박이 내린다고 하자 새색시도 버리고 시험포에 나가 밤을 밝혔겠나.

사람들은 그가 생활을 모른다고 비웃었지만 나는 속통 있는 사나이는 그쯤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일이 안될 때라 유명학의 안해는 딸 하나를 낳아 놓고 병으로 세상을 떠났네. 참...

사람들은 이제 그가 시험에서 손을 떼겠거니 생각했네. 그런데 유명학은 방금 돌이 지난 딸애를 품에 안고 나를 찾아 와 말하더군.

<비서동지,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논벼농사가 잘 안되는 산간지대에서는 밭벼를 심어야 한다고 여러번 교시하셨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골고루 흰쌀밥을 먹이려는 수령님의 이 간곡한 말씀을 우리는 아직 관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서동지, 절 대학에 보내주십시오. 좀더 배우면 꼭 성공할수 있습니다. 전 수확이 높은 벼를 만들어 내기 전에는 절대로 물러 서지 않겠습니다.>

난 그 사람을 대학에 추천해 보냈어.

그는 대학을 나왔고 지금은 도농업과학봉원에 서 연구사로 일하고 있네. 독신으로 말일세.

일홍이, 희망이 있는 사람은 이쯤 돼야 해. 난 일홍이도 그 사람처럼 끝장을 보길 바래. 이 땅에 대하여, 이 땅을 가꾸어 가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한번 좋은 노래를 지어 보라구.》

나의 지향을 리해하여 주고 분발하라고 채찍질하여 주는 아바이가 고맙다. 하지만 촌구석에서 새라새롭게 형상수준이 높아만 가는 도시의 노래들을 따라 가내겠는지 막연하기만 하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리당비서의 딸인 상금이가 나의것인 파란 손풍금을 메고 다가왔다.

《아버지, 명령대로 손풍금을 가져 왔습니다.》

얼굴도 동그랗고 눈도 동그란 처녀는 호들갑스럽게 깔깔거렸다. 키가 구척 같은 아버지와는 판관 다른 모습이다. 처녀는 어인일인지 대학에 가지 않고 나처럼 농장원이 되었다.

로동지도원이 메가폰으로 휴식을 알렸다. 그러자 리당비서는 사람들에게 버드나무밑으로 오라고 소리쳤다. 농장원들이 모여 오자 그는 딸에게 말했다.

《그 손풍금은 일홍에게 줘라. 그리고 너는 노래를 불러라. 거 있지. <...오고 가는 길손들도 부러워 하는...> 그것 말이다.》

상금이는 돌아서며 입을 삐죽뚫었다.

농장원들이 박수를 쳐대며 빨리 하라고 못 살게 굴었다. 나는 천천히 바람집을 늘구면서 상금이쪽을 바라보았다. 처녀는 이어 결심을 한듯 빨간 머리수건을 모두어 잡고 노래를 불렀다.

통통하게 생긴 상금의 입에서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흘러 나오는지 모르겠다. 처녀의 청아한 목소리와 조화를 이루며 나의 손뽕금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갔다. 노래소리가 점점 흥겨워 지자 지금까지의 피곤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온몸에 새힘이 솟구친다.

농장원들은 건반을 눌러 대는 나의 손놀림을 흘린듯 바라보며 저희들끼리 수군거렸다.

《우리 농장에 딱 소리 나는 복덩이가 굴러 왔어.》

《농촌에 묻히긴 아까운 재간둥이야.》

《한두해 지나면 또 어디선가 뽀아 가겠지.》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지만 몇해 일하고는 가졌구나 하는 의혹의 빛은 감추지 못했다. 이따금 상금의 눈길을 마주치곤 했는데 유독 그 처녀의 눈빛만은 다른 말을 하는 것이었다.

《안가지요?... 안가지요?...》 하는듯.

나는 그 물음에 자신있게 대답할수 없는 자기를 발견하고 놀랐다. 내가 왜 뭣뭣이 대답할수 없을가?

《거, 손뽕금소리 듣기 좋다. 오금이 다 쪽 풀리는군. 재청이야, 재청...》

비서아바이는 흡족하여 저 혼자 투덕투덕 박수를 쳤다. 모름지기 나를 사람들앞에 내세워 주려는것 같다. 순간 나의 눈길은 저도 모르게 속보판으로 날아 갔다. 《천일홍, 질통을 메고 두뭇세뭇...》 라고 쓴 글발이 확 안겨 온다. 어쨌든 못한다는 소리보다는 싫지 않다. 힘들게만 생각되던 농촌일이 이 순간에는 즐겁게 여겨 졌다. 새힘을 준 비서아바이가 고맙다. 그가 곁에 있어 주면 생활은 흥겨워 지고 앞날은 쉽게 개척될것 같았다.

나의 가슴속에서는 작곡가가 되려는 희망의 새가 다시금 나래를 펴고 푸덕이며 날아 올랐다. 그래서 더 신나게 건반을 눌러 댔다. 손뽕금소리는 처녀의 노래소리와 어울려 웅기송기 솟은 산봉우리를 지나 하늘가로 끝없이 울려 갔다.

주체85(1996)년 5월 X일

양어장의 파란 물우에 쪽배 한척이 뗏다.

나는 뒤편에 앉아 노를 저었고 상금이는 코승이에 서서 씨조개를 뿌려 나갔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에 물결이 찰랑거리고 처녀가 쓴 빨간머리수건이 기발처럼 나뭇긴다. 물속에서 웃음지은 처녀의 얼굴이 나를 바라본다.

나는 가슴이 흐뭇하여 양어장을 둘러 보았다. 규격포전처럼 네모반듯한 8개의 고기못이 구룡천 동쪽에 잇대여 주련이 누워 있다. 물안개 피어오르는 못가에는 애어린 버드나무를 거느린 늙은 버드나무가 명상에 잠긴듯 서 있다. 작년에 자갈밭을 추어 낼 때에는 언제 양어장이 되겠는가 했는데 다 꾸려 놓고 보니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답다.

나는 양어장의 립시분조장이 되었다.

상금이는 힘껏 팔을 휘둘러 씨조개를 뿌렸다. 파란 물우에는 봄을 맞으며 가져다 넣은 오이씨같은 고기새끼들이 은모래처럼 반짝이며 떠다녔다.

나의 마음은 저절로 부풀어 올랐다. 그도 그럴법, 오늘 신문기자들이 사진을 찍으러 오기때문이다.

머칠전에 진득현비서는 농장의 초급일군들을 데리고 양어장에 와서 협의회를 하였다.

《...지금 어떤 곳에서는 독을 쌓고 물을 잡아놓고는 양어를 한다고 큰소리 치고 있는데 우린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어제 산너머에 있는 인민군부대양어장에 가보았습니다. 메기, 칠색송어, 기념어, 잉어... 굉장합니다. 게다가 바닥엔 조개와 우렁이들이 짝 깔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군대들처럼 립체양어를 하자는 겁니다. 우리 양어장을 취재하러 기자들이 온다는데 요만큼 꾸려 놓고 만족해서야 안되지요.》

어제 나는 상금의와 함께 군대양어장에 찾아가서 골뱅이며 씨조개를 얻어 왔다.

춤을 추듯 조개씨를 뿌려 던지던 처녀가 갑자기 가슴을 보듬어 안으며 흥분하여 왜쳤다.

《일홍동무, 왜 그런지 어제 구경 갔던 군대양어장이 자꾸 생각 나는구만요. 물우엔 팔뚝같은 고기들이 씨글거리고 바닥엔 주먹 같은 골뱅이들이 짝 깔리고... 얼마나 볼만 했어요.》

처녀는 두눈을 사르시 감으며 두팔을 벌렸다.

《우리 양어장도 앞으로 그렇게 되겠지요. 그날을 그려 보면 막 가슴이 부풀어요... 난 정말이지 한생애 이 양어장과 함께 살고 싶어요.》

처녀는 다시금 두손으로 가슴을 꼭 눌러 짚으며 곱게 나를 흘려보는 것이었다. 이어 실망한듯 맥없이 중얼거린다.

《그때면... 일홍동문... 가겠지요?》

나는 정통을 찢리운듯 흠칠했다. 하필 그걸 꼬집어 물을건 뭐람, 하지만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다.

《그래, 난 가고 싶어.》

상금이는 살포시 한숨을 내그었다. 찰랑거리는 물소리만이 배전을 두드렸다. 이번에는 내가 처녀의 속을 들여다 보고 싶어 물었다.

《언제부터 묻고 싶었는데 상금인 대학 왜 안갔어?》

《그건 왜 물어요?》

《그저 알고 싶어서...》

처녀는 곱게 눈을 흘기며 어리광치듯 반말을 했다.

《그건 아버지때문이야. 아버지 낄 보구 자꾸 대학 가라지만... 어디 가게 됐어.》

처녀는 조개를 뿌리며 새처럼 조잘거렸다.

《우리 아버지 고향을 위해 일생을 다 바쳤어요. 젊었을 땐 우리 마을에 벼가 없다고 새 종자를 얻어 온다, 논을 쏘다 뛰여 다니고 벼농사를 하게 되자 이번엔 사과, 배가 없다고 과일나무심기에 땀을 뿌리고... 늘그막엔 또 물고기... 이제 양어에 한몫을 다 태워 버릴거예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일만 하니 속탈이 자꾸 도져요. 밤엔 끽 끽 앓음소리를 내고 아침엔 식사도 안하고 일터로 나가고... 그러니 제가 학교엘 가게 됐어요. 나라도 곁에서 아버지 돌봐 드려야지. ... 그래서 난 군대 간간 오빠가 돌아 오면 그때 대학 가겠다고 했어요.》

정성이 지극한 딸이다. 상금이는 배전에 쭈그리고 앉아 장난치듯 손바닥으로 노를 저었다.

《아버진 어제 도에 회의 갔다가 작곡가동맹에 들러 <새 노래 작곡현상모집요강>을 베껴 왔더군요. 일흥동무 즐겨요.》

나는 가슴이 후두두 뛰는것을 느꼈다.

《일흥동무도 한번 거뵈 보라요. 이 양어장에 대한 노래를 지으면 정말 멋 있을것 같아요.》

나는 가슴이 울렁거리면서도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체 했다.

《동문 꼭 아버지처럼 말하는구만. 창작이 뭐 그렇게 쉬운줄 알아.》

《그러게 우리 아버지가 <지원포>를 쓰지 않아요. 이번에 새 노래카세트랑 새로 나온 영화주제가집이랑 한가방 사왔더구만요. 어쨌면 나보다 일흥동무 더 사랑하는것 같아요.》

상금이는 가르르 웃었다. 나는 처녀가 나를 놀리는것 같아 능청스럽게 룡말을 했다.

《그건말이야, 이제 크거들랑 나를 사위 삼고 싶어 그대. 상금인 그제 싫어?》

처녀는 얼굴이 새빨개서 내 가슴을 두드려댔다.

《어야, 뻔뻔스럽다. 동문 정말...》

나는 처녀를 혼내 주려고 배를 마구 흔들여 댔다. 상금이는 어쩔줄 몰라 하며 울상이 되여 고아댔다.

《콩나물대가리야, 가만 못 있겠어. 누가 봐.》

《보면 뭐래, 사람들이 우리 사이를 다 아는 데...》

갑자기 2호못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 왔다. 뒤돌아 보니 진득현비서가 사진기를 멘 청년과 함께 우리쪽으로 오고 있다. 당황한 상금이는 창피했던지 나를 꼭 밀쳤다. 무방비상태에 있던 나는 그만 뒤로 나자빠졌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나를 보고 비서아바이는 또 한바탕 웃어 댔다.

《당장 사진을 찍어야했는데... 풀 좋겐 됐구나...》

주체85(1996)년 12월 X일

눈이 내렸다. 못가의 버드나무우에도 흰 눈은 소리없이 내려 앉았다.

진득현비서와 웬 로인이 눈썹이 하얗게 피어난 버드나무 주위를 말없이 빙빙 돌았다.

로인의 자그마한 몸매는 짙고 서있는 단장처럼 메마르고 가냘파 보이는데 코끝에 미끄러지게 내려쓴 은테안경알속에서는 사색과 지혜가 엿보이는 록두알 같은 두눈이 지혜롭게 반짝이었다. 로인은 양어장에서 얼음구멍을 까고 있는 나와 상금이를 유심히 살펴 보곤 하였다. 오늘 우리는 물고기들의 공기같이구멍을 까내는 일을 했다.

두 사람은 다시금 버드나무주위를 빙빙 돌았다.

《뿌드득-》 《뿌드득-》 눈 밟히는 소리가 우리 귀에까지 들려 왔다.

상금이가 그쪽을 가리키며 소곤거렸다.

《저분은 농업과학원의 유명학연구사예요.》

《동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 아버지 사진첩에 붙어 있어요. 아버지 저한테 늘 저 선생 이야길 들려 주곤 했어요. 뜻이 높고 의지가 강한분이라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 새벼에 성공하면 박사가 된대요.》

로인은 버드나무에 등을 기대고 우리쪽을 바라보았다. 나는 왜 그런지 그에게 동정이 갔다. 아무리 명예를 얻은들 딸까지 버리고 혼자 사는 생활에 무슨 행복이 있으랴.

로인은 진득현비서와 이야기를 나누며 자주 그리고 흘린듯 우리들쪽을 바라보곤 하였다.

《동무도 저 선생처럼 한번 이름을 떨쳐 보라요.》

처녀는 새물거리며 나의 승벽심을 건드린다.

나의 가슴속에서는 이상한 분발심이 솟구쳤다.

...나는 저녁술을 놓기 바쁘게 웃방으로 올라가 록음기를 틀었다. 가을의 환희를 형상한 농악소리가 흥겹게 흘러 나온다. 은은한 저대소리, 경쾌한 새납소리, 박력 있는 타악기의 울림과 장쾌한 징소리, 밀바닥에 시내물처럼 흘러 가는 현악기의 부드러운 음향...

밤은 깊었으나 황홀하고 신비한 음악의 세계는 나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다. 천리마대고조시기에 즐겨 부르던 노래들이 내 심장을 두드려 댈다. 강선의 쇠물이 뚫는것 같다. 청산리의 벌이 춤추는것 같다. 평양의 거리가 하늘높이 일떠서고 비단폭포, 석탄폭포, 물고기폭포가 사태처럼 쏟아 진다.

불시에 눈시울이 달아 오르며 수령님생각이 난다. 그 시절 우리 인민들은 그리운것, 부러운것없이 잘 살았으며 오직 일밖에 몰랐다. 로동과 생활이 그대로 명작이 되여 흘러 넘쳤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 내린다. 어버이수령님의 생각이 간절해 지자 한분밖에 안계시는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북받친다. 이 밤도 장군님께서는 쪽잡과 꿇기밥으로 천리전선길을 이어 가실 것이다.

아버이수령님을 가슴속에 모시고 사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더 잘 받드는 길이다.  
(내 장군님께 기쁨 드릴 노래를 지을수는 없을가.)

...저기 산으로 가자, 저기 바다로 가자...

청춘의 노래, 사랑의 노래, 벅찬 로동의 희열이 나를 이끌고 머나먼 세계에로 줄달음친다.  
펜을 든 나의 손은 줄기차게 오선지우를 내달린다. 인상에 남는 선율들을 채보도 하고 편곡도 해본다.

문득 손길을 멈추고 제나름의 창작적환상에 잠겨 본다. 못가의 버드나무... 눈보라 울부짖고 비바람 몰아 쳐도 버드나무는 갈기를 날리며 역세게 서 있다. 뒤 이어 《뿌드득-》, 《뿌드득-》 들려 오는 눈 밟히는 소리... 하얀 눈을 뒤집어 쓴 버드나무주위를 진득현비서와 유명학연구사가 말없이 거닌다. ... 그 무엇인가가 내 심장을 흔들며 지나 가건만 그 흥분점이 무엇인지 딱히 이름할수 없다. 안타까운 창작적번민을 안고 또 한밤을 지새운다. 졸음이 몰려 온다. 게다가 저녁에 죽을 먹은 탓인지 배가 꼬르륵거린다.

얼마전부터 집집들에서 쌀 떨어 저 간다는 소리가 쉬쉬 나돌았다. 처음 사람들은 당황하고 놀라와 했지만 생활이 늘 이렇겠는가? 좀 참으면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좀처럼 궁한 티를 내지 않았다.

나는 서서히 다가온 허기증과 무력감에서 벗어나려고 더 지긋게 음악감상에 달라붙었다. 노래를 듣느라면 그래도 피곤과 배고픔은 사라져 버리고 앞날의 희망이 손 저어 부르는상 싶었기때문이다. 이렇게 한두해 더 일하면 당비서가 대학에 보내줄것이다. 《벼도깨비》를 대학에 보내주듯...

그런데 요즘 진득현비서가 해임된다는 소리가 돌아 갔다. 이것은 은근히 불안의 구름을 몰아왔다. 여적 나의 지향을 리해하고 떠밀어 준 그가 그만 두면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 이 심정을 누가 그만큼 알아 주겠는가? 그를 한번 찾아 가볼가?

주제87(1998)년 4월 X일

《우여- 도치- 도치-》

나는 양어장둘레의 사료밭을 갈아 나갔다. 앞에서는 누렁황소가 뿔이 휘여 든 암소와 나란히 가대기를 끝었다. 나는 두팔에 힘을 주어 보탑을 틀어잡았다. 보습날밀에서 자갈이 섞인 검붉은 흙이 뒤번져 진다. 청명이 지난 뒤라 한낮의 날씨는 무더웠다. 잔등으로 땀방울이 굴러 내렸다. 바지가랭이를 무릎까지 걷어 올리고 맨발로 흙을 밟아나가노라니 뜨겁고도 보드라운 촉감이 발을 간지럽히며 자연의 숨결을 속삭여 주는듯 싶다.

건똥 한줄금 바람이 불어 오자 흙냄새와 풀냄새와 소똥내와 함께 내 몸에서 풍기는 진한 땀냄새가 류벌나게 코를 찌른다. 이것은 마치도 나의 생명이 자연과 가까와 지고 도시에서 자란 생활과 멀어 저 가고 있다고 귀뜸하는것 같았다. 하긴 오늘의 나는 대동강유보도를 거닐던 꿈 많고 공상 많은 책상물림의 청년이 아니었다. 이제는 농촌에 온지 3년이 지났다. 그동안 무슨 일인들 안해 보았으랴. 양어장일이라고 하지만 태반이 농사일이었다. 덕담이 센 아낙네들속에 섞여 사료밭의 김도 땀고 풀베기도 했으며 대진내 풍기는 장정들한테서 삽질, 낫질, 후치질을 배웠으며 질통도 지여 보고 진거름달구지도 끌고 다녀 보았다. 손이 부르르고 흙 묻은 장판지가 터져 피가 흐르기도 했다. 밤에는 책상과 마주 앉아 졸음과 싸웠고 피곤에 몰려 늦잠을 자다가 끼니를 번진채 일터로 내뿜기는 그 몇번...

나는 모진 육체적고통을 참아 가며 로동이 무엇인가를, 이 땅의 재부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를 노력과 땀과 피로 체험하게 되었다. 재부의 아버지는 로동이고 재부의 어머니는 땅이다. 그 아버지, 어머니한테서 나도 보물을 만드는 법을 배웠다. 점차 나도 결코 연약하고 무기력한 인간이 아니라는 근로의 가치를 발견하였으며 사회를 위해 기여할수 있는 필요하고도 무진장한 힘이 뜨겁게 굵이치고 있다는것을 느꼈다. 이쯤 되면 로동과 생활의 의미를 알만큼 알고 준비될만큼 준비된것이 아닐가. 몰라 보게 달라 진 자기를 돌이켜 볼때 무척도 자랑스럽고 긍지롭다.

《마라- 마라-》

발머리에서 보습날을 건똥 들면서 돌아 서려고 하는데 황소가 우뚝 멈춰 선다. 허를 빼문 입에서 느낌이 줄줄 흘러 내렸다.

(제기, 좀 쉬자는게지. 이 우둔한 꾀보야.)

나는 채찍으로 보기 좋게 후려 치려다가 그만 두었다. 황소를 때리면 그놈이 자기의 《너동무》 앞에서 얼마나 창피해 할것인가.

(그래, 좀 쉬자. 나도 힘들다.)

나는 소의 멍에를 벗기며 중얼거렸다.

(네가 뜯어 먹을 풀도 변변히 있는것 같질 않구나.)

나는 버드나무밑으로 가서 벌렁 드러누웠다. 온몸이 나른해 지면서 금시 땅속으로 잤아 드는 상 싶다.

나는 오늘아침에도 풀죽으로 끼니를 예우고 나왔다. 차차 나아 지겠지 하고 생각했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만 간다.

저 멀리 고성기에서 남성가수가 부르는 발갈이 노래가 들려 왔다. 흥겹게만 들리던 노래소리였지만 지금은 즐겁지도 않고 어딘가 귀 설어 보였다.

버드나무에 한무리의 새떼가 날아 와 우짖어

됐다. 아무런 구김살도 없이 지지귀는 새들을 바라보며 나는 눈을 감아 버렸다. 그래도 한해전까지는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서 불편은 했지만 참을수 있었고 저녁이면 음악공부도 할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다르다. 제국주의자들의 고압압살책동으로 기름 한방울, 비료 한줌 사들여 오기 힘들었고 이상기후현상까지 겹쳐 농사도 잘 안된다. 설사 곡괭이로 땅을 두지고 등어리로 가대기를 끄는 한이 있어도 제 손끝으로 낱알을 만들고 물고기를 길러야 했으며 등잔불밑에서 글을 읽고 신발을 기워 신어야 했다.

간고하고 험난해도 사람들은 묵묵히 시련을 헤쳐 나갔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바라시던 세상, 우리 인민들을 어떻게든 더 잘 살게 해주시려던 평생의 소원, 그 유훈을 받들기 위해 수령님생전에 다녀 가신 현지사적의 길을 따라 전선길, 농촌길... 끊임없이 이어 가시는 장군님의 축가신 얼굴을 생각하며 인민들은 억세게 살려고 애썼다.

어제와 판판 달라진 생활환경을 돌이켜 볼 때 나는 생각이 깊어 졌다.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곤난은 참을수 있을것 같은데 농촌에 오래 있으면 목적했던 음악의 길에서 자주 멀어 질것이라는 위구가 조바심쳤던것이다. 지금쯤 동창생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마음껏 자기의 재능을 시위할것이다. 좀 있으면 그들은 나를 아득히 떨구어 버릴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가야 하지 않을까?

《따르릉-》

방축길에서 자전거종소리가 울렸다. 진득현비서가 땀을 흘리며 내가 있는 버드나무밑으로 자전거를 끌고 내려 왔다.

《어, 더워라. 땀 좀 들었다 갈가?》

아바이는 자전거를 세워 놓고 가방에서 두툼한 종이봉투를 꺼내어 내밀었다.

《어제 도에 회의 갔다가 이걸 찾아 왔다. <양어장의 달밤>...》

《양어장의 달밤》은 내가 째짤이 습작하여 작곡가동맹에 올려 보냈던 노래이다.

《노래에 정서도 있고 랑만도 있고 창작가의 재간도 느껴진다고 하더라. 그런데 어려운 시기를 이겨 나가는 시대적감정이 잘 안겨 오지 않는데. 참 그안에 편지가 있다.》

나는 서둘러 편지를 꺼내 읽었다. 곤난을 맞받아 나가는 기본선물을 잘 살려 보라는 고무의 편지였다. 은근히 창작적흥분이 살아 오른다.

양어못에서 손바닥만한 패랭이가 뛰여 오르며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자 고르르한 고기들이 거품내기로 뛰여 오르며 씨글거렸다. 아바이는 그 모양을 바라보며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고기들이 왜 저렇게두 안클가?》

아마도 고래만큼 커지기를 바라는 모양이다.

《먹이를 광광 줘야 살이 찌겠는데... 일흥이, 올해 사료농사를 한번 잘해 보라구.》

아바이는 유감스럽다는듯 입을 다시며 자전거를 돌려 세웠다. 나는 저도 모르게 아바이의 앞을 막아 나섰다. 언제부터 한번 찾아 가 보려고 했는데 마침 만났다. 아바이는 놀라운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냐?》

나는 용기를 내어 단도직입적으로 들어댔다.

《저를... 대학에 보내주십시오.》

조급한 나머지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뱉아 버렸다.

《비서동지가 그만 둔다는 소리가... 돌기에...》

아바이의 눈이 순간에 떠쥔해 졌고 순간에 노염으로 번쩍했다. 높아 지는 숨결을 가누며 서운한듯 뇌이였다.

《그러니 내가 비서를 그만두기전에 대학추천을 해달라는거겠구나?》

침묵, 정적... 소슬바람에 실려 오는 비릿한 냄새...

《일흥아, 넌 림시분조장이다. 주인인 네가 가면 양어장일이 어떻게 되겠니?》

나 하나 없다고 양어장일이 기울어 지겠는가?

《그리구 대학엔 비서가 보내고 안보내는데 아니야. 때가 되면 가는게지. 때가 되면 말이다.》

때? 무슨 때가 안됐다는걸가? 그래 3년간 땀 흘린것이 적단 말인가? 그렇다면 얼마나 더 많은 땀을 흘려야 하고 무엇을 더 알아야 한단 말인가? 작곡이야말로 청춘을 놓치면 안되는게 아닌가.

《일흥아, 저 양어장을 보니 생각이 깊어 지는구나.》

아바이는 목 갈린 소리로 말을 이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우리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먹이려고 그토록 애쓰시였다. 그런데 우린 아직...》

못가에 서있는 큰 버드나무가 우수수 설레었다.

주름이 얼기설기 모인 아바이의 눈귀에 이슬같은것이 번쩍했다.

《일흥아, 이제 물고기를 잘 길러 농장원들의 식탁에 오르게 될 때... 그때면 너는... 뗏뗏이... 제 갈 길을 가게... 될것이다.》

리당비서는 마지막말을 몹시 힘겹게 내뱉고는 자전거를 끌고 비칠비칠 걸어 갔다.

나는 맥이 풀리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일껏 버려 온 희망이 산산이 깨여 저 버리는것 같았다.

주체87(1998)년 5월 X일

진득현아바이는 양어분조장으로 자원하여 왔다. 그는 첫날 모임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물이 있다고 고기들이 저절로 자라는것은 아닙니다. 고기들이 씨원하게 크질 못합니다. 이제부터 먹이생산에 힘을 집중해야겠습니까. 우선 사료밭을 잘 관리하고 발효탕크를 하나 건설해야겠습니까. 닭똥을 모아다가 풀과 섞어 발효시켜

먹이면 강냉이와 맛먹는다고 합니다. 이걸 공짜와도 같습니다.…」

나는 아바이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아바이는 왜 여기로 왔을까? 지금까지 헌신한 공로만 해도 여생을 편히 보낼수 있겠는데 제일 힘든 분조장일을 맡아 나섰을까? 또 리당비서 하다가 분조장 하기가 창피하지 않을까?

어쨌든 나는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대학에 보내주지 않았다는 원망이 은근히 살아 났다.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어떻게 매일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수 있을까? 차라리 다른데 가겠다고 할까? 저 먹긴 싫고 남 주긴 아깝다고 그것도 들어 주지 않을것이다.

《우리 양어장에 동무만한 젊은 로력이 있소? 좀 참소.》

이러겠지. 구실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날부터 발효탕크건설은 시작되었다.…」

※추기

후에 들은데 의하면 진득현비서는 군당책임비서를 찾아 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제 나이 이제 예순여섯입니다. 우리 부비서 동무가 젊고 능력이 있으니 사업을 인계하도록 해주십시오.》

40대의 팔팔한 책임비서는 웃음속에 그 말을 부정했다고 한다.

《늙었다는 조건이 해임의 리유로야 되지 않지요, 벌써 투항하십니까?》

《아니 아니, 그런건 아니구요. 내 물고기를 한번 잘 길러 보고 싶어 그러지 않습니다.》

난 지금까지 수령님께서 하라는 일은 다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기르는 일만은 아직 끝 맺지 못했습니다.

책임비서어른… 내가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도록 좀 도와 주시우.

난 양어장에 물고기때 득실거리게 해놓고 죽자는거우다.》 진득현아바이의 그 진정에 목 메여 책임비서는 그의 요구를 들어 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그때 아바이의 그 절절한 소원을 모르고 있었다.

주체87(1998)년 7월 X일

저녁이라야 나박김치에 범벅뿐이어서 먹고 싶지 않아 나는 웃방으로 올라 가 누웠다. 어느때 같으면 록음기라도 틀어 놓고 노래라도 들으련만 그것도 싫다. 모든 의욕이 썩 사라지고 모든것을 체념하고만 싶다. 이제 또 밤작업을 나가야 한다.

진득현아바이가 분조장으로 오더니 밤낮없이 일이다. 양어장관리, 사료발농사, 발효탕크건설…」

이 많은 일감을 몇이서 해내자니 두뭇세뭇 땀이 처럼 돌아 처야 했다. 굵어 부스럼 만든다고 조용하던 양어장이 아바이때문에 괜히 북이운다고 입 빠른 아낙네들이 먼저 토달대기 시작하였다. 힘들어, 왜 분조장으로 와서 못 살게 군담.…」 그때면 물관리공아바이가 점잖게 녀인들을 타이르

군 했다.

《힘들어도 좀 참읍시다요. 그래도 우리가 제 땅에서 나는 벼와 사과, 배를 먹을수 있게 된건 다 비서아바이의 노력때문이었지요. 저 아바이가 하자는대로 하면 이제 물고기도 먹을수 있게 될거우다. 자, 그날을 그려 보며 웃으며 삽시다.》

예로부터 배살이 피어야 낫살이 퍼인다고 하였는데 아무리 참는다고 한들 배 고픈것과 어떻게 타협한단 말인가?

나는 밤일을 나가기 싫어 이불을 뒤집어 썼다. 생활률조가 파괴되고 갈수록 일이 뻔뻔 꼬여만 나간다. 살아 가기도 힘든데 무슨 작곡이냐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자신으로서도 간고한 창작의 길을 끝까지 가낼수 있겠는지 의심스러웠다.

여기저기서 나를 칭하는 잔치집이 늘어갔다. 그러면 나는 대사집에 가서 손풍금을 퐁작거리며 사람들의 흥취를 돋구어 주군 했다. 일흥이 없는 잔치집도 잔치집인가 하는 소리까지 나돌았다. 듣기 좋았다. 신랑신부가 부어 주는 술을 마시고 비칠거리며 돌아 오는 밤길은 더 멋 있었다.

《일흥이 있나?》

내또래 파수분조장이 찾아 왔다.

《오늘 분이네 할머니 생일 일흔뉘야. 가서 축하해 줘야지.》

나는 귀맛이 동했으나 밤일 나가는것때문에 잠시 망설였다. 《에라, 모르겠다. 밤일이고 뭐고… 될대로 되라지.》

나는 손풍금을 메고 일어나 분이네 집으로 갔다. 그 판에 끼여 드니 괴로운 마음도 사라져 버린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좋다, 기분이 뜬다. 이 좋은걸 괜히 책상에 마주 앉아 고달프게 머리를 쥐어 뜯을건 뭐람? 희망때문이었지. 희망? 희망? 이렇게 놀음판에 미치면 나의 앞날은 어떻게 된다던가? 모르겠다. 운명에 맡기자.…」

나는 또 마신다.

밤이 이속하여 마당을 나서는데 분이의 4촌오빠라는 군문화회관 부원이 넋지시 말을 건넸다.

《동문 기막힌 재간을 가지고 있구만. 우리 회관에 오지 않겠어?》

나는 취중에 예술소조가 시시하게 생각되어 머리를 저었다. 곱슬머리 부원은 금이발을 반짝이며 달콤한 말을 굴렀다.

《재능은 제가 타고 나지만 제 마음대로 할수 없는 사회적재부요. 제 재능이라고 재세하며 썩이는건 죄악으로 돼. 알겠어? 우리한테 오라구. 여기 사람들은 재간을 쓸줄 모르누만… 막일을 시키다니. … 내가 리간부들을 만나볼까?》

《그만두라요.》 나는 비칠거리며 집으로 향했다.

취해서인지 구룡천 방축길이 땡기오리처럼 좁게만 보인다. 별도 없다. 장마철이라 불어 난 산골물이 짹짹 소리치며 무섭게 흐른다.

나는 그만 발을 헛디디여 넘어졌다. 어깨에 뒹돈 손풍금이 벗겨지며 경사지를 따라 굴러 내렸

다.

한동안 얼며름해 있던 나는 손퐁금이 《철병》 물속에 빠지는 소리를 듣고야 정신을 차렸다.

(아, 손퐁금?!)

나는 술에서 말끔히 깨여 나 허둥대며 물속에 뛰여 들었다.

(안된다. 잃어 버려서는 안된다.)

나는 물살에 떠내려 가지 않으려고 허우적거리며 손퐁금을 찾았다. 돌덩이며 나무토막들이 사정없이 장판지며 허리를 후려 친다. 물을 팔각팔각 먹으면서 한참동안 신고해서야 손퐁금을 찾았다.

했건만 손퐁금은 돌덩이에 짓이겨져 다 망그러졌다.

나는 깨여 진 손퐁금을 그러안고 어둠속에 우렛이 서 있는 버드나무밑에 가 쓰러져 목 놓아 울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의 유물을…》

주체87(1998)년 8월 ×일

《삐그덕- 삐그덕-》

달구지는 몹시도 힘겹게 굴러 갔다. 읍에 있는 닭목장에서 닭똥을 싣고 돌아 오는 길이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었다. 비옷을 입었지만 몸이 끈끈하고 오솔오솔 떨려 난다. 추위가 물러가자 이번엔 허전함이 엄습한다. 땀없이 찾아드는 이 공허감은 손퐁금을 망가친 그날부터 시작 된 것이었다. 할아버지의 유산, 아이적부터 어느 한순간도 떼여 놓은적 없는 나의 《길동무》, 가장 친근한 벗을 잃어 버린듯한 슬픔이 낮에도 밤에도 나를 괴롭혔다.

우울은 나날이 더해 갔다. 며칠전에는 현상음모에 올려 보냈던 《고향의 노래》가 되돌아 내려왔다.

고향을 가꾸 가는 서정적주인공들의 진실한 감정이 깔려 있지 않고 향토맛이 풍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뜩이나 위축된 나의 폐장속에 매운재를 휘뿌리는상 싫었다. 한껏 줄아 든 나의 가슴속에서는 그 어떤 창작적흥분도, 충동도 일어나지 않았다. 막 울고 싶었고 미쳐 버릴것만 같았다. 창작적인 환상이 사라져 버리자 양어장 일은 더 어렵게만 생각되고 생활은 아무 의미도 없이 흘러 가는것 같았다.

덜커덩… 달구지가 질척한 물흙타기에 빠졌다.

나와 황소가 아무리 웅을 썼으나 달구지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이때 지나가던 인민군대병사 두명이 다짜고짜 달구지바퀴에 어깨를 들이치는 것이었다. 달구지는 도랑에서 벗어 났지만 병사들의 웃은 흙투성이가 되었다. 내가 미안하다고 사죄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싱긋 웃어 보이고는 가던 길을 뛰여 가는 것이었다. 나는 병사들을 고마운 눈길로 바라우며 오래도록 서있었다.

《일흥이, 뭘 그렇게 덕천이 멀다 해서 바라보나.》

뒤 돌아 보니 진득현아버이가 달구지를 몰아

오고 있다. 아버이의 달구지에는 앞뒤발을 묶은 흰점박이 돼지 두마리와 울사과를 넣은 구렁들이 실려 있다. 100kg 거의 되는 돼지들은 아버지네 집에서 키우던 돼지다. 상금의 어머니 60돛생일 때 쓰겠다고 극성스레 키우던 돼지인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 싣고 나섰는지 모르겠다. 나의 속을 들여다 본듯 아버이는 변명 비슷이 중얼거렸다.

《사실 말일세… 저 도농업연구원에 있는 유명 학연구사가 얼마전에 실험을 하다가 폭발하여 병원에 실려 갔네. 그 사람이 지금 퇴원하여 온천료양소에 와 있네. 그래서 내 오늘 찾아 가 보려고 가는 길이야.》

왜서인지 아버이의 두눈은 허둥거렸고 얼굴은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붉어 졌다. 나는 무슨 쪼간이 있다고 넘겨짚었다. 그렇지 않다면야 면회를 간다면서 통돼지와 많은 과일을 싣고 가겠는가.

아버이는 흠뻑탁질한 나의 손을 띠여 보며 얼른 말꼬리를 돌렸다.

《손이 말이 아니구만. 어서 씻으라구. 손퐁금수한테야 손이 날개가 아닌가?》

나는 울적하던 심사를 데통스레 내뱉었다.

《농사군의 손이 그렇지요 뭘.》

아버이는 못마땅하게 노려 보며 괴롭게 신음소리를 냈다. 잠시후 나직하나 엄준하게 타이른다.

《임자, 요즘 왜 그래? 죽지부러진 새처럼… 손퐁금 없어 그래? 물론 귀찮은게 많을게다. 그러나 작곡이란 편안할 때만 하는게 아니야. 누군가는 성공은 자신을 불 태우는 힘이라고 썼더구나.》

남의 희망을 아껴 주고 이해하여 주는건 참으로 큰것이다. 그것이 진실이라면 얼마나 눈물겨운 일인가. 하지만…

《그리구 언제부터 내 꼭 말하려고 했는데 일흥이 술버릇 고쳐야겠어. 속 상해 먹는 술은 타락의 시초야. 그렇게 마시는 술은 사람도 재능도 다 먹어 치워. 땀땀이 자신을 총화하자고 해도 주저앉지 말아야지.》 《…》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마음을 안고 이 땅과 이 생활에 대하여 노래를 지어 보아라. 손퐁금은 어떻게 하든 내가 얻어다 주겠어.》

아버이의 말은 먼 우뢰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언제나 듣기 좋게 말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런 걱정과 위안이 싫다. 책임도 못질 동정의 말보다 차라리 혹독한 비난이 더 나을듯 싶다. 나는 더는 기대를 가지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

번개가 번쩍했다. 하늘은 더 컴컴하게 흐린다.

《큰비가 쏟아 지기전에 빨리 가보라구.》

아버이는 갈길이 바쁜듯 채찍을 내리쳤다. 팔 끝거리의 돼지를 싣은 달구지가 점점 멀어져 갔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을 이어 나갔다. 물고기 먹기가 제 살 깎아 먹기라더니 양어장일이



힘들다. 이젠 지쳤다. 그리고 농촌이 싫다. 달구지도 진창길도 닭똥도... 여기에 그냥 있다가는 락오자가 되기가 쉽다.

이제는 사람들이 《모살이》를 끝냈는지 허리를 뻗었다. 살림들이 펴이기 시작했고 예전처럼 편안하고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살아갔다. 물론 모든 것이 푼푼치는 않았지만 부강할 래일을 그려보며 자기의 성실한 땀을 깡그리 쏟아 부었다. 나만이 패배자가 되어 시대의 기슭으로 밀려 나는데 싫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다른데로 가자. 음악을 하는 부문에 가면 나도 얼마든지 투쟁의 기수로 될 수 있으며 래일에는 승리자로서 땀땀이 자신을 총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문득 언젠가 군문화회관 부원을 만났던 생각이 난다. 그때는 싫다고 했지만 이제는 갈 생각이 난다. 대학에도 못 갈바에야 거기 가서 남의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마음 편하고 험하라.

주체87(1998)년 8월 ×일

날이 어두워 지자 나는 양어장의 버드나무밑으로 갔다. 상금이 저녁에 만나자고 했던 것이다. 처녀는 먼저 와 있었다.

《왜 찾았어?》

《그저요.》

우리는 버드나무밑에 나란히 앉았다. 휘늘어진 버들가지가 사랑거리며 귀밑을 간지럽힌다. 처녀는 모두어 불인 무릎우에 턱을 고이고 골똘히 생각에 몰렸다. 정적... 풀벌레소리...

나는 침묵이 싫어서 말을 건넸다.

《전번에 내 작업복 빨 때... 주머니에 있던 악보 어땀어?》 《<고향의 노래>?》

그것은 내가 현상응모에 투고했던 습작품이다.

《아버지한테 있어요. 아버지가 좀 보겠대요.》

처녀는 다시금 입을 다물었다.

구름장사이로 달이 얼굴을 내민다. 그러자 처녀의 자태가 선명히 드러난다. 빨간 머리수건을 쓴 상금의 모습은 대자연속에 피여 난 한송이 꽃처럼 청초해 보인다. 웬일인지 가슴이 설레인다.

나는 그것이 이성의 감정때문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김정소는 미워도 그 송아지는 곱다고 진득현아버이는 싫었으나 처녀만은 좋았다. 처음 농장에 왔을 때 목고를 메도 처녀와 나란히 땀고 노래를 불러도 한쪽이 되군 했다. 로동의 실참이면 터진 손가락에 봉대를 감아 주었고 밤일을 하면 강냉이 닭은것을 가져다 주곤 했다. 땀방울은 어지러워도 진주보다 값 있다고 나는 상금의 일습씨에 반해 버렸다. 그는 당비서 자식티를 전혀 내지 않았었다. 그 녀자와 함께 있으면 힘든 줄도 몰랐고 마음은 의연 즐거워 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헤어져야 한다. 나는 군문화회관으로 가기로 마음 먹었던 것이다. 내가 만약 가려고 한다면 처녀는 어떻게 생각할까?

왜서인지 상금의 입에서는 한숨이 새어 나왔다.

늘 상글거리던 그의 얼굴에 수심이 어렸다. 처

녀는 입술을 감쌀며 나직이 속삭였다.

《일홍동무, 만약 제가 양어장을 떠난다면... 동문 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흠칫 놀랐다. 어쩌면 내가 하자는 말을 먼저 꺼내는 것일까. 나는 속을 뽀뽀한 것 같아 가슴이 뜨끔했다.

《그건 무슨 똥판지 같은 소리요?》

일생을 양어장과 함께 살겠다던 상금이다. 또 양어에 여생을 걸고 《전쟁》을 하는 진득현아버이가 기능공인 제 딸을 보내자고 하겠는가? 어렵도 없다. 날 놀리자고 하는 소리겠지.

나는 롱을 했다. 《어디 시집이라도 가려는가?》

처녀는 도리머리를 저으며 눈을 흘겼다.

《남은 속상해 죽겠는데...》

갑자기 상금이는 흑- 느끼며 손바닥에 얼굴을 묻었다. 소리를 죽여 가며 서럽게 운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행동인지라 나는 어쩔 줄 몰라 했다. 처녀가 총각앞에서 그것도 밤에 버젓이 울다니...

한동안 울고 난 상금이는 입술을 감쌀며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다.

...어제밤 진득현은 상금이를 불러 앉히고 이렇게 말했다.

《애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아니다. 너의 친아버지는 도농업과학원에 있는 유명학연구사이다.》

상금이는 깜짝 놀랐다. 《벼도개비》가 나의 아버지라니?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가? 도대체 믿어지지 않았고 인정할 수 없었다.

《너의 아버지 한달전에 실험을 하던중 가스에 질식되어 중태에 빠졌다... 생명은 구원되었으나 몸이 허약해 저서 누가 곁에서 시중을 들어 주어야 할 형편이 되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는 고민하였다. 너를 친딸처럼 키운 나로서는 너를 그냥 끼고 살고 싶었다. 하지만 어찌겠니... 이젠 네가 친아버지한테로 돌아 가야 할가부다.》

《아니예요.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예요.》

상금은 몸부림치며 울었다.

《이제 뭘 더 숨기겠니. 내 다 말하마... 너의 아버지가 대학공부 할 동안 우린 너를 맡아 키웠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온 너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더구나.

<비서동지, 머슴군의 자식이었던 제가 이제는 대학을 나오고 연구사가 되었습시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정을 생각하면 저절로 어깨가 무거워 집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 아버지수령님께서 또 북변의 농장마을을 현지지도 하더구만요. 두메산골 농장원들에게도 흰쌀밥을 먹이려고 비탈밭을 갈으시는 수령님을 생각할 때 저희들의 죄가 큼니다.

전 꼭 새 품종의 밭벼를 연구하여 수령님의 로고를 덜어 드리겠습니다.

비서동지, 면목이 없지만 제가 성공할 때까지

상금이를 좀더 말아 키워 주십시오.>

난 너의 아버지의 충성된 도리와 과학적신념과 의지앞에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더구나.

<아이는 키워줄수 있어. 하지만 상금이가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부모 없는 설움을 감수해 낼 수 있을까? 그건 가슴 아픈 일일세.>

너의 아버지는 솟구치는 울음을 힘겹게 씹어 삼키더구나.

<그건 그래요. 상금이에게 이붓자식의 슬픔을 주고 싶지는 않아요. 비서동지 제가 성공할 때까지 상금에게 제 이야길 말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자네 소원이 정 그렇다면 내 공민증에 올리고 그 애를 키우겠네. 부디 성공하라구.>

이렇게 너는 내 딸이 되었던거다.>

상금이는 울며불며 세차게 머리를 저었다.

《아니예요... 아니예요... 아니예요...》

아무리 과학이 중한들 딸까지 버린 사람을 어떻게 아버지라 부르랴. 진득현은 매질하듯 타일렀다.

《그러면 못쓴다. 너의 아버지는 꼭 새 품종의 발버를 연구해 내야 한다. 그러니 네가 가서 도와주거라. 알겠니?》

《싫어요, 난 가고 싶지 않아요. 안 갈테야요.》

상금은 밤새껏 슬피 울었다. 이 무슨 운명의 희롱이람...

상금은 나를 바라보며 의논조로 물었다.

《가자니 가슴이 떨리고... 안갈수도 없고... 이럴텐 어쩌면 좋아요?》

나의 눈앞에는 언젠가 눈 오는 날 진득현과 함께 버드나무주위를 빙빙 돌던 자그마한 로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뿌드득-》 《뿌드득-》 그날에 울리던 눈 밟히는 소리가 귀가에 쟁쟁히 들려온다.

가슴이 얼얼해 오면서 처녀를 어떻게 달랬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저도모르게 입속으로 중얼거린다.

《일이 잘... 되겠지 뭐.》

주체87(1998)년 8월 X일

아침에 출근하여 휴계실에 들어 서니 진득현아버이가 별스레 반갑게 맞아 주는것이였다. 아버이는 책상우에 놓여 있는 번쩍거리는 손풍금을 가리켰다.

《일홍이. 내가 뭘 가져 왔나 보게.》

나는 순간에 눈이 뒤집혀 환성 올리듯 물었다.

《어디서 난갑니까?》

《료양소에서 빌려 왔어. 임자가 간수하고 쓰게 나.》

술꾼 보리밭만 지나가도 취한다고 벌써부터 손목이 근질거린다.

《언제 가져다 줘야 합니까?》

아버이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였다.

《장기대출이야... 자네가 싫다고 할 때까지...》

아버이는 손풍금을 가져다 내 가슴에 척 안겨 주었다.

《한번 타보라구. 요새 상금이란 마음이 울적해 하는데 가슴이 쪽 열리게... 이젠 아침마다 새 노래보급을 하군 해야겠어.》

가슴이 설레이며 못 견디게 손풍금을 타고 싶다.

나의 심정을 알아 주는 아버이가 고맙다. 하지만 속으로 머리를 저었다. 이제 더는 아버지한테 미련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아버이는 나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한다. 나의 희망은 오직 내 힘으로 열어 나가야 한다. 그길은 굳으로 가는 길이다. 아버이는 의논조로 말을 건넸다.

《요즘 유명학연구사의 건강이 시원칠 않아. 아무래도 그 사람을 여기 데려다가 우리가 돌봐주어야 할것 같애. 그러니 내가 그 사람을 데리러 갔다 올 동안 분조일을 좀 맡아 달라구.》

우선 3호못관리를 잘하라구. 똑밀이 좀 내려왔은게 미타해. 래일부터 큰비가 온다니까 무너질수 있어. 흙가마니를 쌓든 돌을 쌓든 보강을 하라구.》

나는 울며 겨자먹기로 립시 분조사업을 인계받았다. 하지만 비둘기생각 콩밭에 가 있다고 나의 마음은 군문화회관으로만 쏠렸다.

주체87(1998)년 8월 X일

나는 군문화회관으로 갔다.

낮 익은 고수머리 부원이 반갑게 맞아 주었다.

《이번에 도에 갔던김에 작곡가동맹에 들려 보니까 동무가 작곡한 <고향의 노래>가 있더군.》

나는 눈이 둥그래서 물었다.

《그게 어떻게 거기 가있습니까?》

《아니, 그럼... 동무두 모르고 있었소? 진득현 아버이가 가지고 와서 합평을 해달라고 졸랐답데...》

그제야 언젠가 상금에게 주었던 생각이 났다.

《그곳 작곡가들이 이제 작품을 살릴 대안을 찾아 내려 보내줬다더군. 그런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 찾아 왔나?》

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고수머리는 머리를 기웃거렸다.

《언젠가 동무네 진득현비서에게 동물 좀 쓰라고 하니까 뭘 리에서 키워 작곡가동맹에 보내려 한다나, 그런즉 끔찍 넘겨다 보지 말라고 하더군.》

그래 우린 동무가 작곡가동맹에 가겠거니 했네.》

나는 적당히 둘러 쳤다.

《제 주체에 어떻게 거길 다 바라다 보겠습니까, 전 문화회관도 좋습니다.》

《그래?! 마침 손풍금수가 없어 그랬는데...》

그는 대바람 여기저기 전화를 해대더니 어딘가로 뛰어 갔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야 나타난 그는 실망한듯 중얼거렸다.

《안되겠어, 진득현아버이가 반대하더군...》

?!...

나는 놀랐다. 이틀전에 떠나갔던 아바이가 언제 돌아 왔는지 모르겠다. 아바이의 말은 아직 영향력이 있어서 군과 리에서는 허술히 대하지 못한다. 이젠 코집이 굴렀다는것이 험등해 졌다.

군에서 돌아오는 나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서서히 울분이 끓어 오른다. 아바이는 다른 사람한테는 다 너그럽고 아량 있게 대하면서도 나한테만은 왜 박정하고 못 살게 구는가? 한시바빠 아바이를 만나 속을 터놓고 싶다.

나는 30리길을 쉬지 않고 내쳐 걸었다.

어느덧 양어장어귀에 이르렀다. 구룡천기슭을 따라 걸어가던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방축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진득현아바이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가 앉아 있는 동쪽은 사뭇치며 흘러 내리는 물에 움푹 패이었고 돌들이 드러 난 기초는 반나마 무너져 내렸다.

아바이의 입에서는 담배연기가 몽게구름처럼 피어 올랐다. 발치에는 마라초공초들이 수두룩하다. 침침하게 흐린 얼굴은 별로 측은해 보인다.

나는 천천히 그의 곁으로 다가 갔다. 며칠사이 에 썩 늙어 버린것 같은, 어딘가 원망과 노여움이 실린것 같은 아바이의 눈길을 마주 보며 나는 도전적으로 말을 건넸었다.

《아바이, 아바인 제가 군에 가는걸 반대하셨나요?》

아바이는 말 없이 머리를 끄덕이였다.

나는 땅이 빙그르르 돌아 가는 환각을 느꼈다.

《아바이, 그건... 지나친 말씀이 아닙니까?》

일순 아바이의 눈에서 섬광 같은것이 번쩍했다. 이어 불편을 실룩이며 머리를 저었다.

《아니다.... 나는 도에 가면서 뚝이 터질수 있기때문에 보수를 해야 한다고 몇번이고 말했다. 그런데 그건 버리고... 봐라. 그래 이 허물어 진 제방을 놔두고 발이 떨어 지더냐? 난 그런 량심으로는 우리의 노래를 지을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무슨 홀림에 든것만 같았다. 아바이는 내가 작곡가가 되어야 한다고 귀에 길이 나도록 말해 왔다. 그런데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내가 가자는 길을 막아 나서는가. 물론 뚝을 수리하지 않고 군에 갔던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설사 고기가 몇마리 떠내려 갔다 한들 그것이 무슨 큰일이라고 이렇듯 가혹한 처분을 내리는것인가? 나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항변의 목소리가 튀어 나왔다.

《아바이, 아바이한테 제가 물고기 몇마리 값보 다도 못한가요?》

아, 나는 눈물이라도 쏘고 싶었다. 아바이는 나의 희망보다 양어를 더 귀중히 여긴다. 다른 사람의 지향이나 포부 같은건 말뿐이지 조금도 가슴 아파 하지 않는다. 저런 사람들은 재능에 대하여 끝잘 말하지만 그 가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수탉이 강냉이알은 쪼아 먹으면서도 금싸라기는 쥐여 뿌리는것과 같다. 그런 사람한테 자신

을 알아달라고 호소하는것이 도리어 수치스럽게 느껴 졌다.

나는 끓어 오르는 의분을 그대로 터쳐 놓았다.

《아바이, 전 농촌을 위해서 여러해를 일했어요. 청춘을 희생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값이 너무 베차군요.》 피자누룩한 정적이 우리들의 가쁜 숨소리를 감싸 안았다. 이윽하여 아바이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넌 마치고 무엇을 바친것처럼 말하는데 사실은 자신에게만 충실했을뿐이다. 자신에게만...

솔직히 말해 봐라. 군문화회관에 가는것도 <날라리>를 부리자는것이겠지? 너의 아버지는 그게 싫어서 널 여기로 데려 왔는데 아직 그 버릇을 못버렸구나. 손바닥에 장알이 박혔다고 다 자랐다고는 생각지 말아.

너는 지금 현실을 도피해서 <동면>하려고 한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바이는 가슴속에서 퍼올리듯 무겁게 입을 열었다.

《지금 이 시각도 너 같은 젊은이들이 군복을 입고 조국을 지키고 있다. 그래 네가 병사들처럼 언 땅에 배를 붙이고 밤을 새보았느냐, 얼음장을 헤치고 강을 건너 보았느냐? 지금도... 건설장들에서는 어린 전사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고... 일을 하고 있다.》

아바이는 움쭉 일어 나 곁에 있는 버드나무를 힘껏 잡아 흔들었다. 어린 버드나무는 애처롭게 몸부림쳤다.

《그래도 넌 이불을 덮고 발편잠을 자지. 참새알만한 희망을 가지고 재능이 뭐 어쨌다고... 병사들은 결코 재능이 모자라 군복을 입은게 아니다. 물어 보자. 너한테도 그들처럼 한목숨 서슴없이 내달 심장이 있는가?》

눈앞으로 달구지를 밀어 주던 병사들의 모습이 얼핏 스쳐 지나갔다. 나도 과연 그들처럼 살수 있을까? 가슴속에서는 아무런 메아리도 울리지 않았다.

《내가 말했지. 너의 할아버지가 왜 전선으로 나갔고 너의 아버지가 왜 농촌에 왔는가를... 그것은 영원히 병사의 자세로 조국을 받들기 위해서야. 병사와 같은 심장을 지님이 없이는 그 어떤 희망에 대하여 말하지도 말아.》

아바이는 지척지척 마을쪽으로 멀어 저 갔다.

나의 가슴속으로 찬바람이 확 쓸어 드는듯 싶었다.

밤이 왔다. 나는 잠들수 없어 뒤척거렸다. 눈앞에는 지금까지의 생활이 무의미한 허물로 되어 환영처럼 얼른거렸다. 그래도 내딛에는 이 땅을 위하여 청춘의 땀을 바친다고 자부하여 왔다.

이것이 허영이고 기만이었던 말인가? 하다면 사람은 자기의 희망에 대하여 책임질 권리가 없단 말인가? 희망 같은건 없어도 군인정신만 가지면 당장이라도 음악가가 되고 애국자가 된다는건

가.

나는 알수 없는 자가당착에 빠져 중얼거렸다.

(뭐 내가 자신에게만 충실하다구... 아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 났다.

(좋다. 내가 그렇지 않다는걸 오늘밤 증명할테다. 나 혼자서라도 무너진 틈을 다 쌓으리라.)

문득 문 두드리는 소리... 문을 열고 나서니 상금이 서있다. 처녀는 말했다.

《아버지가... 꼭 쌓으러 나오세요.》

나는 데통스레 내뿔었다.

《싫소. 난 안가겠어.》

상금이는 야속한듯 한숨을 내쉬었다.

《왜 그래요? 종장부같이... 어서 가세요.》

처녀는 무작정 내 손을 잡아 끌었다.

달이 떠올라 우리가 가는 앞길을 흰히 밝혔다.

상금이는 앞서 걸으며 조용조용 이야기하였다.

《일홍동문 우리 아버지질 원망하지요?》

그러지 말아요. 우리 아버지가 일홍동무를 위해 얼마나 마음쓰는지 알아요. 아버지질 얼마전에 집의 돼지랑 주고 손퐁금을 바꿔 왔어요.》

며칠전 비 뿌리는 날 달구지에 실려 가던 흰 점박이 돼지가 눈앞을 스쳐 지나 갔다.

《아버지질 손퐁금 없는 일홍동무 꼴을 차마 못봐 주겠다며... 며칠밤 담배를 태우며 속을 썩이더니...》

무엇인가 쿵 심장을 울린다.

《아버지질 돼지와 손퐁금을 바꿔 온걸 일홍동무가 알면 모욕을 느낄거라고 하시며...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진심이에요.》

아바이의 허둥대던 눈길이며 벌개 지던 얼굴이 새삼스레 떠오른다. 남을 위해 주는 일이 그렇게도 창피스러운 일이었던 말인가?

감동으로 달아 오른 후더운 피가 서서히 혈관을 따라 퍼져 나간다. 상금의 목소리는 약비처럼 내가슴을 포근히 적셨다.

《이젠 솔직히 다 털어 놓지요. 아버지가 양어분조장으로 온건 물고기를 잘 기르는것과 함께 때가 되면 일홍동무를 보내기위해서였어요. 동무가 가게 되면 그 빈자리를 누가 메꾸겠는가고...》

처녀는 설음이 북받치는지 조용히 흐느꼈다. 무엇인가 훌쩍이고 석연치 않던 생활의 토막들이 하나로 꿰지면서 선명하게 안겨 왔다. 자꾸 나를 내세워 주던 아바이, 내가 제구실을 하게 하려고 양어장으로 와서 묵묵히 뒤바라지해준 아바이, 그 진정을 내가 왜 몰랐을까?

상금이는 눈물을 씻고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 주듯 다정한 음성으로 속삭였다.

《이번에 아버지는 도병원으로 떠나 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상금아,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라. 너의 아버지의 연구사업은 그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혈연적관계를 따지는 인간문제가 아니다. 장군님께서 걱정하시는 쌀문제, 농사문제와 직결된 과학문제다. 이걸 너나 나 백을 가져다 붙여도 대신할

수 없는 국보적인 사업이다. 우린 이걸 귀중히 사야 한다. 솔직히 내가 너를 말아 키운것도 난 너의 아버지가 연구사업에서 성공하길 바래서 그랬다.

네가 가기 싫다니까 할수없이 너의 아버지를 집에 데려 와야겠다. 양어장사료발에 시험포전을 만들어 놓고 연구를 계속하면 될게다. 이제부터는 병도 내가 간호하고 실험도 내가 거들어 주겠다. 난 너의 아버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나를 다 바친대도 여한이 없다.>

일홍동무, 전 그때 목 놓아 울었어요.》

상금이는 설음이 북받치는지 입술을 감쳐 물었다.

《저의 친아버지를 위해 한생을 남몰래 뒤바라지 해온 리당비서아버지의 웅심을 제가 어떻게 다 헤아리겠어요. 비서아버지도 연구사인 아버지도 저에겐 다같이 훌륭하고 아름다운분들이예요. 전 여기서 두 아버지를 영원히 함께 모시겠어요.》

감동에 젖은 처녀의 말소리는 큰 복채처럼 내가슴을 두드려 댔다. 한 과학자의 성공을 위하여 소문없이 진정을 다 기울인 진득현아바이의 숭고한 인간성앞에 저절로 머리가 수그러 진다. 내가슴에 박혀 있던 아바이에 대한 물리해가 창끝에 찔린듯 마지막심음소리를 냈다. 그랬었다. 아바이는 재능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마지막까지 돌봐 주는 참인간이다. 그는 금싸라기를 차던지는 《수돗》이 아니었다. 불역의 모래불을 통채로 일고 또 일어서라도 금알갱이를 얻어 내고야 마는 일군처럼 말없이 성실성을 바쳐 가는 숨은 애국자였다.

나는 못사람들의 희망이 어떻게 꽃 피여 나는 가를 툭툭히 깨달았다.

우리는 구룡천 동쪽에 올라 섰다. 그 순간 나는 두눈이 휘둥그레 졌다. 개울물이 쉼 없이 흐르는데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 서서 무너진 틈을 쌓고 있었다. 여기저기 해불이 떠오른다. 소용돌이치는 물살이 금시 분조원들을 삼켜 버릴 듯 싶다. 세찬 물살을 맞받아 담뱃처럼 막아 선 진득현아바이의 모습이 우뚝이 안겨 온다. 갈기를 일으키는 물바래가 머리위에 폭우처럼 쏟아져 내렸지만 아바이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아! 나는 코마루가 쟁쟁해 오는것을 느꼈다. 저 아바이가 아니었다면 동쪽은 무너지고 양어장의 고기들은 떠내려 갔을지도 모른다. 뜨거운 자책이 눈굽을 지진다. 끔찍한 참변을 눈앞에 두고도 나는 나 자신만을 위해 뛰어 다녔다. 정녕 내가 지금껏 무슨 꼴로 살아 왔던가? 바로 나와 같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기때문에 우리 장군님께서 마음 쓰시고 로세대들이 고생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그리고는 나는 무슨 희생을 한 것처럼 재능에 대하여 떠들어 댔으니 이 얼마나 가소롭고 망녕된짓인가?

나는 무작정 물속에 뛰어들며 아바이한테 잘

못을 빌었다.

《아바이, 저를... 꾸짖어 주십시오.》

아바이는 내 마음을 다 알았다는듯 머리를 끄덕였다.

《저도 이젠 아바이처럼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한생을 여기서... 살겠습니다.》

아바이는 설레설레 머리를 저었다.

《이 녀석아, 그건 아니다. 난 널 양어공으로나 키우자고 잔소리 해온건 아니야. 어허...》

아바이는 맥락이 닿지 않는 말을 증얼거렸다.

《너의 아버지가... 좋아 하겠구나.》

아바이의 눈구석에 물기가 번쩍했다.

《그동안 나를 많이 욕했지, 일만 시킨다구. 용서해라.》

(아바이, 누가 용설 빌어요.)

아바이의 주글주글한 주름사이로 눈물이 구울러 내렸다.

《난 말이다. 고기뻘을 보란듯이 길러 놓고 장군님을 모시고 싶어 그랬다. 전선길에 피로하신 우리 장군님께서 여기 양어장에 들러 잠시라도 쉬어 가셨으면 얼마나 좋겠니. 왜 그런지 난 이께서 우리 마을에 꼭 오실것만 같구나.》

아바이는 울고 있었다. 번들거리는 눈물이 내 가슴을 쿵 찌른다.

나는 아바이의 모습에서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장군님께 충성 다 바쳐 나가는 애국자의 초상을 보았다. 그것은 한쪽의 그림이었다. 아니 노래였다. 시련을 맞받아 웃으며 나가는 불굴의 웨침이었으며 이 땅에 감도는 풍요한 대지의 서정이었다.

나는 내가 그렇듯 짓고 싶어 하던 노래를 찾는 듯 싶었다. 그 악상, 그 선율은 사회주의 내 조국을 굳건히 받들고 있는 억센 주춧돌, 숨은 애국자의 정신세계였다.

주체89(2000)년 10월 X일

지금 양어장의 버드나무밑에서 나는 상금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라보니 산에는 단풍이 타고 들에는 나락이 설레인다. 못나무 서둘러 락엽을 지우는 계절이건만 버드나무는 한모습 푸르름을 잃지 않았다. 이른봄 남 먼저 푸른웃 뿔쳐 입고 마지막 가을까지 푸르러 설레이는 버드나무야...

저녁노을이 내려 앉는다.

신비한 색채에 휩싸인 버드나무는 돌기돌기 년륜에 감아 놓은 하많은 사연을 속삭이는듯 싶다.

나는 두해전에 《버드나무》라는 노래를 지었는데 그것이 문제작으로 논의되어 작곡가로 소환되었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내 만약 대학창가에서라면 이런 훌륭한 노래를 지을수 있었을가 하고...

참으로 버드나무는 인연도 깊고 추억도 많은 행운의 나무이다. ... 연구에 성공하여 박사의 학위를 수여받은 유명학연구사도 이 나무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고 내가 평양으로 떠나가는 날 진득현아바이는 《성공하기전에는 아예 발길질을 말아.》하면서 이 나무밑에서 손 지어 바래 주었다. 나와 상금이는 사랑의 씨앗도 이 나무밑에 묻었다.

가슴속에 설레이면서 무엇인가 속삭여 주는 버드나무를 못 잊어 나는 가끔가끔 양어장마을을 찾아 오곤 한다.

그때면 깊은 산속에서 방목을 하는 나의 아버지와 밭벼의 포전실험을 다그치는 상금의 아버지와 양어장에 불박혀 사는 진득현아바이를 보면서 이 땅의 초석들에 대한 웅심 깊은 철학과 숭고한 노래에 대한 착상을 받아 안곤 한다.

아마도 그래서 내 오늘 또다시 새 노래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 싶어 여기에 왔으리라.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겨 버드나무주위를 거닌다. 버드나무는 화려한 꽃도 질은 향기도 충실한 열매도 없다. 하지만 나무는 자기의 수려한 풍치로 이 땅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푸른 잎으로 맑은 공기를 더하여 준다. 온갖 새 날아 들어 노래부르는 이 나무밑에서 사람들은 더운 한철 땀을 들이기도 하고 때로 비를 그어 가기도 한다.

바야흐로 저녁노을의 마지막불광이 늙은 버드나무를 포근히 감싸안는다.

말없이 서 있는 버드나무는 자기를 안아 키워준 어머니대지에 큰절을 드리는듯, 두번다시 뿌리 내리려는듯 더 깊숙이 머리를 수그린다.

## 가사

# 평범한 우리의 모든것이

## 곽명철

어제는 이름 없는 팡부가 영웅 되더니

오늘은 평범한 병사들이 영웅이 되네

아 장군님 파사론 그 손길아래

평범한 사람들이 영웅으로 자라납니다

어제는 두메산골 황금산 되더니만

오늘은 소문 없는 고장들이 위훈을 날네

아 장군님 새기신 그 자욱 따라

평범한 고장들이 이름난 고장 됩니다

주시는 믿음 안고 인민은 영웅이 되고

배푸신 사랑 있어 이 땅우엔 락원이 솟네

아 장군님 바치신 그 로고 안고

평범한 나날들이 위대한 날로 됩니다

# 칠보산 산수시초

최영화

## 눈계절의 칠보산에서

칠보산, 칠보산아  
내 비록 일흔이 넘은 몸이어도  
눈계절의 네 모습 보고 싶은 마음  
지팽이로 삼아  
헤쳐 온 눈길 천리 또 천리끝에  
눈세계의 절승으로 네가 솟았구나

백설의 박달령마루에서  
내 또한 백발을 날리며 바라보는  
네 설경의 황홀함이어  
눈의 아름다움이어  
너의 백설에 나의 백발도 부시도다

흰 령을 내려  
내칠보 굽이굽이 외칠보 굽이굽이  
나는 마치  
소소리 높은 대설경 병풍속을 걷는듯  
한걸음 걷고 두걸음 멈추며  
내 나를 잊고 바라보는 칠보의 눈경치

칠보산을 온통 하늘꽃이로다  
칠보산의 눈은 눈도 칠보로다  
내 한평생 눈계절이면  
눈을 맞고 눈을 보며 살아 왔건만  
하늘꽃, 눈이 이리도 아름다운줄 몰랐노라

쳐다보면 층층기암절벽들은  
저마끔 눈꽃으로 칠보단장하고  
제가끔 절묘한 천연미를 뽐으며 번뜩인다

바라보면 멀리 가까이 봉은봉마다  
길길이 솟구치는 눈파도마냥 흰 갈기를 날리고  
산협에 들어 찬 락락장송들에는  
백화가 만발하여 흰 꽃바다인냥 설레인다

봄꽃으로 단장한들 이처럼 아름다우랴  
가을단풍으로 단장한들 이처럼 아름다우랴  
내 지금껏 살면서  
꽃계절의 금강산도 보고  
록음계절의 묘향산도 보고  
단풍계절의 구월산도 보고  
내 나라 천연 산수미를 다 보았다고 여겼더니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내 늙음도 잊고 솟눈에 폭폭 발목을 묻으며  
정갈한 그 눈으로 단 목을 추기며  
우리 장군님 단풍길에 수 놓으신 자옥을 따라  
승선대, 만물상, 덕골  
눈계절의 칠보산을 본 오늘에야 비로소  
내 다 알았노라, 내 나라 산수의 천연미를...

칠보산아, 너와 눈은 한경치  
눈이 있어 네가 있고 네가 있어 눈이 있구나  
너의 일만설경을 바라보는 내 눈앞에는  
눈세계의 황홀경으로 또 하나의 칠보산  
백설의 칠보산이 하늘가에 솟아 달같이 빛나도다

## 칠보사람들은

오늘에 빛나는 칠보의 빛을 안고  
이 산 저 골 그 아름다움을 즐기며  
큰 거리길같이 넓게 트인 탐승길을  
내 생각에 잠겨 걸노라

이 길은 칠보의 칠색무지개가 놓인 길  
천년을 묻혔던 칠보의 빛과 아름다움이  
이 무지개를 타고 동해의 하늘에  
장쾌히 빛발치게 한 명승길이거니

칠보산은 먼 먼 예로부터  
절경의 천연미와 천연빛을 지녔으면서도

지도에서나 북관땅 동해기슭에  
아름다운 그 이름 석자만 전해 오던 산

빛은 있어도 빛을 뽐지 못했고  
아름다와도 오랜 세월 일러 주지 않던 칠보산이  
어찌하여 오늘은 으뜸명산으로 태어났는지  
사람들이여, 그대들은 모를수도 있으리

그 뜨거운 사연을 칠보산아 말하라  
우리 장군님 깊은 땅속에서 보석을 캐내시듯  
천년세월속에 묻혔던 네 빛과 아름다움을  
어떻게 귀히 캐내시어 세상에 빛내주셨는지를...

말하라, 너 칠보산아  
우리 장군님 탐승길에 거룩한 자옥 새기시며  
네 품의 명소 하나, 기암 하나, 바위이름 하나  
어떻게 세상에 빛을 뽐게 해주셨는지들...

그 은혜 하도 고마워 차마 못 잊어  
여기 칠보사람들은 명산 칠보산을  
장군님의 산이라 이름 지어 부르나니  
그래서 칠보산을 꿈속에서도 안고 자나니

사람들이여, 탐승길을 무심히 걷지 마시라  
산경치의 아름다움을 생각없이 즐기 마시라  
위대한 애국자 **김정일** 장군님품에서  
칠보산이 새로 태어났음을 부디 잊지 마시라

아, 장군님 가장 사랑하시는 산이여  
우리 장군님 추억속에 높이 솟아 있는 산이여  
후대들에게 내 나라의 재보로 길이 전해 질  
로동당시대의 보물산, 장군님의 칠보산이여!

## 칠보돌경치

칠보산은 돌명산 허구한 세월이 기기묘묘하게  
짜고 다듬은 기암과 절벽들이  
산마다 골마다 돌병풍을 두르고  
저마다 돌경치 자랑일세

승선대에 오르면  
기와집바위, 초가바위들이 모여 앉은 돌동네  
너무도 신통하여 보는 이의 탄성을 터치고  
부부바위 애정을 노래하는 풍금바위  
그 소리에 맞춰 무희대가 춤흥을 돌구네

천길 조약대에 올라 바라보는  
만물상의 돌경치 또한 얼마나 황홀한가  
천하의 기암들이 모두다 모인

천태만상의 신기한 돌공원을 보는듯  
전설바위 하도 많아 전설박물관을 보는듯

옥계폭포수 구슬 같은 덕골에 이르니  
아찔하게 깎아 지른 기암절벽들이  
저저마다 눈골을 붙들고 농지를 앓네  
옥계물 푸른 빛과 돌바위 구리빛이  
한빛으로 어울려 칠보빛을 뿌리네

칠보산의 산수야 무엇무엇해도  
신비하고 절묘한 돌경치가 으뜸이지  
뗀던 걸음도 다시 멈추는 돌경치구경에  
해는 저 내리는 산길에 어스름은 질어도  
내 머리에선 기암들이 돋는 별들처럼 반짝이네

## 《노래바위》라 부른들 어떠리

걷는듯 섰는듯  
내 기암구경에 취해 덕골로 오르는데  
문득 눈길에 번뜩이는 절벽의 글발  
《**김정일**장군의 노래》다!  
쩌렁쩌렁 골안에 메아리치는 내 목소리

천연절벽암에 흰 글구슬을 뿌려 놓았나  
자자구구 빛을 뽐는 시줄을 읽노라니  
어느덧 시어는 선률되어 가슴을 울리네

옥계수 맑은 물도 이 노래 싣고 흐르고  
칠보산도 이 노래 안고 솟아 더더욱 빛나네

기다려 이 노래 기다려  
이름도 없이  
수수백년을 티끌 하나 묻을세라  
내리는 눈과 비로 몸을 씻어 온 천연암아  
그 정성으로 노래중의 노래를 새겨 안았으니  
내 이제 네 이름 《노래바위》라 부른들 어떠리

## 매바위

매바위야  
네 어이하여 여기에 굳어 졌나?  
굳어 저 네 이름 전하고 있나?  
내 물었더니 매바위 대답했네  
《나는 이 산에 날던 산매  
칠보기암들 하도 부러워 이 산에 굳어 졌어요  
허지만 사람들 나를 학바위라 불러  
그게 너무 원통해 다시 산에 날가 했답니다

그런데 몇해전 가을날  
이곳을 찾으신 한 귀하신분이  
내 모습을 모습대로 가려 보시고

나를 매바위라 고쳐 불러 주셨답니다

그래서야 나는 내 이름을 찾게 되었지요  
그날부터 내 원통함을 말끔히 가시고  
내 이름대로 내 모습을 빛내고 있답니다  
이제 누가 학바위라 부르면 코를 쪼아 놀래요》

매바위야, 너는 몰랐으리 알수도 없었으리  
그분이 바로 우리 장군님이시란다!  
칠보산에 새로 태어난 네 이름  
칠보산에 태어난 새 전설되었구나

## 다섯번째 사진

림화원

그것은 뜻밖의 상봉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진옥부인!》

극장홀 한쪽 모퉁이에서 체구가 다부진 외국인 중년사나이가 이렇게 부르며 성급히 다가올 때 까지만 해도 나는 그를 미처 알아 보지 못하였다. 그의 입에서 로어가 흘러 나오는것으로 보아 로씨야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피곳 하였을 따름이다.

나는 기억을 인차 되살렸다. 그게 언제였던가. 수리아에 갔다 돌아 오는 길에 들렀던 모스크바 거리에서 한번 만나본적이 있는 인상적인 로씨야 청년을 여기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폐막공연장에서 다시 만나게 될줄이야 어떻게 알았으랴.

그때 그는 27살이라고 하였다. 그러니 지금은 35살이 되었을것이다.

나의 뇌리에는 모든것이 어제런듯 생생하다. 그때에 받아 안은 충격이 너무 컸기때문인지도 모른다.

《난 부인을 인차 알아 보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흘러 가는 세월에 정말 통쾌히 도전하고 계시는구만요.》

그의 푸른 눈동자는 반가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흔고개를 넘어서 이제는 시들시들해 가는 녀자 보고 원, 룡담도...》

그는 기자로 일하고 있었다. 이번 봄축전취재 차로 평양에 왔는데 래일 본국으로 돌아 간다고 하였다.

《진옥부인은 경공업과학원에서 여전히 연구사업에 몰두하고 있겠지요?》

《그래요.》

《사실 부인을 한번 만나볼 생각이 간절했습니다만 어쩐지 멋 적은 감이 들어서...》

그는 입술을 감쌀며 허전한 웃음을 지었다.

《무슨 말을 그렇게...》

공연관람을 끝낸 사람들이 극장을 한창 빠져 나가고 있었다. 이야기를 오래 끝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8년전 그때의 일이 새삼스레 가슴을 긁어 내리며 내 눈앞에 펼쳐 졌다.

## (1)

...락엽이 우수수 떨어 지는 모스크바 싸도와야 거리...

무슨 구경거리가 생겼는지 큰길뒤켠의 소공원

한쪽에는 여라문명의 사람들이 한데 몰려 있었다.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쪽을 무심결에 바라보던 나는 그만 입을 딱 벌렸다. 프랑카드처럼 펼쳐져 있는 흰천, 거기에 씌여 진 주먹 같은 붉은 글자들이 놀라움을 자아 내었다.

《실장선생, 저걸 좀 보세요!》

나의 말에 곁에 앉아 있던 반백의 실장도 렌즈처럼 두터운 안경을 추슬러 올리며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사회주의가 낳은 바보들의 가정사》...

실장은 어이가 없다는듯 입맛을 쩍쩍 다셨다.

《가보지요. 뭘 보고 그러나...》

우리는 승용차를 소공원근방의 어떤 4층건물곁에 세웠다. 고색이 짙은 건물이었다.

우리를 아연케 만든 그 프랑카드는 소공원의 긴 의자등받이 랑쪽에 두개의 장대기로 고정되어 있었다. 긴 의자에는 코날이 날카로운 금발머리의 어여쁜 처녀가 까치다리를 하고 혼자 덩실하니 앉아 있었는데 그 태도가 여간만 당돌하지 않았다.

《아가씨, 저 사진들을 좀 만져 봐도 일 없겠습니까?》

휴대용록음기를 어깨에 멘 키다리사나이가 떠듬떠듬하며 로어발음을 서툴게 번졌다.

그제서야 나는 처녀의 옆에 놓여 있는 무슨 파자통 같은것에 눈길을 돌렸다. 거기에는 녀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는데 매 사진모서리에는 《№ 1》, 《№ 2》, 《№ 3》, 《№ 4》라고 씌여 진 우표 크기만한 종이딱지가 종이끼우개로 끼워 져 있었다.

《사진의 뒤등도 보아 주기 바랍니다.》

장화발을 흔들거리던 그 처녀가 머리를 까딱해 보이면서 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그 웃는 모습은 참 기묘하였다. 그렇게 웃는것도 웃는다고 표현해야 할런지... 웃는다가 보다 웃어 버린다고 하는것이 더 적중할것 같았다. 모래밭에 물을 쏟아 놓은 경우와 비슷하게 그 웃음지속시간이 어찌나 짧은지 바로 웃는 순간을 놓치고 나면 언제 웃었었는지 알수 없게 재빨리 찾아들어 버리는 그런 웃음이었다.

키다리가 사진 한장을 조심스레 집어 들자 다른 사람들도 저마다 《파자통》에 손을 뻗었다. 녀장의 사진은 이 손, 저 손으로 옮겨 가며 긴 의자주변을 천천히 돌았다. 그 가운데서 《№ 1》과 《№ 2》는 손바닥만한 흑백색의 독사진들이었



는데 꽤 낡은 감이 들었다. 나머지 《№ 3》과 《№ 4》는 손바닥의 두껍은 실히 될 천연색의 독사진과 집체사진이었다.

나도 돌아 가는 그 사진들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색조가 제일 바랜 흑백색사진인 《№ 1》의 주인공은 검은 가죽잠바차림에 오각별이 붙은 둥근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중년사나이였다. 허리에 목직한 모젤권총이 매달려 있었다. 뒤등에 《전선남부로 떠나면서 1919년 10월 20일》이라고 써여있는것으로 보아 공민전쟁때 찍은 사진이 틀림 없었다.

《№ 2》라는 번호를 달고 있는 흑백색사진에는 털외투를 입은 중년군관이 박혀 있었는데 《№ 1》의 주인공과는 모습이 달랐다. 쏘도전쟁때 찍은 사진이었다. 《칼리닌전선으로 떠나면서 1941년 11월 6일》이라는 사진뒤등의 설명문이 그것을 말해 주고 있었다.

나는 호기심을 가지고 《№ 3》, 《№ 4》의 번호를 가진 천연색사진들도 찬찬히 들여다 보았다.

《№ 3》은 《떡메》견장을 단 병사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아주 애젊은 나이였다. 사진뒤등에는 《영광. 1955년 9월 16일》이라는 설명문이 있었다.

집체사진인 《№ 4》는 양복차림의 중년사나리와 누런 옷을 입은 청년 그리고 머리에 꽃송이를 엮은 처녀애가 한데 어울려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찍는 날자가 화면에 자동적으로 기록되는 사진기를 사용하였기때문에 뒤등을 돌려 보지 않고도 그 날자를 알수 있었다. 1986년 7월 23일이 사진 찍은 날이었다. 사진뒤등에는 《경사》라는 글이 써여 저 있었다.

그런데 신통하게도 그 녀장의 사진들은 다 똑같이 두개의 원통형기둥이 세워 저 있는 어떤 건물현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거기에 바로 무슨 사연이 깃들어 있는것 같았다.

나는 저 로씨야처녀가 어째서 사람들에게 그 사진들을 내돌리는지 알수 없었다.

검은색안경을 낀 뚱뚱한 녀자가 처녀에게 뭐라고 물었다. 로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어서 나는 알아 들을수 없었다. 실장이 여기에 모여 든 사람들은 대부분 도이쉴란드관광객들이라고 나에게 알려주었다. 그는 도이쉴란드어도 알고있었다.

처녀는 알아 듣지 못하겠는지 두팔을 벌려 보이며 아까와 같은 웃음을 또 지었다. 보면 볼수록 정말 기묘한 웃음이었다. 어딘가 모르게 뻥뻥하고도 피뻥스러운 처녀라는 느낌이 들었다.

키다리가 뜨적거리며 서툰 통역원노릇을 하였다.

《이 부인은 전선으로 나간 <№ 1>과 <№ 2>가 다 살아서 돌아 왔는가고 묻고 있습니다.》

《둘 다 저승으로 가버렸지요.》

《유감이구만요.》

처녀가 자리에서 발딱 일어 서더니 그 《과자통》에서 16절지의 크기만한 종이몽테기를 꺼내여 췌흔들었다. 나는 그 맨 앞장에서 로몬으로 라자된 《안내서》라는 제목글을 얼핏 가려 보았다.

《이 안내서에 다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언하고 싶은것은 이 모든 사진의 인물들이 서로 혈육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썬쪼브가문입니다. <№ 1>의 아들이 <№ 2>이고 <№ 2>의 아들이 <№ 3>입니다. 그리고 <№ 4>는 <№ 3>의 아들과 딸이 자기 아버지되는 사람과 함께 찍은것입니다.》

나의 눈에는 《№ 3》의 젊은 병사와 《№ 4》의 중년사나이가 전혀 딴 사람들로 보였다. 하긴 두 사진사이에는 30여년이라는 세월이 가로 놓여 있으니 그럴수도 있었다. 여하튼 그 녀장의 사진들에는 자기 조국과 운명을 같이 해 온 썬쪼브라는 성을 가진 한 로씨야가문의 4대 족보가 화폭적으로 함축되어 있는셈이었다.

그런데 처녀는 사진의 주인공들에 대하여 무서운 적의를 품고 있는것 같았다. 그렇지 않다면야 어떻게 저승으로 가버렸다느니 뭐니 하는 그런 험한 말을 마구 퍼부을수 있겠는가.

키다리가 록음기에 카세트를 집어 넣으며 벌쭈웃었다.

《그런데 <№ 4>의 처녀애는 누군지요? 내보기에는 아가씨와 비슷한 감이 드는데...》

키다리의 말을 듣고 보니 과연 그런것 같았다. 머리에 꽃송이가 피여 난 그 귀여운 얼굴... 그것은 분명 처녀와 비슷한 모습이었다.

《그거야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요. 중요한것은 해 목은 볼셰위크가문의 후손인 그 처녀가 자기 가문의 사진들을 왜 상품으로 처분하려는가 하는데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나는 너무도 기가 막혀서 눈을 지그시 내리깔았다. 어쩌면 자기 얼굴까지 박혀 있는 제 가문의 사진들을 팔아 먹으려는것일가.

불현듯 처녀가 나를 뚫어 지게 쳐다 보았다. 유럽사람들속에 섞여 있는 동양녀자가 유표하게 눈에 띄어서인지 아니면 이 녀자의 검은 눈동자에서 류다른 감정을 읽어서인지... 나는 처녀의 눈길을 피하지 않고 면바로 마주 바라보았다. 처녀는 끝내 고개를 돌렸다.

줄말무늬뜨개옷을 입은 나이 지숙한 녀자가 처녀를 맞잡지 않은 눈길로 바라보다가 키다리한테 한걸음 다가가더니 뭐라고 소근거렸다. 키다리가 또 나서서 줄말무늬뜨개옷을 입은 부인의 말을 처녀에게 통역해 주었다.

《이 부인은 당신을 정신 나간 처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상을 모독하면 천벌을 받습니다.》

관객들중에는 줄말무늬뜨개옷을 입은 부인의 이야기에 공정을 표시하여 머리를 끄떡이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

줄말무늬뜨개옷을 입은 부인한테서 통을 맞은 처녀의 얼굴이 얼음장처럼 창백해 졌다. 구슬알처럼 반짝이던 푸른 두눈은 얼음장으로 둘러싸인, 아직 채 얼지 않은 호수처럼 싸늘한 빛을 내뿜었다.

《도이칠란드에서는 땡땡이 같은 너자를 보고 사용하는 경구가 있다지요? 그런 도이칠란드너자를 만나면 충고해 주려고 난 그 경구만은 도이칠란드어로 외우고 있습니다. <랑에 하레, 쿠르쳐 웨어슈란드>!...》

관객들속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그 경구를 알아 들을수 없어서 실장을 돌아 보았다. 실장이 내 귀에 대고 소근거렸다.

《머리카일은 길지만 생각은 짧다.》

줄말무늬뜨개옷을 입은 녀인이 처녀를 매섭게 흘겨 보았다. 그러거나 말거나 처녀는 손가방에서 담배가치를 한대 꺼내어 입에 척 물었다. 아양의 미소봉사를 하지 않아도 자기의 상품은 얼마든지 실현시킬수 있다는 자신만만한 태도였다.

키다리가 처녀에게 라이타를 제격 켜주면서 아까처럼 벌쭈켰다.

《난 당신의 상품이 황금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현명하군요.》

《난 키만 크지 머리카일은 길지 않은 족속이니까요.》

처녀가 장화발로 긴 의자에 냉금 올라 서더니 《안내서》땡땡이를 거머 쥔 손으로 소공원의 바깥쪽 두개의 원통형기둥이 현관을 장식하고 있는 고풍의 4층건물을 가리켰다. 우리가 차를 세워놓은 지척의 바로 그 건물이었다.

《저 집이 보이지요? 그 녀각의 사진들은 공산당이 흥하던 시절에 저기 현관앞에서 뜻 깊다고 하면서 찍은거랍니다. 썬즈프가문에서는 그것들을 아주 대단한 가보처럼 보관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공산당이 망해 버린 오늘 바로 그 앞에서 가보사진들이 허무한 추억의 상품으로 팔리우는 신세가 되어 버렸으니 이거야말로 세월의 아이로니가 아니고 뭐겠나요.》

통쾌한 열광에 휩싸인 처녀의 얼굴은 가을파리처럼 빨갭게 불 타오르고 있었다.

실장이 나의 어깨를 슬쩍 건드리며 이젠 그만 가자고 고개짓을 하였다. 나도 더 있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기분은 저지기 불쾌하였다.

## (2)

모스크바에 며칠 머무르게 된 우리 경공업과학원대표단은 2개조로 나누어 이 나라의 경공업기지를 몇군데 돌아 볼 계획을 세웠다. 그날 실장

과 내가 참관할 대상은 모스크바교외에 있었다.

그런데 유쾌하지 못한 일만 계속 겹쳐 들었다.

공장참관을 마치고 돌아 오던 길에서는 승용차가 고장이 났다. 차를 수리하느라 몇시간동안이나 지체하다나니 깊은 밤에야 시내로 향할수 있었다.

시내에 들어 서서는 또 교통사고와 맞닥 들었다.

...어떤 젊은이가 훌쭉한 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비칠거리며 큰길을 가로 질러 가고 있었다. 대형화물자동차가 쏜살같이 달려 오는데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불의의 정황에 부딪친 화물차는 차머리를 옆으로 휩 돌리면서 그 육중한 차체로 젊은이를 쳐내팔리고 사라져 버렸다.

때마침 화물차의 뒤를 따라 가던 우리가 그 끔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차를 급히 멈춰세우고 현장으로 달려 가 보니 젊은이는 락엽이 깔린 길바닥 한쪽구석에 나동그라져 있었는데 의식이 없었다. 다행히도 숨은 붙어 있었다. 입에서는 알콜냄새가 역하게 풍겼다.

우리는 그를 인차 차에 싣고 부근의 병원으로 달려 가서 입원시켰다. 코수염을 알뜰하게 기른 야간당직의사가 손으로 눈등을 부비며 환자를 접수하였다.

그런데 덤벼치는 바람에 그 젊은이의 가방은 병원에 미처 떨겨 놓지 못하였다. 이튿날 아침에야 승용차 뒤창턱에 놓여 있는 그 가방을 발견하게 되었다. 어지간히 낡은 가방이었는데 속은 텅 비어 있었다. 그래서 후날 짬이 나면 가져다 주기로 하였다.

그 빈 가방이 뒤창턱에 그냥 놓인채 이틀동안 우리 차와 동행하고 난, 다시 말하여 우리가 조국으로 떠나오기 전날 오후였다.

하루참관일정을 마치고 우리 대사관숙소로 돌아와 차에서 내릴 때 나는 뒤창턱에 놓아 둔 내 손가방을 끄당기다가 그만 그 빈 가방을 좌석바닥에 떨구었다. 실밥이 터진 가방옆구리에서는 무슨 종이장모서리가 삐죽이 빠져 나와 있었다. 무심결에 그것을 잡아 당기니 손바닥크기만한 종이장이 쑥 뽑혀 나왔다. 순간 나는 자기의 눈을 의심하였다.

지금쯤은 어느 도이칠란드사람이 모스크바관광 기념품으로 간수하고 있으리라 생각했던 사진, 만약 자기 나라로 돌아 갔다면 소련에서의 사회주의 붕괴상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출판사에 투고되었을지도 모를 사진들중의 《No 1》, 바로 가족잡바를 입은 중년사나이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난것이 아닌가. 나는 그 무슨 기상천외한 추리소설의 한토막을 보는것 같았다. 사진뒤등에는 《전선남부로 떠나면서. 1919년 10월 20일》이라는 설명문도 그대로 있었다.

속이 비어 있는줄 알았던 그 가방의 얇은 칸에

서 나머지 사진들이 다 나왔다. 《№ 2》, 《№ 3》, 《№ 4》!...

실장도 운전사도 그 사진들을 보더니 저으기 놀라 와 하였다.

어떻게 되어 이 사진들이 술에 취하여 차에 깔릴 뻔 했던 그 젊은이의 가방에 들어 가 있는지 영문을 알수 없었다. 혹시 도이칠란드관광객이 아닐까?... 다음순간 나는 모색의 놀라운 일치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 4》의 짧은 셔츠와 가방임자... 비록 사진은 6년전에 찍은 것이었지만 두사람이 서로 동일한 인물이라는것을 확인하는 데는 아무런 방해로도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가방임자는 싸도와야거리의 소공원에서 이 사진들을 팔아 먹을 잡도리였던 처녀의 오빠라는 소리였다. 이런 신기한 우연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나는 대사관에서 볼 일이 있는 실장을 남겨 둔 채 곧 차를 타고 그 병원을 찾아 갔다. 날이 밝을 때 보니 병원은 3층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다. 가방임자의 담당의사는 그날 야간당직근무를 쉰던 바로 그 교수염쟁이었다.

《그는 의식을 인차 회복했습니다. 뇌타박을 좀 받았을뿐이지요. 그런데 술만 처먹어서 야단입니다.》

의사는 환자에 대한 불만을 터놓으면서 나와 운전사를 병원후원으로 안내하였다. 아담하게 꾸러진 봇나무후원이었다.

후원 한쪽 구석의 긴 의자에는 머리를 봉대로 휘 감은 젊은 환자가 홀로 앉아서 락엽 지는 봇나무를 멍청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의사는 우리를 그쪽으로 데리고 갔다.

《그날 당신을 구원해 준 평양손님들이요, 자 인사나 하시오!》

의사의 말을 들은 환자가 우리쪽으로 고개를 돌리는데 두눈은 별경게 충혈되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내가 인사말을 건넌자마자 환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 났지만 답례할 생각을 하지도 못하였다. 그의 눈길은 내 손에 들려 있는 가방에 쏠려 있었다.

《자, 그럼 이야기들을 나누십시오.》

의사가 이런 말을 남기고 물러 가기 바쁘게 환자는 나에게 성급히 손을 내밀었다.

《그 가방을 돌려 주십시오!》

가방을 받아 든 그는 부리나케 덮개를 열어 제끼고 안에서 사진 녀장을 다 꺼내 보고서야 안도의 숨을 내쉬더니 우리에게 연신 사의를 표하였다. 우리들은 서로 통성을 하였다.

환자는 쎄르게이 이와노위치 쉰조브라고 자기 소개를 하면서 그저 쎄료자라고 불러 달라고 하였다. 그는 모스크바종합대학 졸업생이었다. 쏘련공산당이 해산되기 직전까지는 모스크바시공청위

원회에서 과장으로 일하였다고 한다. 집은 고리끼거리에 있었다.

쎄료자는 눈이며 코며 입이며가 다 신통히도 사흘전에 보았던 처녀와 비슷하였다. 첫눈에 벌써 그들이 서로 오누이사이라느것이 대뜸 알렸다.

《우린 이 사진들을 가방에서 발견하고 깜짝 놀랐답니다.》

나의 말에 쎄료자는 얼퍼름해 하였다.

《왜 말입니까?》

《우리가 이미 본 사진들이었으니까요, 쎄료자가 교통사고를 친 사흘전 바로 그날 어떤 처녀가 싸도와야거리의 소공원에서...》

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쎄료자는 갑자기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며 흑흑 흐느꼈다. 나는 공연한 소리를 꺼냈다고 속으로 후회하였다.

쎄료자가 울먹거리며 말을 힘들게 번졌다.

《그 애가... 바로 까짜라는 내 누이동생이랍니다.》

《그러리라고 짐작했었어요... 참, 이분이 쎄료자의 증조할아버지이지요?》

나는 그가 쥐고 있는 사진들중에서 《№ 1》을 조심히 뽑아 내면서 화제를 돌렸다.

쎄료자의 경건한 눈길이 그 사진을 정답게 어루만졌다.

《예,... 와짐이라고... 오랜 불쉐위크였습니다. 사회주의혁명시기 우리 증조할아버지는 크레믈린을 점령하는 력사적인 전투에도 참가하였습니다.》

혁명승리후 당은 증조할아버지를 기병련대 정치위원으로 파견하였습니다. 그런데 크레믈린전투때 입은 발목의 총상이 도져서 그만 그 발목을 자르고 의족을 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증조할아버지는 군마에서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무렵 전선남부에서는 그의 기병련대가 제니킨백과군과 힘겨운 싸움을 벌리고 있었다. 탄우를 헤치며 련대를 앞장에서 이끌어 가던 와짐은 제니킨백과군의 마지막거점인 흑해연안도시 노보로씨스크로 돌입해 들어 가다가 전사하였다.

그는 전선으로 떠나기에 앞서 이전 짜리시대의 개인은행이었던 건물, 량옆에 원통형기둥이 세워져 있는 현관앞에서 기념사진을 한장 찍었다. 싸도와야거리의 그 은행건물은 와짐의 일생에서 가장 뜻 깊은 추억이 깃든 곳이었다. 불쉐위크지하당조직의 아지트였던 바로 거기에서 그의 입당이 심의결정되었던것이다. 영원히 잊을수 없는 그 건물앞에서 그는 출전사진을 찍으면서 입당할 때 다진 맹세를 다시금 가슴깊이 되새겼다. 그렇게 찍은 사진이 바로 《№ 1》이었다.

와짐의 아들인 찌모페이, 그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군복을 입었다. 그는 군사대학도 다니었다.

그런데 대좌의 군사칭호를 받은지 얼마 안되던 1940년 여름에 뜻밖에도 도이칠란드간첩이라는

루명을 쓰고 구류되게 되었다. 하지만 찌모페이는 당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다. 설사 간첩으로 몰려 죽는다 해도 《쏘련공산당 만세!》를 부르고 죽겠다는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드디어 극단분자들이 그에게 들썩워 놓은 루명은 벗겨 졌다. 그것은 도이첼란드파쑸군대가 쏘베트조국의 심장인 모스크바로 무섭게 달려 들던 때였다.

북대한 찌모페이는 10월혁명승리 기념일을 맞으며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진행된 붉은 군대열병식에 참가하고 나서 그 길로 열병대로와 함께 전선으로 나갔다. 그는 깔리닌전선에서 사단을 지휘하다가 전사하였다.

출전을 앞두고 찌모페이도 아버지처럼 옛 은행건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사단총군기자가 찌모페이한테 간직되어 있는 와집의 출전사진을 보더니 《야, 불셰위크들의 출전은 세대를 이어 계속된다! ... 사단장동지도 그냥 출전할수야 없지요. 아버지가 사진을 찍었다는 뜻 깊은 그 장소로 갑시다.》하며 친절하게 나서주어서 찍게 되었다. 그 사진이 바로 《№ 2》였다.

두 사진은 썬쵸브일가의 귀중한 가보로 되었다. 그후 이 일가의 가보는 더 늘어났다.

와집의 손자이며 찌모페이의 아들인 이완, 즉 쉼료자의 아버지는 모스크바군관구에서 군사복무를 하고 제대되어 한동안 건설로동을 하였다. 그후 당학교를 거쳐서 모스크바의 어느 구역당 제1비서로 일하였다. 입당은 군사복무기간에 하였다.

당원이 되는것을 한생의 가장 큰 영광으로 간주하였던 이완은 마침내 그 영광을 받아 안게 되었다. 이전의 은행건물앞에서 쏘베트사회주의조국을 위한 새로운 출전의 사진을 찍으면서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한생을 빛내여 가리라 마음 다졌다. 그 사진이 바로 《영광》이라는 설명문을 가진 《№ 3》이었다.

사진뒤등에 《경사》라고 써여 저 있는 《№ 4》는 쉼료자의 입당을 축하해서 찍은 가족사진이었다. 이완은 깊은 감회를 자아 내는 그 고향의 건물앞에서 쉼료자와 까짜를 랑팔에 끼고 기념사진을 찍은후 흐뭇한 목소리로 《우리 집의 가보가 또 늘어난 셈이구나. 경사로다. 우리 까짜도 이제 크면 여기에 와서 뜻 깊은 출전의 사진을 찍게 될테지... 그렇지? 요 귀염둥이야!...》라고 하였다.

그때 까짜는 발돋음을 해서 아버지와 오빠의 불에 입을 살짝 맞추면서 방긋 웃었다...

### (3)

《그런데 까짜의 운명은 아버지가 바라는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 누이동생의 흠을 들추자니 내자신도 괴롭기 그지 없구만요...》

쉼료자는 숨을 꺾꺾거리며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구역당 제1비서로 일하기 시작한지 이태만에 홀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백혈병으로 잘못되었지요. 아버지는 채취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용케도 중학교에 다니는 나 어린 까짜가 아버지의 뒤바라지를 해드렸습니다. 그랜 원래 제 어머니를 닮아서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하였습니다.

까짜는 어머니한테서 물려 받지 않은것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회화적재능이었습니다. 그애는 어릴적부터 그림그리기에 열중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스크바미술대학에 입학한 다음부터 까짜의 성격초상은 몰라 보게 달라 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학생으로 성장한 까짜의 생활은 무척 다양해 졌다. 그 다양한 생활권에서는 무도장이 중심 자리를 차지하였다.

까짜에게서 제일 귀찮은것은 방과후에 가끔 열리는 하는 공청회의였는데 어째서인지 회의규율이 점점 물렁물렁해 저서 참가해도 그만, 참가하지 않아도 그만이었다. 얼마나 좋은지 몰랐다. 그는 강의까지 꾸며먹고 무도장행을 할 때도 있었다.

어여쁜 금발머리치녀 까짜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무도장의 인기를 독점하게 되었다. 총각들은 저저마다 그에게 춤상대가 되어 줄것을 청하였다. 까짜의 행복은 하늘에 닿았다.

하지만 그는 그 행복을 얼굴이 주근깨투성이인 한 학급의 갈랴라는 처녀에게 인차 빼앗기고 말았다. 까짜한테서 하나둘 떨어져 저 나간 총각들은 갈랴의 주위에 모여 들기 시작하였다.

까짜는 그 리유가 갈랴의 화려한 옷차림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무도장에 나타날적마다 옷차림을 새라새롭게 바꾸어 가며 처녀의 매력을 한껏 돋구는 갈랴, 그가 매일과 같이 갈아 입는 옷들은 몽땅 다 최신류행의 외국산 기성복이었다. 그러니 어찌 아름다운 처녀로 되지 않을수 있겠는가. 얼굴의 주근깨따위는 문제로도 되지 않았다. 과연 옷이 날개는 날개였다.

갈랴의 아버지는 마뜨렌코라고 부르는데 까짜의 아버지와 같은 구역당에서 조직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이완의 아래사람이었다.

까짜는 도무지 알수가 없었다. 마뜨렌코의 로임을 보면 자기 아버지보다도 적겠는데 갈랴는 무슨 돈으로 그처럼 값 비싼 옷들을 척척 사입으면서 그 번덕스러운 류행의 비위를 슬슬 맞추어 가는지...갈랴에 비해 보면 자기는 궁상스러운 촌뜨기와 다름 없었다.

어느날 저녁, 갈랴네 집에 놀러 간 까짜는 눈이 다 뒤집혀 질 지경이었다. 방안은 온통 외국제로 으리으리하게 장비되어 있었다. 국산품이란 갈랴의 어머니가 내놓은 빵과 우유뿐인것 같았다. 창밖에서는 마뜨렌코가 불러 온 노동자들이

불을 환히 켜 놓고 자가용차고를 한창 증축하고 있는중이었다. 그들에게는 품삯을 준다고 하였다.

갈라는 생글거리면서 《우린 그저 맑스주의유틸론에 기초하여 살아 가지 뭐, 물질이 1차, 의식은 2차… 그건 통담이고… 참 너네 집에도 한번 가보자꾸나, 제1비서동지의 집이니 요란할테지.》라고 하였다. 까짜는 그가 자기를 비웃는것 같이 느껴졌다.

구역당 조직부장 마프렌코는 노동자들을 고용해가면서 수입대 지출이 서로 엄청나게 차이나는 생활을 펴고 있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몇몇치 못한 일이었다. 마프렌코가 당일군인 까닭에 더욱 그러하였다.

철부지계집애도 아닌 갈라가 이런 세상살이리치를 모를리 없었다. 하건만 그는 까짜앞에서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제집 자랑을 해대었다. 상대방이 자기 아버지 상급의 딸이라는 사정 같은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것 같았다.

그날 커다란 모멸감을 안고 집으로 돌아 온 까짜는 참으로 억이 막히는 일에 또 부닥치게 되었다. 구역관의 가구공장 지배인이 시제품으로 생산한 잔등안마용 고급쏘파 한조를 구역당 제1비서네 집에 슬그머니 보내여 왔는데 아버지가 그것들을 즉석에서 되돌려 보냈다는것이다.

까짜는 울음을 터트리며 난생처음으로 아버지를 원망하였다.

《아버지, 아버지는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해놓았어요? 그래도 명색은 구역당 제1비서의 딸인 내가 지금 어떤 렬등감을 안고 사는지 아버지는 모를거예요. 남들은 다 어떻게 사는지 알거나 해요?》

이완은 딸을 놀라게 쳐다보았다.

《뜻밖이다. 그래, 우리 집 생활이 어드래서 렬등감을 느낀다는거냐? 까짜야, 네가 말하는 그 남들이란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그들이 정당한 생활을 누리는것 같지 않구나. 정신 차려라. 너야 당일군의 딸이 아니냐.》

까짜는 아버지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흥, 마프렌코는 뭐 당일군이 아닌가 하고 속으로 코방귀만 뀌었다.

아버지에 대한 까짜의 투정질은 자본주의적현상이 생산단위와 비생산단위, 지도단위와 집행단위전반에 만연되어 가고 있으며 권력과 구명수를 타고 성행하는 온갖 형태의 부정협잡행위가 성실한 근로를 조롱하는 쏘련의 변질된 사회에 대한 환멸과 결부되어 있었다.

까짜는 비사회주의적인 부정협잡으로 치부하면서 물질적포만을 뽐내는자들을 극도로 증오하였다. 하지만 그들의 사상은 증오할줄 몰랐다. 단지 불로소득으로 잘 먹고 잘 사는자들! 하는 정도로 그치는, 어떤 의미에서는 시샘에 가까운 무사장적인 증오였다. 그러한 증오는 자기 자신도 부

정축재의 길로 내몰수 있는 위험한 증오이기도 하였다.

우리 집은 무엇이 모자라서 마프렌코네처럼 살지 못하는가? 바로 이것이 까짜가 품고 있는 불만의 기본내용이었다. 자기 아버지가 구역당 제1비서라는 특권관념이 거기에 깔려 있다는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었다.

도저히 이겨 내지 못할 자본주의풍조의 사나운 파도속에서 원칙과 청렴결백이라는 판자조각에 매여 달려 가지고 홀로 몸부림치는 가련한 표류자… 까짜는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하였다. 아버지에 대한 견해가 설사 그렇다면 아버지가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겠는가 하는것도 생각해 봐야 하겠는데 까짜에게서 그것은 생각밖이었다. 온갖 자본주의적인 사상조류가 쏘련이라는 대국을 아예 파멸시킬수도 있다는 아버지의 크나큰 위구심을 가장 가까운 혈육인 딸은 알아 주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완은 이것이 슬펐다.

《까짜야, 너는 왜 자꾸 그러느냐? 사회주의를 위하여 한생을 바친 네 증조할아버지나 할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그러지 말아야지, 안타깝구나.…»

까짜는 아버지를 오히려 가소롭게 여겼다. 마프렌코 같은 사람은 《물질이 1차》라는 리치를 깨닫고 평평거리며 사는데 동 키호페 같은 아버지는 손가락이나 빨면서 낡아 빠진 《의식》을 수호하려드느것이다.

불쌍한 홀아비인 아버지를 괴롭히는 까짜의 마음도 쓰리었다. 까짜가 아버지앞에서 이런저런 타발질을 한것은 단지 자기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 잔등안마용고급쏘파가 되돌려 보내여졌을때 먼저 생각한것도 허리를 잘못 쓰는 아버지가 아니었던가.…»

《아무튼 그때부터 우리 까짜에게는 타발이 어찌나 많아 졌는지 모릅니다. 옷타발, 집타발, 승용차타발… 까짜는 온갖 타발로 빚어 진 처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나도 입이 닳도록 타일러 주었지만 까짜는 다 귀등으로 흘렸습니다.

얼마 후 까짜에게는 아주 엉뚱한 꿈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꿈은…»

세료차는 입맛을 다시다가 말을 이었다.

《…그 꿈은 어떤 외국인이 안겨 준것이였습니다나.…»

…쏘련구두공장과와의 합영을 위해서 모스크바에 상주하고 있는 맥컨리라는 미국의 젊은 기사, 부드러운 지성이 온몸에 흘러 넘치는 그 미남자를 까짜는 무도장에서 사귀었다.

맥컨리는 로어를 제 나라 말처럼 하였다. 그런데 춤동작이 서툴러서 웃음을 자아냈다.

돈은 많은것 같은데도 수수한 격자직외투 하나만을 늘 입고 다니었다. 더 좋은 외투는 없는가

고 물었더니 《예까찌리나 이와노브나, 난 직선적인 생활을 좋아 한답니다. 당신도 그러리라고 짐작되는구만요, 그러니 내 외투의 격자무늬는 우리의 두생활이 서로 교차하고 있음을 상징해 주는 셈이 아닌가요.》라고 속삭이며 빙그레 웃었다. 재미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까짜보고 꼭 《예까찌리나 이와노브나》라고 부르면서 깃듯이 존대해 주었다.

맥킨리는 까짜와 사건지 얼마 안되어 그에게 미국산 고급구두와 진바지를 선물하였다.

《고마워요. 그런데 어째서 당신은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가요?》

까짜의 이런 호기심 어린 물음앞에서 맥킨리는 얼굴을 붉히며 한참동안이나 바재이다가 사귀어서 처음으로 《까짜!》하고 불렀다. 그리고는 숨이 막히도록 까짜를 꼭 그러안으며 잔잔한 목소리로 《난 아직 미혼이요!》하고 대답하였다.

까짜는 자기의 귀를 의심하였다. 그것은 분명 사랑의 고백이었다. 그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맥킨리에게 첫 사랑의 입술을 맡기었다.

까짜는 맥킨리를 끝없이 사랑하였다. 그러다나니 맥킨리의 집이 있다는 마천루의 도시, 뉴욕도 사랑하게 되었다. 까짜는 뉴욕을 《황마의 도시》라고 한, 자기가 사는 거리의 상징적 주인인 고리끼가 참 우스웠다.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 뉴욕! ... 그는 생각만 해도 속이 활랑거렸다. 모스크바의 고리끼거리마위는 촌거리 같아서 잊기도 싫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세료자는 까짜와 맥킨리와의 깊은 관계를 모르고 있었다. 다만 맥킨리라는 미국청년이 이따끔 까짜의 추상대자로 되어 주군한다는 정도로나 알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하루는 까짜가 느닷없이 맥킨리를 집에 데리고 왔다. 세료자의 눈에도 아주 젊잖고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청년이었다.

맥킨리는 벽에 걸려 있는 쥘조브가문의 사진들에 류다른 관심을 표시하면서 감동을 금치 못해 하였다. 와침이 의족을 한 상태에서도 출전사진을 찍고 전선으로 달려 나가 장렬하게 전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순수건으로 눈굽을 흘리며 고인을 추모하여 경건히 묵상까지 하였다.

《정말 가보라고 할수 있는 사진들입니다. 난 멀리 대양 건너의 시민이지만 로씨야혁명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쥘조브가문에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는 아주 진지한 목소리로 가만가만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 말의 진실성에 아무런 의심도 가지지 않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어딘가 모르게 강한 인력이 느껴 지는 청년이었다.

가보사진들을 여러번이나 주의 깊게 관찰하고

나서 세료자와 자리를 같이 한 맥킨리는 까짜가 끓여 온 커피로 목을 한모금 추기더니 문득 이렇게 물었다.

《세르게이 이와노위치, 크레믈린전투때 어떤 놈이 당신의 증조할아버지를 부상시켰는가요?》

세료자는 어깨를 으쓱하였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노보로씨스크전 투때 그분을 쓰러뜨린 놈은?...》

《이제 와서 그런걸 알아서 뭘 하겠습니까.》

맥킨리가 갑자기 커피잔을 으스러지게 틀어 잡았다.

《알아야 합니다. 복수를 해야지요! 당신은 마음이 너무 무릅니다.》

《복수요?...》

너무도 돌발적인 주장앞에서 대답이 궁해 진 세료자는 커피잔을 뱅글뱅글 돌리기만 하였다.

《왜, 너무 잔인하다는건가요? ... 그렇다면 에드몽 당페스의 복수도 잔인하단 말입니까?》

맥킨리의 그 부드러운 눈에서 시퍼런 섬광 같은것이 번뜩이었다. 그것은 《바스커빌가문의 개》도 순간에 전몰시킬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살기였다.

세료자가 웃었다.

《맥킨리씨, 그럼 당신에게는 당글라르나 페르낭, 빌포르와 같은 복수대상이 있어서 그러는군요?》

《있지요!... 미안합니다. 피방을 튀는것 같은 소리로 당신을 놀래워서... 그 바람에 쥘조브가문에 대한 좋은 추억이 깨뜨려 졌구만요.》

그의 눈빛은 인차 바뀌어 졌으나 얼굴은 고통스럽게 이그러 져 있었다. 세료자는 그의 얼굴을 쳐다보기가 딱했다.

《자,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자고르스크에 구두전시회를 조직해 와서... 이제 그리로 가야 합니다.》

맥킨리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 났다.

《자고르스크요? ...거긴 우리 증조할아버지의 고향인데...》

맥킨리의 얼굴이 금시 밝아 졌다.

《아, 그렇습니까. 내 거기에 가서도 그분을 추억하겠습니다. 참, 뜻 깊은 방문이었습니다. 환대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다가 달려 온 까짜가 세료자에게 정중히 목례를 표하는 맥킨리한테 매달렸다. 그들의 포옹은 오래동안 계속되었다.

맥킨리를 보내고 난 세료자는 그에 대하여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총체적인 인상은 좋다고 볼수 있었다. 그런데 그의 눈에서 번뜩이던 살기는 좀처럼 지울수 없었다. 맥킨리는 결코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었다. 무서운 복수심으로 가슴을 끓이는 사나이였다. 그 복수대상이 누구이겠는가

하는것은 물론 세료차가 상관할바가 아니었다. 하지만 맥컨리라는 사람자체가 누구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을수 없었다. 왜냐하면 까짜가 그와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것이 느껴 졌기때문이었다.

모스크바에는 외국인과 이러저러한 개인적관계를 맺은 처녀들이 많았는데 그 관계가 처녀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시공청일 군인 세료차는 그러한 실례를 허다히 알고 있었다. 최첨단의 군수용전자설비를 생산하는 공장의 한 처녀타자수는 외국간첩의 마수에 걸려 비밀 자료를 계통적으로 빼내다가 적발되어 법적제재까지 받았다.

그렇다면 맥컨리는 어떤 사람이겠는가? 그에 대한 세료차의 답안은 백지나 다름 없었다. 세료차는 까닭 모를 불안이 엄습해 움을 느꼈다.

그런데 그날 까짜자신이 빨강계 상기된 얼굴을 해가지고 맥컨리를 사랑한다고 오빠에게 실토하였다.

세료차는 넉넉 뛰었다.

《뭐라구?! 똑똑히 알지도 못하는 외국인과련해질까지 한단 말이나? 너 정신 있니?》

까짜는 오히려 제편에서 발끈하였다.

《뭐 어쨌단 말이에요. 고리끼도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고 했다는걸 그래 오빠 몰라요?》

뉴욕을 《황마의 도시》라고 해서 까짜의 비웃음을 샀던 고리끼가 귀에 쏙 들어 오는 소리도 한것이다...

붓나무에서 떨어 진 락엽 하나가 세료차의 무릎에 내려 앉았다. 그는 그 누르끼레한 잎사귀를 바라보면서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었다.

《얼마 지나서 까짜는 임신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맥컨리가 정식결혼을 할 때까지는 아이를 보지 말자고 간청해서 류산시켰지요.

난 근심을 끼칠가봐 아버지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도 못하고 혼자서 뺨가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집에는 설상가상으로 커다란 불행이 들이닥쳤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개편주의자인 구역당 조직부장 마프렌코와의 사상적대결상태에 있었습니다.

마프렌코가 어떤 자였는줄 압니까? 무서운 관료주의자이고 탐욕배였습니다. 그는 당세도로 전횡을 부리면서 당조직권을 부정축재의 좋은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퇴물을 받는것, 이것은 그의 당사업의 궁극적목적이었습니다. 엄중하게도 마프렌코는 외국의 업체들에 일방적인 유리한 투자조건을 지어 주는 대가로 막대한 액수의 사례금을 받는 국가반역적인 범죄도 서슴지 않고 감행하였습니다. 고르바초브의 <새로운 사고방식>에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나라의 자본주의화가 멀지 않게 바라보이는 의미심장한 환경에 맞추어 당권을 금권으로 깡그리 바꾸어 가는 <영민한> 마프렌코였습니다.

그런데 마프렌코와의 투쟁은 너무도 힘겨웠습니다. 비록 마프렌코는 우리 아버지의 아래사람이었지만 시당과 주당에 든든한 세줄을 늘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아버지를 발아래로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프렌코의 딸은 또 딸대로 우리 까짜를 로골적으로 비웃고 깔보게 된것입니다.

마프렌코와의 대결에서 우리 아버지는 끝내 패배자로 되어 출당철회까지 당하였습니다. 승리자의 월계관을 쓰고 구역당 제1비서로 승급한 마프렌코는 우리 아버지가 일을 보던 방으로 보무당당히 들어 섰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우리 아버지는 자식들의 손바닥에 손가락글을 쓰는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간신히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병고에 시달리며 인생의 마지막 나날을 이어 가고 있을 때 이 나라의 병든 사회주의와 당도 마지막운명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공산당을 완전히 해산할데 대한 엘친의 정령이 발표된 그날 아버지는 우리 자식들에게 무슨 말인가를 급히 하고 싶어 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안면근육이 이미 마비되어 멍청한 표정밖에 짓지 못하는 아버지... 하지만 두눈에서는 절절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내려 배개를 적시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손바닥을 열른 내밀어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도리질을 하더군요. 이번에는 까짜가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주억거리며 딸의 손바닥을 어루만지다가 거기에 글을 한자한자 그려 갔습니다.

<쏘련공산당 만...>

아버지는 글자그리기를 채 끝 맺지 못하고 물기어린 두눈을 푹 부릅떴습니다...》

세료차의 얼굴은 온통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다.

이완, 비록 아무런 면식도 없는 이국의 고인이었지만 그의 최후를 그러 보느라니 나도 눈시울이 젖어 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세료차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나서 그때의 일을 계속 더듬어 갔다...

...결국 이완은 《쏘련공산당 만세!》라는 무언의 구호를 최후의 무기로 삼아 숨이 지는 마지막 순간마저도 사회주의와 당을 옹호하는데 바쳤다.

까짜는 어째서 아버지가 바로 자기의 손에 그 구호를 새겨 갔는가 하는것을 리해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것은 특히 까짜에게 남긴 아버지의 절절한 유언이기도 하였다.

아버지를 공동묘지에 묻고 돌아 온 까짜는 책상우에 놓여 있는 고인의 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이렇게 외쳤다.

《사랑하는 아버지, 용서하세요. 이 불효막심한 딸은 아버지의 그 유언마저도 따를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공산당을 것처럼 량심적으로

받들었던 아버지자신도 종당에는 무엇을 얻었어  
요? <만세!>로 떠받들 공산당은 이 세상에 없  
어요. 있다면 저주로운 마트렌코페거리 같은것들이  
있을 따름이에요. 망해서 짜지요. 짜!...

까짜의 독백을 곁에서 들은 켄료자는 펄쩍 놀  
랐다. 까짜가 저런 말까지 입에 올리게 되었던  
말인가?

켄료자가 《까짜!》 하고 꺾 소리쳤지만 까짜는  
그 소리를 들었는지 말았는지 제 하고 싶은대로  
큼직한 고뿌에 《위드까》를 넘쳐 나도록 붓고  
나서 단숨에 쪽 들이켰다. 그리고는 또 한고뿌...  
갑자기 까짜는 두주먹을 움켜 쥐고 발작적으로  
부르짖었다.

《아버지는 바보였다, 바보!...》

켄료자는 참을수가 없어서 까짜의 팔목을 으스  
서리게 틀어잡았다. 그러자 까짜는 해죽거리며  
허쵸부라진 소리로 《오빠, 내가... 실언을 했나...  
이걸 봐요... 이제 좋은 이야기를 할게요.》 하였던

술 취한 년과 더는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켄료  
자는 물러 서고 말았다.

그런데 까짜는 벽에 걸려 있는 가보사진들을  
손가락질하며 또 이렇게 뇌까렸다.

《오빠! ... 털외투...를 입고 있는 저 대좌는 누  
군가요?... 공산당...의... 감옥에서 죽을 신세가...  
되었을 때에도 그 무슨 만세! 를... 부르고 죽을  
어리석은 각오를 했다는...그 찌모페이지요? 바  
로 저 바보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바보로 길렀답  
니다.

아유, 오빠!... 날 그렇게 보지 말아요... 무섭  
네...계속 들어 봐요. 얼마나 재미 있나...

이번엔 가족잡바차림의... 저 기병련대 정치위  
원! ... 다리병신이 되어 가지고도... 어리석은 출  
전사진을 찍고... 전선으로 달려 가 죽은 와짐!  
...바로... 저 바보중조할아버지가 또한... 할아버  
지를 바보로 키웠단िका요...》

까짜는 《제1바보 와짐, ... 제2바보 찌모페이,  
... 제3바보 이완...》 하면서 《바보》의 순서를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꼽아갔다.

켄료자는 어떻게 되어 까짜가 저 지경이 되었  
는지 도무지 종잡을수 없었다. 만약 작가들에게  
이런 사연을 하소연하면 그들도 확실히 이상하오,  
그건 성격발전론리에 맞지 않소, 너무도 엄청난  
비약이거든 하며 머리를 기웃거릴것은 뻔하였  
다.

그때 맥컨리가 집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필경  
까짜는 켄료자의 주먹에 만신창이 되었을것이  
다.

맥컨리는 까짜에게 달려 드는 켄료자의 앞을  
완강하게 가로 막으며 《켄르게이 이와노위치, 부  
모를 다 잃고 이 험한 세상에 오누이만 남았는데  
왜 이럽니까? 제발 진정해 주십시오!》 하고 안  
타ikai 간청하였다.

켄료자도 가슴이 미여지는것 같았다.

까짜가 오빠를 부둥켜 안으며 발버둥쳤다.

《오빠!... 날... 용서해 줘요!...》

그런데 다음 날 켄료자가 밖에 나가보니 공산  
당해산을 지지환영하는 글발의 프랑카드를 앞세  
우고 거리를 누벼 가는 한무리의 시위자들속에  
까짜가 섞여 있는것이 아닌가. 켄료자는 인파를  
헤집고 들어 가서 까짜를 끌어 내려 하였다.

까짜는 켄료자의 팔을 나꾸채며 날카롭게 내소  
였다.

《네번째 바보같은니!...》

켄료자는 너무 기가 막혀 뭐라고 했으면 좋을  
지 몰랐다. 진실로 반대해야 할 대상은 당의 변  
질, 사회주의의 변질이건만 어리석게도 까짜는  
당과 사회주의 그 자체를 반대하고 있으니 얼마  
나 한심한 바보인가. 하긴 까짜자신도 이미 변색  
된 인간이었다.

켄료자의 눈앞으로는 시위군중의 물결이 계속  
흘러 가고 있었다. 《황금소나기》가 쏟아 지는  
자본주의사회를 끝없이 동경하면서 쓰련도 자본  
주의화되면 아주 멋들어지게 살것만 같은 환상에  
한껏 들떠 있는 무리였다.

그때 켄료자는 맥컨리를 또 보게 되었다. 여느  
날처럼 격자직외투를 입은 그가 시위대렬과 평행  
선을 그으면서 대오속의 누구인가를 찾고 있었다.

혹시 까짜를 찾는것이나 아닐가?... 그렇다면 다  
행스러운 일이었다. 맥컨리는 까짜가 이런 시위  
에 참가하는것을 원하지 않을수 있었다. 로씨야  
혁명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던  
맥컨리가 아니었던가.

켄료자는 기대를 가지고 술술 따라 갔다. 그런  
데 맥컨리는 켄료자의 기대와 정 반대로 되는 행  
동을 하였다. 대오속의 까짜를 발견하자 반갑게  
웃으며 키스를 보낸다는 손시늉을 하지 않는가.  
까짜도 손을 마주 흔들어 주며 화답을 하고...

켄료자는 침을 뱉고 돌아 섰다. 맥컨리!...진속  
은 똑바로 알수 없었지만 아무튼 궁냥은 깊은 사  
나이가 아니겠는가고 생각해 왔는데 이제 와서  
보니 아무런 사회정치적주견도 못 가진채 다만  
처녀들의 마음을 끌기 위하여 이렇게도 행동하고  
저렇게도 행동하는 한갓 너절한 난봉군에 불과  
한 자였다...

《...맥컨리는 까짜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뉴욕  
으로 돌아 가 버린 후 오늘까지 한해가 다되도록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까짜를 실컷 뭉  
락하고는 헌신짝처럼 차던진것이지요. 까짜는 절  
망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신세를 망  
쳐 놓았으니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켄료자의 태도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해 졌다.  
누이동생과 관련한 모든것을 아예 다 체념해 버  
려서인지... 하지만 가슴속에는 새까만 재가 들어  
찼을것이다.

켄료자가 나를 찬찬히 쳐다보며 물었다.

《참, 진옥부인은 전에 우리 나라에 와서 류학  
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무슨 소린지?》  
《로어를 너무도 잘해서 그렇습니다. 발음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니, ... 난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왔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나의 생각은 여전히 까짜한테 가 있었다.

《지금 까짜는 어떻게 지내나요?》

《매사에 나와 엇서군 하지요. 아버지의 사망과 맥컨리의 배반은 까짜의 성격을 놀라울 정도로 이그러뜨려 놓았습니다. 웃는것도 어찌나 피상하게 웃는지...》

나는 까짜의 얼굴에 언뜻언뜻 비졌다가 번개같이 사라지곤하던 그 기묘한 웃음이 떠올랐다. 그 웃음에 그런 불행이 안받침되어 있었던 말인가.

《까짜도 이제 와서는 맥컨리를 저주하겠구만요.》

나의 말을 들은 쎄료자는 픽- 하고 코웃음을 쳤다.

《차라리 그랬으면 좋거나 하게요. 맥컨리가 이제 다시 나타나 자기를 뉴욕으로 데리고 갈것만 같은 환상에 사로잡혀 있지요. 거리에서 격자직 비슷한 외투만 보아도 정신 나간것처럼 운답니다.》

자기가 그린 맥컨리의 사진을 침대머리맡우에 아직 그대로 놔두고 있으니 더 말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제 가문의 사진들은 내다 팔려고 하고... 미친 년이지요.》

쎄료자가 그 가보사진들을 도로 찾게 된것은 그의 공청시절친구의 덕이었다. 그 친구가 때마침 싸도와야거리를 지나다가 외국인구매자들과 흥정판을 벌리고 있는 까짜한테서 빼앗아 냈다고 한다. (아마 우리가 자리를 뜬 후에 있는 일일것이다.)

쎄료자는 까짜를 가슴에서 영영 지워 버리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보니 눈물이 앞을 가리웠다. 그는 말세가 다가온것 같은 허무감을 안고 친구의 집에서 밤 늦도록 술을 퍼마셨다. 그리고는 만취되어 집으로 돌아 가다가 차에 치운것이 다...

쎄료자는 자기 아버지가 젊었을 때처럼 건설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일감이 없어서 야단이라고 하였다.

나는 쎄료자에게 까짜가 문병을 오지 않았는가고 물어 보았다.

쎄료자가 무릎을 가볍게 쳤다.

《참, 우리 까짜가 부인을 인상깊이 기억하고 있더군요. 부인의 눈길을 보니 언니처럼 느껴졌답니다. 무서운 언니, 슬퍼 하는 언니, 정다운 언니...》

《거, 참 복잡한 언니구만요. 그래, 언제 왔었어요?》

《바로 두시간전에... 엉뚱하게도 술병을 들고... 둘이 함께 마셨지요. 그리고 서로 붙들고 울고...》

쎄료자는 눈을 습벽이다가 다시금 눈물을 똑똑

떨구었다. 그들 오누이에 대한련민의 정이 내 가슴에 젖어 들었다.

《기빠요. 화해했으니...》

《화해? ...그앤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답니다.》  
우리는 쎄료자와 쓸쓸하게 작별하였다.

나는 이런 말로 작별인사를 대신하였다.

《난 그저 쎄료자네와 같은 로씨야의 가정들이 불행을 겪지 않기를 바래요. 그 사진들을 잘 간수해요. 그리고 까짜가 가문의 그 훌륭한 혈통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잘 이끌어 줘요.》

×

나는 쎄료자와의 기약 없는 작별이 불현듯 상봉으로 이어 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도 허전한 상봉이었다.

쎄료자를 비행장에서 배래워 줄 기회는 있었다.

모스크바를 경유하는 우리 연구소의 외국출장자들 역시 다음날 비행기로 떠나는데 그들을 배래워 주자고 해도 어차피 비행장으로 나가야 했다.

그런데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것이 있었다. 쎄료자에게 기념으로 뭘만하것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기때문이었다. 다행스럽게도 까짜의 뭍은 있었다.

우리 집에는 내 친구인 녀류화가가 바로 이틀전에 나의 생일선물로 가져 온 한폭의 조선화가 있었다. 아침도를 피어 나는 아름다운 대동강에 새들이 날아 드는 그림이다. 인민예술가의 원숙한 필치가 습배인 그 그림은 정말 훌륭하였다. 내 친구에게는 후날 량해를 구하기로 하고 나는 그 그림을 까짜에게 보내줄 작정을 하였다. 물론 쎄료자에게 줄수도 있었다. 하지만 까짜는 미술을 전공하지 않는가.

극장에서 쎄료자와 만났을 때 나는 까짜의 안부를 묻는것을 잊지 않았다. 그런데 쎄료자는 《그저 존재하고 있지요.》 하고 대답을 얼버무리고 나서 화제를 슬쩍 바꾸었다. 오누이사이가 또 어석버석해 저서 그러는것 같기도 하였다.

아무튼 《존재》하고 있다니 까짜는 나의 성의를 받아 안게 될것이다. 그가 얼마나 기빠 하겠는가. 나는 다음 날 아침, 비행장역사 기다림칸에서 쎄료자와 만났다.

쏘파에 나란히 앉자 쎄료자가 나 보고 《참, 진옥부인, 난 부인의 가정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구만요.》 하였다.

나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남편은 군관이라는것, 지방출장이 많다는것, 지금도 출장중이라는것, 아들은 둘인데 쌍둥이라는것, 아버지의 뒤를 이어 둘 다 군대에 나갔다는것...

나는 얼마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인민군부대들을 현지도하시다가 우리 애들을 만나 주신 감격의 사연도 터놓았다.

《축하합니다. 진옥부인!...》

쎄료자는 나의 손을 덥석 잡아 머리로 높이 쳐들어 주기까지 하였다.

《집에는 고등중학교에 다니는 딸애가 하나 있

어요. 순희라고 부르지요. 바이올린을 아주 잘 켜  
드립니다.》

《앞으로 음악대학 같은데 가야 하겠구만요.》

《아니... 다음 해에 졸업인데 오빠들처럼 군데  
에 나가겠다고 해요.》

《그 순희가 보고 싶구만요.》

개찰시간이 되었음을 알리는 역방송원의 목소  
리가 들려 왔다.

세료자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몸을 일으켰  
다.

《진옥부인, 조선로동당창건 55돐때 또 오겠  
습니다.》

나는 전날 극장마다에서 구호판을 가리키며 세  
료자가 나에게 뭐라고 소리치던 생각이 났다. 아  
마 이 말을 했으리라.

나는 그림을 쓴 종이를 서둘러 풀어 헤치고 세  
료자에게 보여 주었다. 그림을 황홀한 눈길로 바  
라보던 세료자가 두손을 마주 비비며 《아, 명화  
로구만요!》하고 못내 감탄하였다. 그런데 그는  
그 그림을 자기한테 주려는것으로 알고 있었다.

나는 그림을 다시 종이로 싸면서 《미안해요.  
세료자의 뚝은 다음번에... 이젠 까짜에게 주세  
요.》하고 부탁하였다.

《까짜?!》

세료자는 거의 신음소리에 가까운 음성으로 이  
렇게 반문하였다. 그의 얼굴에는 먹장구름 같은  
것이 언뜻하였다.

《내 뭘 숨기겠습니까, 진옥부인, 우리 까짜는  
모스크바에, 아니 우리 나라에 없습니다.》

《예?!》

《8년전 그때 내가 말하던 그 맥컨리라는 미국  
사람이 생각나겠지요? 그 사람이 모스크바에 다  
시 나타나서 우리 까짜를 껴여 갔답니다. 나도  
모르게... 까짜한테서는 몇해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평양으로 떠나오기 바  
로 며칠전, 뜻밖에도 나는 까짜의 편지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아!... 가슴이 터져 와서 말을 더  
못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진옥부인!...》

나에게 황황히 작별인사를 하고 돌아 서는 세  
료자의 얼굴에는 눈물이 번들거렸다. 도대체 까  
짜가 어떤식으로 존재하고 있기에 세료자가 저러  
는것일까?... 까짜로 하여 우리의 작별은 8년전의  
그때처럼 쓸쓸해 졌다...

×

세료자가 제 나라로 떠나간지 얼마 안되어 나  
는 뜻밖에도 그한테서 편지를 받았다.

두툼한 봉투안에는 여러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  
는데 글머리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사랑하는 오빠! 이 못난 누이동생때문에 얼마  
나 속을 태우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오빠가 속  
을 태울만한 가치도 못 가진 버리지 같은 존재예  
요. 나는 다만 맥컨리한테서 들은 옛이야기 하나  
를 오빠에게 전해 드리려고 해요...》

세료자가 말하던 까짜의 편지라는것을 직감한

나는 저으기 흥분된 심정으로 읽어 내려 갔다.

《...오빠는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태어난 자고르  
스크가 자하르라는 성을 가진 어떤 백작가문출신  
자의 향촌이기도 하다는것은 알고 있겠지요? 이  
름 같은것은 아마 잊어 버렸을거예요. 브로브  
까...》

그는 10월혁명이전시기에는 2등대위로 군복무  
를 하였고 그후에는 제니긴장군과 함께 싸우다가  
피눈물을 뿌리며 정든 로씨야땅을 떠나갔다고  
해요.

다행히도 적지 않은 금품을 간수하고 있었기때  
문에 살아 가는데는 근심이 없었다고 해요. 하지  
만 잃은것은 너무도 많았대요. 큰 공장과 은행,  
호화로운 저택과 별장, 거기에서 꽃 피나던 안락  
한 생활... 맥컨리의 말에 의하면 이 모든것을 사  
회주의혁명이라는 무지막지한 락탈자에게 강그리  
다 빼앗겼다더군요.

오빠는 우리 집 가보사진의 배경전물인 싸도와  
야거리의 그 4층집이 10월혁명이전시기에 누구네  
은행이었다는것이야 기억하고 있겠지요. 그 자  
하르네 은행이 아니었나요.

복수를 맹세한 자하르백작가문은 비록 이역땅  
에서 살았지만 미국사람들의 후원을 받으며 쏘베  
트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원거리투쟁을 대를 이  
어 꾸준히 벌려 나갔어요. 아니 원거리투쟁만 한  
것도 아니였어요. 제2차세계대전이 일어 나자 미  
군부대의 병기군속이 된 브로브까의 아들인 찌혼  
이라는 사람은 북아프리카전선에서 도이첼란드군  
대원으로 넘어 가 자기를 블라소브의 <로씨야군  
단>에 보내줄것을 열렬히 청원하였어요. 그리하  
여 찌혼은 <로씨야군단>의 참모장교로서 도이첼  
란드군대와 함께 붉은군대를 반대하여 직접 싸웠  
어요. 그러니 우리가 전에 학교에서 배운 표현대  
로 말한다면 우리 썬조브가문과는 계급적원썬인  
셈이지요.

우리 증조할아버지는 소년시절에 브로브까네  
저택의 정원지기로 일하면서 온갖 천대와 멸시를  
다 받았더군요. 맥컨리의 말을 듣고서야 나는  
그에 대하여 아버지한테서 들었던 기억이 되살아  
났어요. 증조할아버지는 그런속에서 혁명가로  
성장하여 자하르네 은행을 볼셰위크지하당조직의  
아지트로 만들어놓기까지 하였어요.

2등대위시절에 브로브까는 지하에서 숨어 돌아  
가는 우리 증조할아버지를 붙잡으려고 몇번이나  
시도하였지만 종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마침 크레믈린전투때 맞닥들었는데 란  
알은 증조할아버지의 심장을 꿰뚫지 못하고 발목  
쪽으로 편차를 냈다나요. 하지만 하느님은 노보  
로씨스크전투때 천재일우의 기회를 다시금 마련  
해 주었다고 말하더군요.

오빠는 이 글을 보면서 의아해 할거예요. 미국  
사람인 맥컨리가 이런 내용을 어떻게 다 알가?  
하고 말이에요. 나역시 그랬대요.

맥컨리는 비양조로 이렇게 주어 섬기지 않겠나

요.

<내 이미 이야기한것 같은데... 난 로씨야혁명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그 리유로 말한다면...>

오빠, 놀라지 마세요. 맥컨리, 바로 그가 뽀로브까의 증손자였어요!...>

나는 그만 눈길을 딱 멈추었다. 쎄료자가 그저 《너절한 난봉군》이라고만 생각했던 맥컨리!... 그가 이러한 정체를 숨기고 있었던 말인가. 무서운 일이었다.

편지내용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었다.

《...맥컨리는 흥이 나서 계속 지껄여 댔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당신을 몇번 건드리고는 돌아 설 작정이었소. 당신의 오빠도 역시 남자이니 이에 대해서만은 이해해 주리라 믿소. 그런데 뜻밖에도 당신이 우리의 숙적인 썬조브가문의 후손이라는것을 알게 되지 않았겠소. 뉴욕의 우리 집에는 우리 자하르백작가문의 소유였던 공장파 은행, 저택과 별장, 사진들이 다 그대로 보관되어 있소, 은행건물사진만은 미쳐 가지고 가지 못해서 후에 찍어 오게 하겠소. 그 건물을 구역썬베트가 차지하고 있던 때여서 지붕우에는 붉은 기발이 휘날리더군. 우리 집에서는 이를 갈면서도 그 기발을 사진에서 지워 버리지 않았소. 복수심을 더욱 가다듬기 위해서였소.

당신네 집 벽에 걸려 있는 사진, 바로 그 은행건물을 배경으로 하는 사진에서 철천지원썬들의 얼굴을 직접 눈으로 익히게 되었을 때 내 가슴속에서 끓어 오르던 환희와 증오를 무슨 말로 표현했으면 좋을런지...

내가 와집을 추모한다고 하면서 사실 속으로는 어느 분들을 눈물 겹게 추모했는지 아오? 한 많은 이국살이를 하다가 눈도 감지 못한채 세상을 떠난 우리 뽀로브까증조할아버지와 사나이의 응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뽀로브산놈들한테 붙들려 한생을 마친 우리 썬조할아버지였소.

하지만 나는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그 썬조브가문에 대한 고증의 정확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하여 당신의 오빠에게 많은것을 물었겠소. 내가 자고르스크에 구두전시회를 조직해 놓았다고 한것도 실상은 거기가 와집의 고향이 맞는가 하는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소.

나는 복수하기로 마음 먹었소. 그것도 아주 통쾌하게! ... 복수계획은 두 단계로 설정해 놓았소. 제1단계과제는 까짜, 바로 당신을 반사회주의분자로 만드는것이였소.

우리 가문은 그러한 공작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도 있지. 하지만 그것은 쓰디쓴 경험이었소...>

맥컨리의 말을 들어 보니 그의 할아버지 썬조는 <로씨야군단>에서 복무할 때 블라썬조브장령의 지시를 받고 작센하우젠수용소의 특별구역 <아> 감방에 갇혀 있는 한 썬조군포로를 전향시키는데 달라 붙었대요. 그 포로가 누구였는지 이세요?

놀랍게도 썬조브의 딸아들 야꾸브였어요.

썬조는 야꾸브에게 당신의 무정한 아버지는 당신을 파울루스원수와 교환할때 대한 도이썬란드측의 아량 있는 제의를 뽀로브하게 일축해 버렸다, 당신은 버림을 받은 몸이다, 결심하라,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들이댔어요. 그런데 야꾸브는 반역자! 하고 고향을 지르며 썬조의 면상을 후려쳤다더군요. 야꾸브에 대한 사상전향공작은 썬조이 <로씨야군단>에 나타나기전에도 이미 여러번 진행되었는데 다 실패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우리 가문에서는 볼셰위크의 사상은 오직 폭력으로 짓눌려야 한다는것을 하나의 좌우명으로 삼게 되었소. 하지만 사회주의가 꼭지 떨어 질 도마도처럼 흐물흐물해 지기 시작한 흐루썬브의 집권시기에 이르러서는 미국사람들의 본을 받아 그 좌우명을 좀 수정하였소. 흐루썬브가 맑스-레닌주의를 수정하는데 상응하게 말이요. 그것은 서방의 사상문화와 돈만 잘 활용해도 붉은기를 삼색기로 얼마든지 바꾸어 놓을수 있다는 새로운 결론에 기초한것이였소.

당신은 물론 야꾸브와는 비교도 안될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였소. 하지만 나에게는 역시 흥미 있는 대상이었소. 당신은 우리의 숙적, 볼셰비크의 후손이었으니까.

나는 당신에게 여러가지로 영향을 주었소. 당사자인 당신도 이제 와서야 모든것을 깨달았을거요. 그때에 당신은 정신이 완전히 해면화되어 있어서 그저 쏘아 붓는대로 썬조 빨아 들이더구만. 드디어 당신은 사회주의는 물론 자기 가문의 볼셰비크조상들마저 증오하게 되었소. 얼마나 통쾌한 일이요.

아마 그 멍청이 같은 썬조에게는 당신의 놀라운 성격변화를 놓고 많은 의문을 가졌했을거요. 이제 나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모든것을 다 이해하게 될테지...

나는 모스크바를 뜬 후에도 당신의 일거일동을 손금 보듯 꿰뚫고 있었소. 줄을 놓았겠으니까. 나는 당신이 그 사진들을 우리의 옛 은행집앞에 내다 놓고 자기 가문의 볼셰위크조상들에 대하여 온갖 악담을 다 퍼부었다는 소식도 들었소. 나의 마음은 흐뭇하기 이를데 없었소.

썬조를 붕괴시킨 공로는 바로 당신한테도 있는거요. 그렇지 않소?

나의 두번째 계획은 당신을 인격적으로 아예 짓밟게 버리는것이였소...>

맥컨리가 이렇게 씨벌인것은 바로 얼마전이었어요. 나를 모스크바에서 썬조 내어 운명의 나락에 떨어 뜨리고 썬조를 사렸다가 몇해만에 문득 나타났더군요.

오빠,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문헌의 유곽에 있어요. 처음에는 그 치욕을 참을길 없어 자살할 생각까지 하였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오빠에게 그런 사실을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실토할 정도로 모든것이 꿈만해 졌어요. 어떻게

하겠나요. 내 운명이 그런걸...

그런데 차사고로 다리병신까지 되고 보니 살아가기가 여간만 불편하지 않아요.

맥컨리는 나보고 아니, 와짐처럼 다리는 왜 그 모양이 됐소? 혹시 당신은 내가 뒤에서 무슨 작간을 하지 않았는가고 의심할지도 모르겠는데 천만에!... 불셰위크의 후손을 매춘부로 만든것만 놓고도 절정의 통쾌감을 느끼고 있는 내가 무엇때문에 그런것까지 하겠소. 뉴욕의 이 <에드몽 당떼스>는 잔인한 사람이 아니요 라고 하면서 역겹게도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까지 하였어요.

나는 그의 뺨을 후려 갈겼어요. 아! 하지만 그것은 너무도 때 늦은 반격이었지요.

맥컨리는 제 뺨을 슬슬 문지르며 배포유해서 이렇게 떠벌이더군요.

<아무튼 우리의 조상은 당신네 조상한테 졌지만 현 세대의 우리는 당신들을 이겼소! 우리는 과거를 절대로 잊지 않았소. 그런데 불셰위크들이란 정말 답답한 자들이었소. 건망증이 어찌나 심한지... 우리의 승리의 열쇠는 바로 거기에 있었던거요!

나도 이제는 조상의 땅 로씨야로 개선하려고 하오. 그 켄트게이에게 전해 주오. 밥벌이할데가 정 없으면 나를 찾아 와도 좋다고... 좀 멋하지만 나는 그를 와짐처럼 우리 저택정원의 관리인으로 채용할 용의가 있소!>...

참으로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는 편지였다. 나는 이 편지내용을 무엇보다도 우리 딸애에게 이야기해 주리라고 마음 먹었다.

까짜는 편지를 이렇게 마감 짓고 있었다.

《오빠, 내가 우리 가문의 조상들을 <바보>라고 모욕하던 생각이 나요? 오빠보고도 그랬지요... 아! 진짜 바보는 누구였던가?...

그 사이 나는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눈물이 바다를 이룬들 무슨 소용이겠어요. 다만 나는 우리 쥘프르가문에 나와 같은 가련한 바보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를 바랄뿐이에요.

까짜로부터.》

봉투안에서는 쉼표자필적의 편지도 나졌다.

《우리 까짜에 대하여 따뜻한 관심을 돌려 주던 존경하는 진옥부인!

까짜의 이 편지는 문헌에 출장을 갔다가 그애를 우연히 만나게 된 우리 신문사의 친구(상품으로 된 우리 집의 가보사진들을 까짜한테서 빼앗아 냈던 바로 그 사람)가 나에게 전해 준것입니다. 부인은 까짜의 편지를 보고 그에 대한 환멸도 느꼈을것입니다. 하지만 까짜만을 탓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우리 까짜를 동정해 주십시오!

진옥부인도 알다 싶이 우리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 아버지는 다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한 투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 대에 와서 까짜와 같은 운명을 보게 되는것입니까? 제국

주의자들과 계급적원썹때문에?... 그렇게만 보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썹들은 지난 시기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가문의 불셰위크조상들은 그들과 총부리를 맞대고 피 흘리며 싸우지 않을수 없는 그런 간고한 시기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까짜와 같은 인간은 단 한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

다.

그렇다면?...

조선인민들은 <사회주의의 사상적진지>라는 말을 잘 쓰더구만요. 참으로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진지, 진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신 조선에서는 그 진지가 얼마나 튼튼합니까. 나는 진옥부인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그것을 후더이 느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 파리에서는 만국박람회가 열렸는데 우리의 신생로씨야는 구슬프게도 홀레브밖에 출품하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그때로부터 불과 40년이 지난후에는 세계에서 맨 선참으로 발사한 인공지구위성 <위스토크>의 모형을 내놓아 사회주의조국의 막강한 국력을 만천하에 시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 나라가 졸지에 이 꼴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사회주의의 사상적진지가 무너졌기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까짜도 신세를 망쳤다고 생각합니다. 혁명의 배신자들에게 의하여 혁명적원칙과 사상교양이 말끔히 비자루질당한 나라, 서방식<자유화>와 비사회주의적인 부정부패가 사람들의 정신을 좀 먹는 바로 그런 사회가 까짜에게 이와 같은 운명을 강요한것이 아니겠습니까.

맥컨리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 까짜를 또한 사회주의의 파괴자로 묘사했다고 하는데 내가 거기에 한가지를 더 보충한다면 우리 까짜는 바로 사회주의파피자들의 희생물이기도 합니다.

죄 많은 고르바초브, 열찐시대가 저주롭기 그지 없습니다.

이 편지와 동봉한 까짜의 사진을 보면 그 애가 어떤 처지에 빠져 있는가 하는것을 더욱 통절히 느끼게 될것입니다. 물론 그 사진은 까짜가 보내온것이 아닙니다. 그 친구가 문헌의서관방에 굴러 다니는 어떤 잡지에서 뜯어 낸것입니다.

진옥부인은 그 훌륭한 명화를 나에게 맡겼지요. 아무때건 까짜가 나타나면 주라고... 하지만 대동강에 날아 드는 그 청신한 새처럼 될수 없는것이 가슴 미여지게 아롭니다.

눈물이 자꾸 나서 이만 쓰겠습니다. 쉼표자.》

쉼표자의 편지를 받은 그날밤에도 나는 좀처럼 잠들수 없었다.

까짜... 작가 레브 톨스토이의 장편소설 《부활》에 나오는 그 까짜가 문득 떠올랐다. 제정로씨야 시대에 매춘부의 치욕스러운 운명이 강요되었던 까짜...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힌 악순환이었다. 오늘

날에 와서 로씨야의 세월이 어떻게 흘렀기에 쉼료자의 누이동생은 레브 톨스토이의 그 《부활》 이전의 까짜로 되돌아 가 버렸단 말인가.

쉼료자가 보내온 까짜의 사진이 자꾸만 눈에 밟혀 왔다.

거의 분장에 가까운 진한 화장, 어깨밑으로 길게 흘러 내린 금발머리...까짜는 분홍색의 후렁후렁한 봄가을외투를 걸친채 어떤 로대에 앉아 있었는데 목밑의 흰 가슴살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서 속옷은 입지 않은듯 한 인상을 주었다. 품에는 장미꽃들이 부각된 자지빛쌍지팽이가 안겨져 있었다. 아래도리는 빛처리를 일부러 흐릿하게 해놔서 알아 보기 어려웠다. 까짜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기묘하게 웃는 순간을 사진사가 제때에 포착한것이다. 하지만 그의 눈에 영원히 서린 고뇌와 슬픔의 축축한 물기는 감출수 없었다. 사진에는 이런 설명문이 반쳐져 있었는데 너무도 억이 차서 내가 가위로 오려 내고 말았다.

《한쪽다리가 없는 로씨야의 창녀... 날카롭게

내뿜는 매력, 눈석이물처럼 흘러 드는 동정, 그래서 인기는 일약 2배!...》

까짜는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는것이다! 오한이 나는것처럼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까짜가 어떻게 되어 매춘부의 신세로 굴러떨어졌는지 또 어떻게 되어 한쪽 다리를 잃었는지 그 구체적내막은 다 알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 만난 세월로 하여 계급의 원쑤, 혁명의 원쑤들에게 통락을 당하며 사회주의를 체버린 운명이 아니겠는가. 까짜가 눈물 겹도록 불쌍했다. 옷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슬그머니 문을 열어 보니 순희가 까짜의 사진, 내가 본 순서로 꼽는다면 썸프브가문의 다섯번째 사진을 책상 위에 덮어 놓은채 혼자서 울고 있었다...

며칠후 《로동신문》은 로씨야신문 《펠라니예》에 실린 《<평양선언>의 위대한 탄생지는 우리에게 과거를 깨우쳐 주고 있다, 미래를 밝혀 주고 있다.》라는 제목의 평양방문인상기를 요약 소개하였다. 필자는 쉼료게이 이와노위치 썸프브였다.

## 시

# 웃음은 우리의것이다

전승일

세월이 안고 왔느냐  
거리거리예  
골목골목예  
불꽃 튀는 이 나라 일터마다예  
새무리마냥 날아 퍼지는 웃음소리는

련련히 뻗어 간 저 청년영웅도로예  
또 하나 준공테프를 끊는  
일망무제 소금밭우예  
대답해다오 세월아  
네가 안고 온 웃음인가를

주름주름 덮쳐 드는 파도머리마냥  
너는 너무도 모질지 않았더냐  
울어라 울어라고  
너는 우리의 가슴을 물어 뜯었고  
형포한 자연은 기승을 부려  
우리의 대지를 짓밟어 놓았고...

네 이 나라 공민 어느 가슴이나  
가만히 헤쳐 보라  
쓰라린 아픔 한조각씩은  
그 어느 심장에서나  
찾아 볼수 있으리

찾아 볼수 있으리

근엄한 미소 지으며 쇠장대 처든  
저 사나이들과  
거세찬 동음을 내지르며 밤을 불사르는  
저 불도젤의 젊은 주인들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  
너 세월을 놀려 딛고 웃으며 사는지를

아 우리의 웃음은 장군님이다  
눈무지에 발을 얼구시며 산고지로 오르실 때  
천리 또 천리 백두대지를 밟으시며  
감자농사혁명을 선언하실 때  
눈물과 웃음과  
불을 안은 만세가 터져 오르지 않았더냐

정녕 이 강토에 흐르는 강직한 웃음속에  
만대미래앞에 넘겨 줄  
우리의 철리가 있고  
이 행성이 부럽도록 일떠세울  
우리의 강성대국이 키를 솟구거니

웃음은 승리자들의것이다  
모진 세월을 들쭉온 원쑤들을  
질망과 비명의 나락속에 처박으며  
우리는 웃으며 새 세기를 폭풍쳐 가리니  
영원히 웃음은  
승리자, 우리의것이다!

# 산딸기

채동규

## 1장 산딸기맛

### 1. 귀향길

자동차 한대  
산골길 뚫아 오른다  
골골마다 메아리치는 둔중한 발동소리  
차창에 스치는 숲숲의 푸른 그림자

절반 누운채로 흔들흔들  
하늘구경에 멍청해 진 총각 하나  
이따금 긴 숨을 내신다  
도소재지로 대학입학시험 치러 갔다가  
그만에야 불합격을 맞고  
교향으로 돌아 오는 길

그의 이름은 영훈  
어릴 땐 수재로 신동으로 소문나서  
온 마을이 닳도록 두볼을 쓸어 주었다  
그래서 학교 갈 나이도 되기전  
제 포레 코흘리개들보다 한해 먼저  
인민학교 분교에 입학했었다

그러던 그가  
점점 건달풍이 허파에 들었다  
타고 난 《수재머리》를 믿고  
놀음과 장난에 정신 팔려  
노력 없이도 이루어 질 행운만 꿈 꾸며

중학교 졸업전 두어달  
대학입학시험이 박두해서야  
가까스로 책상에 코를 박은채  
벼락치듯 《도》를 닦았던 애송이  
16살 영훈은  
너무나 경박스레 생활의 숫길에 들어 섰던것

생활의 평가는 언제나 엄격하고도 공정한것  
노력 없는 성공이란 있을수 없는 법  
정열 없는 수재란 빈 깡대기뿐  
쓰라린 가슴 부여안고  
깊디깊은 산골마을을 교향으로  
돌아 오는 영훈이

영훈의 눈가엔  
원인 모를 불안이 그득 서린다  
도소재지 친척집에 불박힌채  
대학입학통지서 기다리며

일없이 빈둥빈둥  
멋스럽게 즐겨 온 도시생활 추억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가슴에  
쓰디쓴 자책의 고뇌 깃들어서인지

영훈은 꿈 꾸듯 멍청해 진 눈길로  
이윽도록 푸른 하늘 한 지점을 응시한다  
가없이 펼쳐 진  
깨끗한 푸른 하늘  
그 하늘가의 날개 가벼운 수리 한마리  
무엇인가 하염 없는 생각 불러 준다

저 하늘밑 어디엔가  
영훈이 떠나온 교향의 거리가 있으리  
거기는 그가 처음  
산골 꽃총각의 만만한 배짱으로  
사회생활 큰 대문에 들어 섰던 곳  
청춘의 회열에 끝없이 도취되던 곳  
들뜬 공상이 맥주거품처럼 넘치던 곳  
(이제부터는 또다시  
시골의 도토리생활  
에라, 뭇대로 되라지.)

영훈은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들추어 대는 자동차우에서  
까투리처럼 두다리사이에  
깊숙이 머리를 틀어 박는다

### 2. 오래간만의 상봉

덜커덕! 고개마루에 자동차가 멈춰 섰다  
웬일인가 비스듬 몸을 일으키던 영훈  
일순간 끔찍 놀랐다

분명코 옥이었다  
삼골마을 축산반동네에서  
유일한 동창생처녀  
사람들의 놀림을 잔뜩 받으며  
친오누이처럼 어릴적부터 나란히 지내온 사이

땀에 젖은 처녀의 얼굴에도  
웃음이 확 피여 오른다  
《어마! 영훈동무!》  
제 소리에 놀란듯 빨강게 물드는 옥이

영훈이도 반가움에 겨워 어쩔줄 모르더니  
홀깃 몸을 날려 적재함에서 뛰어 내리고...

얼마만이나 옥이와의 상봉  
묵직하던 영혼의 심사 대번에 밝아 진다

대학시험에서 미끄러 진 사연  
샘물이 찰랑이는 눈동자가 어이 모르랴만  
옥이의 낮빛과 말투에는  
동정이나 의아한 기색 엿보이지 않는다

그저 생활속에는  
이런 곡절 저런 풍파 있으리라 여기는듯  
어쩌면 도리어  
무엇이 좋아선지 하얗게 웃는 얼굴  
영혼의 불명예스런 귀향 축하라도 하는듯  
옥이의 눈동자는  
그저 순하고 부드러운

자기는 그 사이 염소분조 관리공이 되었다고  
관리공이 되고 보니  
마리수 적은게 무척 안타까웠다고  
그래 읍에 있는 종축장에 가서  
새끼염소 두마리를 구해 오는 길이라고

옥이의 목소리는 저르기 갈렸다  
영혼에게 묻는 소리 역시  
《도시에서들 어떻게 지내더냐요?  
우리가 축산이란 제바로 못하니...》  
영혼은 그 물음에  
《그럭저럭...》 하고 말꼬리를 얼버무린다

때는  
강성대국건설로 내닫는 시기건만  
아직도 인민의 어깨우에는  
시대의 짐이 억척만근 무거웁고  
어머니조국은 붉은기 펄펄 날리며  
력사의 폭풍을 헤치고 있었다

아직은 허리띠 조이며  
강성대국건설의 터전을 닦아야 하는 생활  
영혼이 어찌 모르랴  
비록 흥청망청 철 없는 풋내기여도

### 3. 산딸기맛

한여름의 열기에  
화끈 달아 오른 차체도 식힐 겹  
일행은 잠시 쉬어 가기로 했다  
락심천만한 자기 모양  
얼마나 우습강스럽게 불것인가  
얼충 지레짐작한 영혼  
명랑하고 올찬 옥이의 눈길앞에  
절로 개면쩍어 졌다  
그래서 러로의 피곤 핑계 삼아  
홀로 길녘의 잔디밭에 벌렁 누워 버린다

잠시후 와스락 부스락  
무슨 소리인지 귀를 간지럽히기에  
영혼이 피딱 고개를 돌리니  
어느 사이에 바지런하게도  
온통 가시투성이덤불을 헤치고 있는 옥이

의아쩍어 하는 일행과 영혼앞에  
스스럼 없는 태도로 다가온 옥이  
널직한 가랑이에 싼것을 내여 놓았다  
시큰둥해 진 영혼의 입에선  
《대체 뭐길래?...》  
이런 물음이 튀어 나온다

《산딸기도 모르나요?》  
처녀는 웃었다  
그리고 일행에게 물었다  
《산딸기가 참말 맛 있지요?》  
마지못해 불편을 싹둑거리며 씹던  
영혼이 또 말참네를 했다  
《시큼털털한게 맛은 무슨 맛!》

순간  
누군가의 큼직한 손이  
총각의 뒤통수를 툭 친다  
흥은 깨여 지고  
처녀는 익은 얼굴 살쫂이 수그리고...

사실 말이지 그는  
산딸기맛 그대로 말했을뿐  
대학문 어구에서 밀리어 난  
울적한 기분 그대로  
그리고 나이가 한살 모자라  
인민군대에도 나갈수 없는  
애 끓는 마음 그대로  
영겁결에 그 맛을 표현했을뿐

산딸기 《사건》으로  
고향길에 오른 오래간만의 인상  
아예 잡치고 만 영혼  
쓴입만 짹짹 다시고  
옥이는 방글 웃음을 짓는다

영혼에게도 무지개빛 시절들이 있었다  
강아지시절 송아지시절  
그러한 유년기도 있었고  
시내가 모래불에 덩굴며  
해빛에 그슬리던 짧은 바지시절  
매미 쫓아 소나무에 기여 오르며  
흰 샤쯔 찢어 먹던 놀음쟁이시절  
그러한 소년기도 있었고

옥이에게도 그 얼마나

향기로운 시절들이 있었던가  
 제기만한 인형을  
 꼭 품어 안아 잠 재우던 시절도 있었고  
 깡동치마 그러쥐고  
 저녁달 뜰 때까지 줄넘기하던 시절  
 붉은 넥타이로 흰 구름 휘저으며  
 등산길에 오르던 인민학교시절도 있었고

시절은 이렇듯 흐르고 흘러  
 영혼은 어엿한 청년도 되고  
 껍두룩한 중년도 되리  
 옥이 또한련애도 배우고 새각시도 되고  
 결국은 어린 시절 인형 같은  
 아니, 벌써 잘난 애기를 가진 엄마로도 되리

이렇듯 많고 많은 시절들중에  
 영혼과 옥이의 시절은  
 피어 나는 봄시절  
 애젊은 꽃망울 한껏 터치며  
 청춘의 첫 기슭에 큰 자옥 떴는 시절

사람들 누구나 체험했듯이  
 이 시절에 인생이 길 지어 진다  
 청춘의 정열이 불덩이처럼 타오르는 시절  
 마음의 떨기수  
 그 길고짧음 높고낮음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시절  
 티 없는 마음 지녀 참인간되고  
 열렬한 녀를 지녀 영웅도 애국자도 되는  
 아, 한생에 제일로 귀중한 시절

바로 청춘시절의 출발선우에  
 영혼과 옥이가 나란히 섰거늘  
 어머니조국은 얼마나 미더웁게 웃음 지어  
 《어서 달려라!》  
 이들의 등을 떠밀어 줄것인가!

## 2장 그해 가을

### 1. 《사랑이란 무엇이겠니?》

예나제나  
 살진 산삼 산속에 드문드문 박혀 있어  
 삼골마을이라 부르는 영혼네 동네는  
 읍에서도 멀리 60리나 떨어진 곳  
 봉우리 높고 골짜기 깊어서  
 새둥지처럼 우묵한 마을

너무나 너무나 산골이어서  
 이따금 들리는 사람들마다  
 두눈이 휘둥그니 놀라곤 한다  
 산 좋다 물 좋다 부러워도 하고  
 외롭겠다 힘들겠다 동정도 하면서

이 산촌에 가을이 왔다  
 퍼그나 높아 저 새파란 하늘  
 골짜기마다 타는 단풍  
 후-큰 숨 들이키면  
 배속까지 후련해 지는  
 흥취로운 농민의 계절  
 몹시도 드바쁜 계절  
 모든것을 거두어 들이고 털고 말리우고  
 창고에 쌓아 두고 독에 절구고 땅속에 묻어  
 두고...

영혼 역시 그러하다  
 축산반일에 파묻힌지 두어달째  
 어깨머 허리가 시큰시킨  
 일만 마치면 밀려 드는 졸음의 사태

지금도 낫가락 들고 씨걱씨걱 풀을 베인다  
 집짐승들의 겨울나이 깃풀  
 창고로 듬뿍이 꺼들여야 하는 일  
 멀쑥하던 얼굴은 해별에 어지간히 그슬렸다  
 잠시 허리를 펴고  
 땀 젖은 작업복짓 활활 헤치더니  
 낫가락 저만치 내던지고  
 풀더미우에 털썩덕 몸을 던진다

팔각지로 머리를 고인채  
 영혼은 생각에 잠긴다  
 아니, 조을고 있는지도 모른다  
 요즘사이 종종  
 집에서 선전실에서 방목지에서 볼수 있는  
 영혼의 이러한 모습

코마루에 문득  
 알싸한 담배내가 스친다  
 건너편 언덕에서 풀을 베던  
 옥이의 아버지-  
 축산반 세포비서가 다가온것이다

《자나?》 아버지가 물었다  
 《죽었어요!》 영혼의 불 부은 단마디 대답  
 《허, 죽은지 오랜가?》  
 아버지의 룡질도 제법이다

그렇다, 영혼은 죽었다,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게 무슨 꼴이람!  
 이게 무슨 생활이며  
 이게 무슨 청춘이람!

꿈하니 몸을 일으켜  
 인사를 차리려는 영혼의 어깨 누르며  
 아버지는 은근히 말쑥지를 뻗다



《사내란게 참...  
그새 도시생활 정 들었던게지?  
지금도 그 생활 짝사랑 하는게로군...

아니, 영훈이  
넌 사랑하지 못했다  
넌 사랑하지 않았어  
다만 너는  
애젊은 나날의 욕망 그대로  
모든 사랑 기꺼이 받기만 했을뿐

고향도 너를 사랑하고  
동무들도 너를 사랑하고  
그리고 네스스로 쫓겨 온 도시도  
너를 사랑했지  
그러나 그 사랑은  
요새련애하는 청년들 류행말투처럼  
<찢어 졌다!>

그것은 영훈이, 네가  
자기의 진실과 양심과 온넛을 다 바쳐  
그 모든것을 사랑할줄 몰랐기때문  
다만 그 사랑을 함뻍 누리고  
그 사랑에 취해 교만해 지고  
그 사랑을 제 먼저 배반했기때문

고향과 인간 사회와 인간, 조국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사이에 이루어 지는 사랑  
사랑이란 대체 무엇이겠니?

내 소견에 사랑이란  
생명과 생명의 결합이라고 본다  
조건 없고 사심 없고 아낌이 없고 변함이 없는

고향을 그저  
풀이나 버드나무  
태를 묻은 땅으로만 생각한다면

도시생활을 한갖  
향유하고 즐기는, 그런 생활로만 여긴다면  
사회주의 우리 제도를  
개념상으로만 여긴다면  
어찌 사랑이 존재할수 있겠니?

그 모든 대상을  
흐느끼고 분노하고  
숨 쉬고 행동하고 사색하는  
깨물면 아프고 찢리우면 피방울이 돌는  
그러한 거대하고 무한한 생명체로 대할 때

그러한 사람만이  
진짜 사랑할줄 아는 사람이다

너의 풀기 없는 가슴  
다시 말하여 <죽은 넛>속에  
어찌 사랑이 있었겠느냐?

생활을 사랑할줄 아는 법을 배우거라  
그러면 힘이 날게다  
그러면 즐거워 질게다  
그러면 지금처럼 작업시간 대낮에 벌렁 누워  
툴툴 투정질도 하지 않을게구...》

혼시 절반 욕 절반  
한참만에 말을 마친 옥이아버지  
낮가락 뿔아 들더니  
제 먼저 서걱서걱 풀을 베기 시작한다

세포비서아바이의 숙연한 모습앞에서  
영훈은 속이 뜨끔해 졌다  
자꾸만 달아 오르는 얼굴  
팔소매로 쓱쓱 문지르고 나서  
와락 풀단을 추켜 들어 더미우에 던졌다

## 2. 복된 세대

서느러운 아침  
영훈이 분조모임 가려 나서는데  
길 건너 집 문도 열리며  
옥이가 춤 추듯 영훈을 향해 달려 온다

《영훈동무  
어제 우리 아버지한테 욕 먹었나요?》  
사뭇 놀리는듯 사뭇 동정하는듯  
생글생글 퍼져 가는 웃음발

《아버진 날 보구  
<너도 이젠 다 큰 체네인데  
영훈이랑 서로 도우며  
사람들 흉 보지 않게 지내거라>  
하시지 않겠어요. 호호호》

《하하하》  
영훈이도 함께 크게 웃는수밖에  
《그럼 난?》  
《동무도 어엿한 중학졸업생  
16살 대장부지요 뭐.》  
《하하하》 《호호호》  
그 웃음소리에 놀라 난듯 이컨저컨 대문가에서  
큰둥이 작은둥이 개들이 주런이 내다본다

《대학시험에선 그만 미끄러 지고  
군대에는 나이가 어려 못 가니  
대장부는 무슨 대장부  
나야 <교양대상>, <개조대상>이지.》

《동무두 참...  
 동무처럼 근면한 노력이 없이야  
 어떻게 새 세대 청년과학자가 될수 있겠어요.  
 동무처럼 고향을 이뽏엄마 대하듯 하면  
 어떻게 총 잡은 영웅병사가 될수 있겠어요.》

영혼은 무심결  
 어디 한번 떠보자는 식으로  
 옥이에게 물었다

《옥이 아버진 나더러  
 이 산골에 정 들여 살라 했는데  
 옥인 어때?  
 이 산골 정말로 사랑하니?》

옥이의 천진한 눈동자는  
 티없이 그윽했다 《사랑한다고 할가?...  
 그래, 난 여기가 좋아요  
 무엇인지 모를 이상한 힘이  
 고향의 자연, 고향의 생활속으로 이끌거든요

저 하늘은 얼마나 깨끗하나요  
 이 땅은 얼마나 부드럽나요  
 저 산줄기들은 울퉁불퉁  
 얼마나 기운차게 뻗어 갔나요  
 난 정말 좋아요  
 고향의 자연, 고향의 인심, 고향의 노래가...

고요한 저녁 별무리 춤 추는 밤  
 맑은 아침 열정으로 타는 태양  
 우리 분조의 귀염둥이 염소들  
 우리 마을의 수채화 같은 풍경  
 어느것이나 다 좋아요

난 건강하고 활찬 처녀로  
 온 농장에 소문 났어요  
 내 고향 사계절의  
 무수한 음향과 색깔과 모양  
 내 가슴에 가득 차 울렁거리거든요

물론 도시생활 좋은줄은 알아요  
 하지만 난 고향산천과 이 땅에서의 생활을  
 못 견디게 사랑하고 싶어요  
 난... 나자신을 믿어요》

...영혼은 옥이와 더불어  
 염소무리 거느리고 방목길에 오르곤 한다  
 옥이 몰래 슬그머니  
 나무등걸에 매달려 많은 염소 매놓고  
 회초리로 때리어 길도 들이며  
 염소의 따끈한 젖통 그러쥐고  
 희뿌연 젖물을 장난 삼아 맛 보기도 하면서

점차 저도 모르게  
 영혼은 산촌에 습관되어 간다  
 단순하고 정직한  
 정열적이고 지향적인 마을사람들의 생활은  
 들떴던 영혼의 마음  
 환한 거울 되어 비쳐 준다

영혼과 옥이는  
 고마운 사회주의  
 그 넓은 품에 안겨 자란 아들딸  
 그 품에서 청춘을 눈 띄우고  
 그 품에서 심장을 자래운 새 세대

인민학교 본교로 별나비처럼 오가며  
 학습장종이로 무수한 비행기 만들어 날리며  
 리병원 간호원의 주사침이 무서워  
 강냉이짚무지속에 너구리처럼 숨으며  
 그리고 해빛이 쏟아 저 내리는  
 중학교 교문을 함께 나서며

어찌 다 알았으랴 조국의 사랑을  
 그 의미심장한 미소  
 그 강毅한 투지력  
 그 사연 많은 운명과  
 그 자애 깊은 눈가에 맺히는 눈물  
 그 등허리에 흐르는 더운 땀을

오늘은 첫 로동생활속에서  
 조국의 고마움과 귀중함을 배우나니  
 순수한 사회주의공기만을 호흡하며 자란 세대  
 사회주의하늘아래  
 눈동자 반짝이며 세상길 시작한 세대  
 그렇다. 이제는 이들의 차례다!

### 3장 그해 겨울

#### 1. 한밤중의 총소리

동지달...  
 7자로 길게 늘어 지은  
 염소우리 지붕에 눈이불이 덮였다  
 산과 들은 흰 눈의 성장을 차리고  
 투명한 빛을 눈 부시게 발산한다

한줄기 눈보라되어  
 가없는 흰 눈판으로 달리고 싶어 지는 겨울  
 정찬 입김 푸근히 날리며  
 백발의 자연과 인사를 나누는 겨울  
 크낙한 품에 하냥 덩굴며  
 웃고 떠들고 와-와- 소리치고 싶어 지는 겨울

산천 특유의 품미로움이  
 흰 눈과 더불어 소복소복 쌓이는  
 영혼은 이 계절 사랑한다

인민학교뎨 옥이와 나란히 누워  
눈사진 찍어 놓던 계절  
중학교뎨 오손도손 눈사람 빚어  
눈섭이며 코부리며 배꼽까지 만들어 붙이던 계절

요즈음  
밤마다 메돼지들이  
종자감자웁 똥쳐 놓곤 한다  
맹수들 달려 들 때 축산반 지키라고  
군에서 보내여 준 사냥총  
그게 맘에 들어 영혼은  
경비나 함께 서자고 옥이를 부추겼다

밤!...  
차거운 달빛만  
경비실창가에 열어 붙었다  
못봉우리들은 거뭇거뭇  
산그림자 길게 늘어 마을을 덮었다  
별들은 하늘 가득 매달려  
오돌오돌 떨고 있다

장작불로 후끈히 달구어 놓은 경비실에서  
영혼과 옥이  
축전지불빛아래 머리를 맞대이고  
열심히 책을 읽다간  
이따금 창문을 건너다 본다

밤은 퍼그나 홀려  
지붕을 들쭈시던 바람도 잣고...  
벗어 놓은 전자손목시계  
짤막한 노래로 열두시를 알려  
눈동자가 뻗뻗해 오기도 하고...

이때 창밖에서 무엇인가 부러지는 소리  
《아차!-》 둘이는 용수철마냥 튕겨 일어 났다  
총! 사냥총!

거뭇한 형체를 향해  
영혼은 허방지방  
총구를 돌려 대는데  
아니? 그런데? 이게 뭐람?  
옥이가 애절히 영혼의 팔에 매달린다  
《죽이지 말아요 죽이면...》

《조용!  
감자웁 쭈시러 온 메돼지들 아니면  
염소를 해치러 온 승냥이들일거야  
저놈들은 씨종자를 말려야 해!》

《아이, 영혼동무  
사슴이나 노루면 어찌나요  
봄이 되면 새끼랑 낳겠는데

짐승들 없는 산이 무슨 산...》

옥이는 금방 울음이라도 터뜨릴듯  
허나 영혼은 경황을 잃었다  
검스레한 무리가 달아 나기 시작하거니  
어깨에 힘주어 방아쇠 당기는 순간

《아!》  
소리치며 영혼의 잔등에 얹어 지는 옥이  
요란한 총성  
총알은 별나라로!

화가 난 영혼 사냥총을 팽개친다  
《학교시절 놀음인줄 아니?  
산짐승까지 살려 달라고 방정을 떨다니?  
산짐승 없는 산이 무슨 산이냐구?》

《미안해요  
혹시나 착한 짐승이 아닐가 해서...》  
영혼은 어쩔수없이  
후- 한숨만 쏘는수밖에

## 2. 분노

사랑의 무수한 항목들중에서  
첫째의 첫째 항목에는  
이렇게 써여 저 있더라  
《자기자신부터 사랑하라고》  
무엇보다먼저 자기를 알며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믿고 사랑하라고

자신을 사랑할줄 모르는 사람  
자기에게 진정이 없는 사람  
파연 무엇을 사랑할수 있단 말인가  
인츰 권태를 느끼고 허무에 빠지고  
값 높은 정열을 소모하면서  
생활의 진탕길만 헤매이리

산처럼 길이 살라고  
산영이라 이름 지었다는 청년이  
삼골마을에 살고 있다  
저녁!  
영혼을 찾아 온 산영  
고개너머 이웃농장에 가자고 꼬드겼다  
그 무슨 처녀선을 본다니?

호기심도 나고  
재미도 동하고  
선뜻 따라 나선 영혼  
그에게 산영은 한껏 붕 떠서  
이야기주머니를 두서없이 털어 놓는다

어언간 서른해를 촌놈으로 살았으니

젊은 날개죽지에 털이 다 빠졌다는등  
이렇게 평생을 곰처럼 보내다간  
등때기에 버섯이 돋겠다는등  
너는 훌쩍 손을 떠나  
하다 못해 읊에라도 나가 살라느니  
군에 그 무슨 연줄을 가지고 있으니  
두루두루 소개해 주겠다느니

《로숙》한 총각의 경험담이  
열여섯살꽃총각 마음에 꼭 드는게라고  
지레짐작한 산영  
마구 말꼬리를 휘두른다

《산골고생 이때껏 사서 했으니  
내 운수도 코가 삐뚤어 진셈  
고향을 어머니고향으로 부르는데  
어머니가 자식의 고생을 바라던?  
세상의 제일미는 산천경개라  
태를 묻은 향토에 길이 살아라  
피와 땀의 결정이 참사랑이라  
이런 말들 이제는 옛말 한가지  
이젠 살아도  
새식으로 살아야 해

후... 한데...  
어디 <비단치마>가 있어야지  
이 처녀도 어디 한번 만나보고  
<구식치마>라면  
에이!- 꼭 차던져야지》

영혼은 걸음 멈추고  
불끈 주먹을 쥐었다  
산영의 어리병병한 말투  
《아, 아니?  
너 왜 그러니?...》

영혼은 길가의 눈덩이  
왼발로 툭 차던졌다  
《산영형은 정말...  
너무해... 어쩌면... 인간이... 청년이...》  
이렇게 숨 막히게 내뿜고는  
획 발걸을 돌리었다

형언 못할 수치로 하여 온몸이 불 붙는듯  
참을수 없는 분노로 하여 심장이 터질듯  
팡 팡 그 어떤 거대한 힘이  
영혼의 넋을 밀뿌리채 흔들어 놓는듯  
눈길우에 미끄러지며  
허겁지겁 옮겨 딛는 그의 발걸음

(아, 난 얼뜨기였어  
저런 속물이 되어 버릴번 했어

청춘에게 고향과 조국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건 벌써 다 낡은 털빙거지  
그야말로 그따위는 일등멍텅구리

새식으로 산다구?  
그래, 새식으로 살게 될거야  
고향도 조국도 더더욱 새로와 지고  
그 모든것을 새롭게 사랑할거야

처녀를 차던진다구?  
아니, 처녀가 도리어 차던질게다  
시시해! 꺾령해!  
저런 사람은 이 땅에서  
숨 쉬며 살 가치가 없는 인간  
저런 청년은 21세기 하늘아래  
머리 들고 살 자격이 없는 청년

깨끗하게 살리라  
아름답게 살리라  
허깨비 같던 내 마음  
송두리채 깡그리 털어 버리고  
청춘도  
사랑도  
먼 후날의 인생도  
그렇다 그 모든것을  
열렬하게 참되게 살리라!)

### 3. 영혼의 꿈

긴긴 어느 겨울밤  
영혼은 꿈을 꾸었다

훨훨 하늘 나는 꿈이랑  
뜻밖에 큰 복이 차례 지는 꿈이랑  
열토당토 않은 결말로 끝나는 꿈이랑  
이때껏 술한 꿈 꾸어 본 영혼이었건만  
이번 꿈은 전혀 새로운 꿈

전쟁이 한창이었다  
영혼은 병사였다  
수천의 원수들 너부러진 전호가에  
피땀으로 작열하는 태양  
자욱하게 서리는 포연

고지우엔 영혼이 홀로 남았다  
빌레 같은 땅크를 앞세우고 기여 오르며  
원수들은 악! 악! 고향을 지른다  
개놈들아 받아라!  
불끈 방아쇠를 당기는데  
그만 절커덕!  
마지막탄알마저 떨어 졌으니  
영혼은 안타까이 총창을 찾았다  
총창! 내 총창이 어데 있나?

이때  
문득 귀에 익은 목소리  
《영혼동무!-》  
단발을 폭풍에 휘날리며  
전호력을 뛰어 넘어 옥이가 달려 온다

결전의 판가리시각에  
정든 옥이  
간호원복 펼쳐 입은 옥이를 보니  
영혼의 눈가엔 눈물까지 펴 돌았다

《아, 옥이!》  
수류탄뭉을 함께 얼싸 안고  
그들은 불같이 육탄이 되어!  
원썹들을 향해 굴러 내렸다  
《만세!-》

영혼은 돌연  
모두발로 이불을 걷어 찼다  
꿈은 깨였으나  
만세를 웨친 입은  
아직 다물리지 않았다

심장은 여전히 높뛰는데  
그의 웨침소리에 깨여 났는지  
마당가의 강아지  
경!- 기침을 짓었다

## 4장 이듬해 봄

### 1. 탄생하는 계절

다감한 봄풍경  
산마다 골마다 듬뿍듬뿍 펼쳐 저-  
야들야들한 고운 꽃들이  
나무그늘 파아란 풀판우에  
품들여 수 놓은듯 피여 나는 봄  
기름기 흐르는 나무순들이  
서늘하고 향긋한 바람속에서  
제각기 무엇인가 속살대는 봄

소나무들은 한껏 푸름을 자랑하고  
참나무들은 더슬더슬한 겹질새로  
살진 몸 드러내며 설렘거린다  
키 작은 노가지며 향나무들  
거무충충한 갓가지 떨기나무숲들은  
못짐승들 잠 재우며 봄꿈에 취해 있다

새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낮잠 자는 부엉이  
나라의 명물인 귀한 클락새  
황금옷 펼쳐 입은 맵시쟁이 피꼬리  
기운차게 나무를 두드리는 딱따구리

숨뭉치 같은 새끼들을 거느린 꿩부부네들

소생하는 봄의 매력  
사람들에게 활기를 부어 주건만  
영혼과 옥이  
봄의 만가지 풍물과 아름다움  
한가로이 즐길 겨를이 없구나

그도 그럴것이  
암염소들 출창  
탐진 새끼들을 낳고 있으니  
뽕아 내고 씻어 주고 태줄도 끊어 주고  
엄지에겐 《산모》취급 각근히 해야 하는것

오늘도 네마리째  
옥이는 새끼들을 받았다  
매-애 매-애  
생의 기쁨을 소리치는 깜찍한것들  
엄지도 푸르록 푸르록  
행복에 겨운 투레질을 하며  
젖꼭지 파고 드는 새끼들에게  
기꺼이 뒤다리 벌리며 준다  
신기하다 그리고 보람차다  
미물의 짐승일망정 새 생명 탄생시킨다는것은

저장해 두었던 사료는 거의나 들장나고  
햇풀은 아직 무성치 못했고  
게다가 허기지고 수척한 《산모》들은  
주둥이를 흐물거리며 불평이 대단하고-  
삼골마을사람들은 너도나도  
염소먹이해결에 불이 났다

집집의 처마끝에  
품품스레 매달아 두었던  
시래기타래들이 말끔 내리워 졌다  
집돼지야 좀 참아라! 허를 차면서  
다투어 쌀겨도 모아 왔다

온 마을이 힘을 합친 보람이 커서  
계획했던 염소마리수  
끝끝내 채우고야 말았으니

회초리 휘둘러 허공을 찢며  
소금주머니 털썩털썩  
즐거운 방목길에 오를 때마다  
영혼의 입가엔 은연중 미소가 피여 오른다

영혼의 애젊은 가슴속에  
고향에 대한 첫 사랑의 씨앗은 떨어 저  
봄과 더불어 움 터 나거니  
산천에 정들며  
영혼은 그 얼마나 환희에 넘쳐 있는가

## 2. 모닥불

대지가 푸근푸근 부풀어 오르는 때라  
때 맞추어 당세포에선  
마을앞 땡습지에  
큼직한 양어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감탕을 퍼내고 뚝을 쌓고 석축을 하면서  
온 작업반이 낮에 밤을 이어...  
나뭇기는 기발들, 술한 숙보판들  
마을사람들의 열기 띤 얼굴들  
양어장건설전투의 드바뽀 그대로 말해 주더라

영훈과 옥이는  
진땀을 동이로 쏟아도 성차지 않았다  
양어문제는  
인민을 위하여 래일을 위하여  
우리 장군님  
그리도 관심하시는 문제

(만일 아버지장군님  
우리 삼팔마을 찾으신다면  
만일 그때 가서  
우리 마을에 양어장 하나 변변치 못하다면  
장군님심중 얼마나 무거우시랴  
장군님앞에 우리 얼마나 죄스러우랴

지금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때  
우리들의 피땀이  
우리들의 청춘이  
우리들의 실력이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필요한 때다!)

늦은 저녁  
옥이는 양어장건설장에 홀로 남아  
주섬주섬 모닥불을 지켰다  
감탕 뚫은 옥이의 단발머리  
불기운에 훑날린다  
어둠을 태우는 모닥불

온몸이 옛물처럼 노근히 녹아 내려  
두눈이 자꾸만 사르르 감겨 들어  
주저앉은채로 조울고만 싶었다  
(어쩔 줄을가!  
과연 우리 힘으로  
양어장건설을 말끔 끝낼수 있을까?  
난 애젊은 청춘인데  
맥을 놓는다는건... 쓰러진다는건... 안될  
말이야!)

저도 모르게  
곡괭이 더듬어 잡는 손

바람에 거칠어 지고  
군데군데 피가 지고  
온통 물집이 엉킨 손

곡괭이 높이 들어 내리 찍었다  
번쩍! 돌에 부딪치며 불꽃을 튀긴다  
또 한번 내리 찍었다  
툭! 돌이 부서진다  
푹푹! 흙덩이들이 뒤집혀 진다...

집에 가보아도 없고  
염소우리에 찾아 가 보아도 없으니  
옥이가 있을 곳이란 분명히 양어장건설장!  
영훈도 삽자루 돌려 메고 돌부리에 걸채이면서  
옥이를 찾아 나섰다

섬섬히 사그라져 가는 모닥불연기  
영훈의 눈가를 쓰리게 스쳐 간다  
휘둘러 보니 멀리 한쪽편에서  
어렴풋이 움직이고 있는 밤그림자!  
아, 두무릎을 땅에 대이고 절반 주저앉은채  
한번 또 한번  
곡괭이질을 하고 있는 옥이!

아, 옥이!  
눈물 많은 옥이  
웃음 많은 옥이  
청춘을 책임질줄 알며  
시대에 대한 사랑 조국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 장군님사상에 대한 열렬한 사랑  
향토에 길이 묻어 꽃 피워 나가는 옥이

가슴속에 불뭉치처럼 솟는 격정으로 하여  
영훈은 온 몸이 후두두 떨렸다  
불쑥 젖어 드는 눈굽을 손등으로 닦으며  
영훈도 푹푹 감탕을 떠 올린다...

## 3. 옥이의 꿈

매일매일 염소떼 거느리고  
옥이와 영훈은 방목길에 오른다  
해 뜰무렵이면  
퍼지는 나무순이며 풀잎사귀마다  
억만개 이슬방울 금구슬 은구슬을 이루고  
줄기줄기 산줄기들은 젖빛으로 은근히 빛난다

높푸른 하늘의 나그네-흰 구름송이  
하염없이 바라보며 바라보며  
가슴 부푼 두 청춘  
소곤소곤 이야기 주고 받는다

《나서 자란 내 고향  
참으로 아름답구나

사회주의 내 나라  
참으로 위대하구나  
이 땅우에 살며  
이 하늘아래 청춘을 꽃 피운다는건  
참으로 행복하다!

옥이!  
난 이때껏  
이 모든것에 대한 사랑을 모르고 살아 온  
청맹파니였어  
그렇지만 한가지만은 알아  
내 고향 내 조국의 운명이신  
우리 장군님 위해서라면  
난 죽어도 좋아!》

옥이도 이야기한다  
《난 옛저녁 꿈을 꾸었어요  
내가 염소들에게 가담가담 풀을 뜯기는데  
저 수천의 봉우리 봉우리  
네굽으로 주름 잡으며  
장군님 타신 백마 달려 오는것 아니겠어요

눈 부시고 눈 부시고 또 눈 부신 꿈이었어요  
장군님께선, 아버지장군님께선  
이 산마루우에 잠시 백마를 멈추시고  
해님처럼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러시면서  
환희의 눈물에 젖은 저를 굽어 보시며  
우렁우렁 위엄차게 말씀하셨어요

<산촌의 처녀여!  
내 너를 길이 복되게 해줄터이다  
나의 사상과 나의 정치로  
너의 앞날을 담보하거늘  
고향을 위하여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희망에 넘쳐 살거라  
아름답게 살거라  
청춘답게 살거라!>》

옥이의 꿈이야기  
귀 기울여 들으며  
영혼은 환희에 잠겨 버린다  
아, 장군님!  
영혼은 영영 목 놓아 울며  
자기의 감격으로 대지를 뒤흔들고 싶었다

장군님말씀만 새겨 안으면  
헛되게 사는 사람 없으리  
장군님만 계시면  
이 외진 산골마을에도 만복이 차넘치리  
장군님만 믿고 따르면  
영혼과 옥이 용기백배 청춘의 길 걸으며

고난앞에서도 고난을 모르고  
얼음쫓각 씹는다 해도 배 부르고 행복하리

## 5장 산딸기의 참맛

### 1. 마음은 오로지 장군님께로

영혼의 요즈음 행동거지  
옥이에게 아리송한 물음표 던진다  
그의 마음 어느 때는  
바람 부는 꽃밭처럼 명랑한가 하면  
그의 낮빛 어느 때는  
장마철 하늘처럼 무거워 지거니

방목길의 짝패  
옥이가 있든없든 아랑곳없이  
때없이 찌렁찌렁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때없이 잔디밭우에서 태권도련습  
그 무슨 깊은 생각에 빠지는가 하면  
그러다가도 두눈가에 그렇하니 담는 눈물  
(왜 그럴까?  
무슨 궁리를 하고 있을가?)  
그의 모습 불적마다 속상해 지는 옥이  
종잡을수 없는 그의 태도에서  
야릇한 흥분과 불안을 느끼는 옥이

더더구나 이상스러운 점은  
요새 영혼이  
대학입학시험공부 게을리하는것  
콩무니에 늘 차고 다니던  
크고작은 공식집들  
이런저런 참고도서들도 찾아 볼수 없는것

지난해 락선된 대학입학시험  
생활의 뼈 아픈 교훈 삼아  
꾸준히 배우고 애먼글면 노력하여  
고향을 빛내이는 과학자  
조국을 드높이는 탐구자가 되거라-  
사심없이 타일러 준 마을어른들의 충고도 있어  
리도서실 군도서관 넘나들며 책들도 빌려다 주고  
가지가지 학습장들과 필기도구들  
정 다해 마련해 준 옥이의 수고도 있어

얼마동안 내내  
밤을 패며 책도 읽고  
새벽마다 중얼중얼 외국어도 외우더니...  
돌변스러운 영혼을 보며  
옥이는 자꾸만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이 저녁도 옥이  
늦도록 염소우리 말끔 거두고  
집으로 향한 길에 청년학교 지나는데  
먼저 들어 갔을줄 알았던 영혼

청년학교 불빛아래 조각상처럼 앉아 있는것  
아닌가

도대체 알수 없는 영혼의 속공공이  
오늘은 시원스레 밝혀 낼테다!  
옥이는 제잡담  
청년학교문을 열고 들어 선다

영혼의 앞에는  
여러장의 《청년전위》신문이 겹놓여 있었다  
옥이가 오는데도 제법 틀스럼게  
자리에 앉은채로  
옆의자 끄당겨 권하는 영혼

《옥이!  
오늘신문을 다시 보는중이야  
우리 장군님께서  
또다시 인민군구분대를 찾으신 소식  
옥이도 보았지?  
올해 정초부터 아버지장군님  
벌써 그 몇번  
최전연초소들을 찾으시었니!》

장군님영상이 모셔 진 신문들  
차례차례 펼쳐 놓는 영혼의 손길  
옥이의 마음을 휘저어 놓는다

《내 나이 이젠  
열일곱살이야  
이제부터는 결코  
헛나이를 먹고 싶지 않아

물론 나라밥 먹고 자란 청년이라면  
마땅히 과학과 기술의 성공탑으로  
우리의 강성대국 드높이 만들어야 하는 법  
그래서 대학으로 가는 길  
깨끗한 실력으로 다시 닦으려 했던것

하지만 옥이  
난 지금 군대로 가고 싶어  
우리 장군님의 선군령도  
제일선에서 받드는 장군님의 병사  
21세기의 영웅병사가 되고 싶어》

영혼은 말이 아니라 불을 토하는듯  
아버지장군님초상화 삼가 우러르는  
그의 동공은 감격에 뚫고  
숨 가쁘게 오르내리는 열혈의 그 가슴에  
온 누리를 통채로 포용할듯

옥이의 눈가에 핑 눈물이 돌았다  
저도 모르게 샘 솟는 눈물이

구슬알처럼 고운 두볼로 흘러 내린다  
《고마와요 영혼동무  
동무의 그 진정이 그 결심이...》

말끝을 맺지 못한채  
옥이는 흑흑  
청년학교문을 치반으며 달려 나가고  
청년동맹조직이며 세포비서아바이에게  
입대청원 새 희망 터놓으려  
영혼은 주섬주섬  
신문들을 정히 접어 가슴에 품어 안고...

## 2. 시내가에서

주알주알 시내물은 소리내어 흐른다  
이 골 저 골서 흘러 나오는  
샘줄기들과 반갑게 만나서는  
다정스레 속삭이며 흘러 간다

군에 가서 이틀간  
신체검사 마치고 돌아 온 해 질무렵  
영혼과 옥이는 나란히  
시내물에 발 잠그고 앉아 있다  
내가에 가득한 아카시아의 향취  
붕-붕-  
나비며 벌들의 날개풍금 켜는 소리

알몸뚱이시절부터  
영혼의 몸과 마음 씻어 준 시내  
옥이의 머리를 함초롬히 감기여 주며  
소녀시절에서 처녀시절로 떠설어다 준 시내

돌이는 한동안  
제나름의 추억에 잠겨 있다  
이 시내물속에 실리어 보낸 모든것  
가슴속에 그득히 차오른다

인민학교시절  
분교에서 돌아 오는 저녁이면  
이 시내가 돌다리 먼저 딛지 않으려고  
애송아지들처럼 다투곤 했다  
어찌 모르랴  
누구든 먼저 돌다리에 올라 서면  
등뒤에서 주먹만한 돌맹이로  
침버덩! 물탕을 쳐주려는 뻔한 마음씨

역시 그 시절에도  
옥이는 계집애였다  
치마자락에 물방울 몇개만 튀어도  
성을 발끈 내고  
벌처럼 앵- 쏘곤 하였으니까

하지만 영혼인?



문제가 달랐다  
바지가랭이 흠뻑 젖어도 히죽 웃고는  
물을 땀다 걸어 차며 건너 가는 사내였으니까

참, 이런 일도 있었다  
옥이의 벗어 놓은 빨간 구두에  
한뼘이나 되는 미꾸라지 몰래 집어 넣어  
그만에야 까무라치게 할뻔한 일도

무더위 여름철  
영혼이 침범침범 미역 감을 때  
흰 모래 한줌  
그 더부룩한 머리칼속에 비벼 넣던 일도

중학시절 어느 날인가  
둘이서 천렵을 나간 때도 있었다  
영혼은 반두질로 겨우  
버들치며 새우 몇마리를 잡았다  
《요걸루 어떻게 어죽을 쑤담?》  
착한 《주부》 옥이는 쫄알쫄알  
《젧, 그걸루 배를 채우겠니. 그거면 돼》  
대범한 《대장부》 영혼은 코방귀...

작업반 첫 생활속에서  
염소들과 헤엄비며 씨름질한 영혼의 작업복  
옥이가 남 모르개 빨아 준 일도  
옥이에게 엇구수한 밤청대맛 보인다고  
영혼이 채투성이되어 모닥불 피우던 일도  
시내물은 졸졸 속살거린다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수 없는  
청춘의 첫정이 스패인 향촌  
산그늘 깊은 고장이건만  
장군님 해빛아래 그늘없이 사는 마을

아름다운 삼골마을  
강성대국의 동네로 만들겠다고  
어질고 근면한 사람들이 하나의 지향속에  
쉬임없이 땀 흘리고 진정을 다해 가는 고향!  
여기서 자라난 모든 추억  
잊지 말라고 잊지 말라고  
시내물은 끝없이 이야기해 준다

《아-  
저 노을 좀 봐  
얼마나 곱니-》  
영혼이 가리키는 한끝에  
불깃불깃 채색노을 진하게 물들었다  
봉우리도 골짜기도 흘러 오는 시내물도  
온통으로 노을빛

추억에 젖고 꿈에 취한

영혼과 옥이의 모습  
저녁노을 불 붙이는 불꽃인듯  
쿵!- 대지를 박차며 두개의 로켓트마냥  
순간에 행복의 우주로 날아 오를듯

저기 동구길어구에서 떠들썩한 소리-  
온 마을이 송별축하연 차리고  
장군님의 병사로 될 청춘을 기다리고 있는것이다  
옥이가 향기로운 웃음 뿌리며 앞서 달리고  
영혼도 손 저어 노을을 휘감으며  
경중경중 그들을 향해 달려 간다

### 3. 산딸기의 참맛

신입병사 영혼 초소로 간다  
살진 고기 꼬리치며 물보라 뿌려 주는  
양어장 뚝을 지나  
산골짜마다 메아리치는  
염소들의 울음소리 달가롭게 귀에 담으며

자꾸자꾸 따라 서는  
아버지 어머니  
세포비서아바이  
그리고 마을어른들께  
병사의 첫 경례 거듭거듭 드리며

고민과 번뇌로 퍼그나 수척해 진  
어제날의 불결한 청년인 산영도  
이 아침 걸음걸음에 힘을 주며 따라 선다  
들꽃뭉음 안겨 주고 꽃보라 뿌려 주며  
온 마을이 작별의 인사 보낸다

유독 옥이만이  
마을길 끝나는 곳  
퐁퐁 솟음치는 샘물가에서  
왜서인지 뒤엀킨 가시덤불 헤치고 있다

마지막작별의 인사만은  
옥이와 나누고 싶어  
친동생처럼 무릅없이 정든  
삼골마을의 꽃- 유일한 동창생처녀  
옥이의 발그레한 두손  
난생 처음 가슴 울렁이며 꼭 잡아 보고 싶어서  
눈짓하는 마을사람들에게 떠밀려  
어쩔수 없다는듯 뒤덜미 문지르며  
영혼은 옥이를 향해 뛰어 간다

하늘빛 청청한  
행복과 순결의 눈동자  
하이얀 채양모엔  
연보라색 도라지꽃이 웃고 있는 옥이의 모습  
온통 해빛으로 빛어 세운듯

읍까지 자동차로 가는 길이 먼데  
목 마를 때 들라 하며  
옥이는 천진란만한 미소를 띄우고  
가랑잎과 비닐봉지로 꾸린것  
영혼에게 내여 민다

영혼이 펼치여 보니  
알알이 새빨간 산딸기  
해빛이 투명하게 스며 들어 반짝거리는 산딸기  
물차고 탐스러운 고향의 산딸기

산중에 갇은 꽃 봄 맞아 피여 날 때  
슛스러이 꽃잎들을 피우는 산딸기  
뜨거운 여름철 불덩이처럼  
빠알간 열매로 타번지는 산딸기  
못짐승들의 주둥이와 못새들의 부리를 무찌르며  
날카로운 가시 틈 없이 चु켜 들어  
한몸 지켜 내는 산딸기  
그것으로 산촌정서  
아름답고 풍요롭게 물들여 주는 산딸기

무르익은 산딸기의 그윽한 향취  
영혼은 폐부속 깊숙이 호흡하며  
옥이가 기쁘라고 즐거우라고  
산딸기 한알 입술에 물었다

한해전  
애착 없는 고향으로 돌아 오던 영혼과  
오래간만에 만났던 그때처럼  
옥이는 정겨웁게 물었다  
《산딸기가 맛 있나요?》

영혼은 한순간 말이 없었다  
눈가엔 숙연한 빛이 흘렀다  
말없이 다가가  
말없이... 말없이...  
옥이의 손목을 부여잡았다 그리고 웨치듯  
속삭였다

《제일이야!  
산딸기맛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맛이란 느끼기 탓이다  
자신의 혀가 어떻게 맛을 느끼는가  
자신의 넋이 어떻게 맛을 감수하는가  
이에 따라 맛은 천차만별!

맛을 알아야 한다  
생활의 맛  
투쟁의 맛을!  
청춘의 맛  
인생의 참된 맛을!

그 맛을 알기 위하여  
수년을 시련과 싸울수도 있고  
한생토록 온 넋을 불 태울수도 있으리  
운명의 곡절 많은 길을 걷고  
한순간에 심장을 바칠수도 있으리

영혼이 비로소 깨달은  
산딸기의 참맛  
그것은 시큼한 맛도 아니었다  
달콤한 맛도 아니었다

위대한 장군님만 모시고 따르는 열혈청춘들이  
희망보다 더 아름답게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지니고 있어  
불속에서도 타지 않고  
단두대에서도 잃지 않을  
고향의 참맛  
사춘시절의 참맛  
이 맛을 어떻게 형언해야 할런지!

영혼의 가슴속에 새겨 진 산딸기  
이는  
옥이의 청신한 얼굴이며  
고향의 깨끗한 모습  
그 질은 향취  
이는  
사춘기청춘의 심장속에 던져 진  
사회주의애국주의정신의 첫 불꽃

아니, 그보다도 오, 그보다도  
더없이 숭고하고 위대한  
아버이장군님께 향한 다함 없는 충정과  
결사수호의 신념이 응결된  
고향의 산딸기맛을  
어찌 영혼이 잊을수 있으랴

아, 산딸기  
고향의 산딸기는  
장군님의 영웅병사되어  
영혼이 돌아 올 날 기다려 기다려  
해마다 무르익으리 그윽한 향기 풍기리

...산굽이 돌고 돌아  
영혼을 태운 차는 사라져 가는데  
영혼이 쓰던 염소용 소금주머니  
통통한 허리에 힘껏 당겨 매고  
옥이가 맑게 부르는 노래-  
어릴적부터 영혼과 함께 부르며 자란 노래

《산에 산에 산딸기  
빨간 산딸기  
우리 나라 산이 좋아  
산에 산대요...》

# 비전향장기수와 그의 안해에 대한 연시

김휘조

## 1. 남편의 마음

### 나의 집

내 집으로 왔소 안해여  
당신이 지은 아이들 색동옷도 만져 보며  
두달이면 돌아 온다 그 아침에 떠났던 집  
40년을 왔소 인생의 해도 늦어  
머리에 흰 서리를 이고 왔소

밤이면 꿈에 보던 손때 묻은 사립문  
수령님 오셨던 해빛 밝은 저 길가  
복숭아나무열매향기 흘러 드는 집  
한밤에도 날 기다려 불이 밝은 집  
세상에 몸 담을건 이 집뿐이구려

두달이 40년이 되었소  
감옥에 갇혔던 몸  
살을 뜯는 채찍아래 입을 벌린 죽음아래  
피 배인 내 자국 밟고서 왔소  
쇠고랑이 무겁게 끌리던 하루하루

내 집으로 왔소 안해여  
세상에 돌도 없는 나의 집  
이제 또 어딜 가도 이 집으로 오기 위해선  
그런 피자국 기꺼이 또 밟겠소  
두달이 다시 40년이 될지라도

### 내 몸이라 무쇠겠소

창밖엔 쟁반 같은 달이 걸리고  
나는 젊은 때처럼 당신의 손을 잡고  
당신도 잡은채 내 손을 못 놓고

용케도 이겼다고 무쇠도 아닌데

말하는구려 당신은  
눈물 젖은 마디마디  
스물두군데 상처자국  
거치른 내 몸을 쓰다듬으며

그렇소 안해여  
내 몸이라 무쇠겠소  
남 달리 찢긴 몸이  
어찌 아프지 않은 강한 육체겠소

용케도 이겼다고 무쇠도 아닌데  
비틀린 몸 부서졌던 몸

허지만  
이 가슴깊이 당원증을 품은  
나는 당신의 남편이었소  
나는 아이들의 아버지였소

### 이 크나큰것은

내 전선으로 떠난 그 가을  
당신은 편지에 썼었지 어서 이기고 오라고  
돌아 오면 첫 탈곡한 고향의 햇쌀로  
흰밥을 지어 드리겠다고

더운 살이 되었소

못 잊었소 그 마음  
얼음장같이 얼어 드는 어두운 감방  
홀바라기에 손이 꼽는속에서도  
그 마음 내 더운 피가 되었소

당신은 또 썼었지 어서 승리하고  
나는 소 몰아 밭을 갈고  
당신은 이랑 밟아 씨 뿌리고...  
넓은 땅에 마음껏 농사를 짓자고  
해 좋은 날을 골라 수령님을 맞자고  
못 잊었소 그 마음, 그 마음을 생각하면

컴컴히 저문 어둠의 날개밑에서도  
 해빛은 이 가슴에 가까이 비쳐 오고  
 동글소 매던 고향내가 발두렁이 보여 오고  
 당신의 하얀 머리수건이 동구길에 기다리고...

그 길을 향해 내가 왔소, 그길이 있어  
 먼 길도 헛들지 않고 장벽도 넘어...  
 이 상은 당신이 반소 안해여 살뜰한 마음이며  
 《조국통일상》은 장군님 주신 큰 상은

## 2. 안해의 마음

### 통일투사인 당신은

당신은 말합니다 이 안해에게  
 첫째랑  
 당신이 안아 주고 떠나 간 둘째랑  
 잘 키웠다고, 어엿하게 끝끝하게

내 혼자 키웠겠나요  
 누런 이삭 넘쳐 나는 넓으나 넓은 들  
 농산기사로 관리위원장으로  
 내 혼자의 손길이 키웠겠나요

보살펴 주셨습니다  
 당신이 없어 외로워 말라고  
 장군님은 눈비를 가려 안아 주시고  
 대학의 밝은 창가에 앉혀 주시고...

거리에 마을에 집집의 지붕우에  
 공화국기 날리는 흥겨운 명절이면

그런 날이면 더더욱 생각했습니다  
 그리운 당신의 모습을

그러면 어려 오는 모습, 한없는 미더움  
 김 매던 손을 털고 떠나던 모습이

군복이 땀에 젖어 포연에 절어  
 굳세게 원썩을 찼을 당신의 모습이

자꾸만 자꾸만  
 수령님과 장군님의 초상화만 우러르며  
 눈물 짓는 당신께  
 나는 묻지 않아요  
 무슨 힘으로 허기진 몸 지친 몸 끌며

당신이 곁에 없어 허구한 날을  
 잠 못들던 이 몸

그리고 당신이 멀리 감옥에 계실 때  
 고문대앞에서도 굳게 닫긴 가슴  
 -나는 전향을 모른다  
 오직 한마디 당신이 웨칠 때

그때 당신은  
 고운 꿈 담아 정 담아  
 불러 주고 있었습시다 아들들에게  
 가장 사람 깊은 아버지의 자장가를

그렇습시다 쓰러져도 고개만은 들고 일어 설  
 때에  
 터진 입술 감물고 일어 설 때에  
 당신은 키우고 있었습시다 자식들을  
 멀리서도 당신은, 통일투사인 당신은

### 명절날이면

감옥에선 갇은 고초 뼈를 깎아도  
 그 군복 마음속에 벗지 않을 모습이...

그러면 나는 당신이 떠난 고개길을 바라 보며  
 그러면 나는 가슴 가득 새 힘을 안으며

가없는 하늘가를 다시 쳐다보았습시다  
 기운차게 날리는 공화국기발을

그 기발에 자랑찬 내 나라 기발에  
 그리운 당신의 모습이 있었습시다

### 나는 묻지 않아요

피 묻은 담벽을, 고문대를 헤치고 왔는지  
 묻지 않아요 당신의 마음 내 알기에...  
 그래요 우리 장군님 어버이 한마음  
 낮이나 밤이나  
 당신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 잠들수 없는 밤

오늘은 당신이 곁에 있어 잠 못들습니다

눈 뜨고 꾸는 꿈만 같은 밤  
밤 따라 생각만 총총해 지고  
생각 따라 사무치는  
사무치는 고마움

얼마입니까 그리도 모질은 정  
당신을 그려 재가 앉는 이 마음도 안으시고  
장군님 보내신 낮과 밤들은

고생 많은 비전향장기수들이라고  
불굴의 투사들이라고, 영웅들이라고  
어서 데려 오자고, 모두 데려다  
여생을 편안하게 해주자고...

그 사랑에 당신이 안겼습니다  
다함이 있으니까 뼈를 갈아 논밭에 뿌려

땅을 걸구며 그 은혜에 보답한들

잠들수 없습니다  
당신을 내결에 데려다 주시고  
이 밤도 머나먼 길 떠나시는 장군님  
자욱자욱 가시는 그 길에 찬 바람은 없는지

잠들수 없습니다 이 밤은 더더욱  
행복이 너무 커 잠 못들어섭니까  
아닙니다 어린애처럼 그이결으로만 달리는 마음

그렇습니다  
그이는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당신이 결에 없어 잠 못 들던 이 몸  
오늘은 당신이 결에 있어 잠 못듭니다

## 탄전의 저녁풍경

강성국

해가 지네  
산국화 무리 지어 피어 난  
밋밋한 산등성에  
사뿐히 내려 앉네  
갱구를 나서 손에 벗어 든 안전모처럼  
등근 저녁의 붉은 해

바라보면 마치도  
내 흘린 구슬땀방울에 씻겨  
저리도 티없이 맑은듯  
내 쏟은 불 같은 열정에 받들려  
저리도 이글이글 붉게 타는듯

어깨가 그대로 동발이 되고  
한몸이 그대로 정날 되어 굴길 열던  
그 위훈없이야  
내 어이 설레이는 가슴 안고  
너를 바라보라  
손 저으면 감길듯 진한 노을을  
필필이 풀고 풀어 석탄산을 감싸며  
차마 떠나기 아쉬워  
머뭇머뭇 지는 붉은 해

아름답구나  
내 흘린 구슬땀은  
집집의 창가마다

행복의 불빛 되어 밝게 웃고  
내 쏟은 열정은  
철의 지구 쇠물빛에 붉게 타며  
창조의 새날을 안아 오려니  
너무도 아름다움에 눈이 부시여  
살며시 감으면  
그래도 눈뿌리까지 붉은 빛 가득차는  
지는 해여

잘 가라 너는 지여도  
내 마음은 더없이 즐겁구나  
솟는 해 지는 해  
나날이 더 아름다와지라고  
노을은 더욱 짙게 이 땅을 붉게 물들이라고  
나는 더 많은 구슬땀을 탄에 흘리고 싶다  
나는 더 뜨거운것을 막장에 쏟고 싶다

해가 지네  
산국화 무리 지어 피여난  
밋밋한 산등성에  
사뿐히 내려 앉네  
갱구를 나서 손에 벗어 든 안전모처럼  
등근 저녁의 붉은 해  
볼수록 아름다운  
오, 탄전의 저녁풍경이여!

## 작가의 체험이 낳은 소설

주체7(1918)년 5월 12일, 당시 《캔저스 씨티 스타》지의 견습기자로 있던 어니스트 헤밍웨이[1899~주체50(1961)]는 이날 그렇게도 바라마지 않던 참전의 허락을 받았다. 5월말에는 브람백크라는 동무와 함께 대서양을 횡단하여 프랑스전선으로 가는 배에 올랐다. 20살도 안된 애젊은 두 청년은 전쟁이라는 모험적이며 낭만적인 광경을 한시바빠 체험하고 싶은 생각에 속이 달아 올라 안절부절 못했다. 불비가 쏟아 지는 빠리에 도착했을 때에야 그들의 마음은 다소 녹잡혀 졌다.

《운전수에게 이르게.》 헤밍웨이는 친구에게 명령조로 말했다. 《폭탄이 떨어 지는 곳으로 택시를 몰라구. <스타>지에 실을 이야기거리를 얻게 되면 <캔저스 씨티>사의 눈들이 켜헤 질거야.》

팡-팡- 폭탄이 작렬하는 속을 뚫고 택시는 한 시간나마 빠리시내를 질주했다. 매캐한 화약내와 먼지를 가슴이 빼개지도록 들이키며 헤밍웨이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때 아츠러운 소리와 함께 폭탄이 곧바로 머리위에 떨어 지는가 싶더니 뒤에서 터졌다. 누구도 부상 당하지 않았다.

《정말 재미난데!》 헤밍웨이는 탄성을 질렀다.

하지만 빠리는 인차 시카고와 다를바 없는 단조로운 곳으로 되어 버렸다.

《이거 정말 참기 어려운걸.》 헤밍웨이는 갑갑증으로 하여 짜증을 내며 말했다. 《빨리 우릴 전선으로 보냈으면 좋겠어.》

다행히도 발령이 떨어 졌다. 하루이틀 지나 그들은 이탈리아전선으로 떠났다.

6월 중순에 헤밍웨이는 《캔사스 씨티》사에 흥분으로 가득찬 우편엽서들을 보내었다.

그는 곧 프랑스군소속 야전병원의 구급소생차 운전수로 되었다. 포탄이 터지는 속을 전조등도 켜지 못하고 밤새껏 달려야 했다. 《구급소생차가 아니라 령구차를 몰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악몽 같은 나날이었다. 《현실과는 무관계한 밤들이었다. 아침은 마치도 고통에서 풀려 난것처럼 찾아 온다》고 누군가가 고통과 절망속에 뇌이였을 때 헤밍웨이는 코웃음을 쳤다. 그

러나 자신의 신상에 어떤 위험이 닥쳐 오는지를 그는 그때까지 알지 못했다.

열아홉번째 생일을 두주일 앞둔 주체7(1918)년 7월 8일 한밤중이었다.

참호속에서 이탈리아군 병사들에게 초콜레트를 나누어 주고 있는데 오스트리아군의 박격포사격이 시작되었다. 불과 1m 가량 떨어 진 곳에 포탄 한발이 면바로 날아 와 터졌다. 초콜레트를 받던 병사는 즉사하고 그 옆에 서있던 병사는 두다리가 허공 달아 났다. 세번째 병사는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다. 포탄은 헤밍웨이라고 레외로 하지 않았다. 무려 227개소에나 파편이 박혀 그의 온몸은 벌둥지로 되어 버렸고 오른쪽 다리에는 기관총탄알이 박혔다. 그렇게도 매혹을 느끼던 《삶과 죽음의 극》이 과연 얼마나 비싼 대가를 요구하는것이였는가를 폐부로 절감하며 그는 앞으로 폭 꼬꾸라졌다.

야전군의소에서 수술하여 28개의 파편을 뽑아냈다. 집에 보내는 편지에 그는 파편크기를 그림으로 그려 보냈다. 닷새후에는 밀라노병원에 후송되어 석달동안에 총 여섯차례의 수술을 받았다.

그때 받은 정신적타격이 얼마나 컸는지 밤에 불을 켜지 않고는 잘수 없는 상태가 그후 몇년동안이나 지속되었다. 이것이 그가 생애에서 처음으로 맛본 무시무시한 죽음의 극이었다. 《삶과 죽음의 극》에 대한 매혹은 산산이 깨여 졌다. 브람백크의 말에 의하면 그는 급속도로 《전쟁에 환멸을 느끼었다.》 썩 후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전쟁에 대한 그 어떤 체험이든 예술가에게는 더없이 귀중한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많이 겪는 경우에는 유해로운것이다.》

헤밍웨이는 자진하여 뛰여 들었던 제국주의전쟁이 인류에게 가져다 준 불행과 참화를 뼈저리게 느끼었다. 그때의 체험이 재현된것이 바로 장편소설 《무기여 잘 있으라》[주체18(1929)년]였다.

전쟁의 리면과 참혹한 현상을 랭정하게 파헤친 소설의 주인공 헨리는 다름아닌 작가자신의 자화상인것이다.